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악한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 말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79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4년 음력 1월 12일) 2020년 2월 5일 수요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여파는 사찰에도 미쳤다. 1월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우한 폐렴 확산일로… 불교계 대응 '박차'

'신종코로나 전염' 사태, 불교계 영향은

WHO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
韓 7번째 확진… 2차 감염도

정월대보름 앞두고 대응 '분주'
사찰, 손소독제 구비 예방 조치
종립학교들 입학 · 졸업식 조정
中 순례 취소…여행업계 타격

신성민 · 노덕현 · 하성미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武漢)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1월 31일 기준 국내에서도 11번째 확진자와 2 · 3차 감염자가 발생하는 등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도 우한 폐렴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1월 30일 조계종 등 불교계 종단과 종교단체에 '우한 폐렴'에 대한 방역 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에 조계종 총무원은 "사찰에서 법회 및 행사 시 마스크 착용, 손 세정제 준비 등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와 대중 스님들의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국 종단 소속 사찰 주지 스님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공지했다.

이에 맞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월 30일 산하 복지관들에게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템플스테이 업무를 총괄하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도 130여 곳 사찰에 우한 폐렴 예방 협조안내문을 국문 · 중문 · 영문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정월방생법회 취소 · 연기 논의

우한 폐렴 확산은 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리는 불교계의 방생법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금정총림 범어사는 2월 10일로 예정했던 정월방생법회를 취소했다. 진안 쌍봉사는 2월 1일 계획된 성지순례를 잠정 연기했으며, 더 확산되면 4월까지 연기할 예정이다. 부안 내소사는 2월 7일 봉행되는 당산제를 대폭 축소해 사중 스님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한다.

신도들에게 감염 예방을 당부하는 사찰들도 늘고 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는 2월 9일 봉행하는 정월방생법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감염 예방을 위해 참여 신도들에게 예방 수칙 엄수와 마스크 사용을 당부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대웅전과 종무소에는 손소독제도 구비 · 비치했다.

조계사 · 봉은사 등 대형 도심사찰들도 추이를 살피며 정월방생법회 봉행 여부 등을 논의 중이며, 1차적으로 사찰 곳곳에 예방 안내판 설치와 손소독제 비치를 완료했다.

불교 관련 단체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불교환경연대는 2월 15일로 예정된 재두루미 먹이주기 방생법회 봉행 여부를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파라미타, 동련 등 어린이청소년 단체들은 3월에 행사가 예정돼 직접적 영향은 아직 없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3월 지도자 연수 및 행사 일정 전면 연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2월 중 신입생 모집에 들어가는 어린이 · 청소년 · 대학생 포교단체들도 우한 폐렴 확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불교계 기관 · 관광업계도 '촉각'

불교종립학교들의 학사일정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국인 유학생이 많은 동국대다. 동국대 어학당은 설 연휴부터 2월 3일까지 휴강에 들어갔으며, 연장도 논의 중이다. 또한 본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졸업식, 입학식 취소 등의 일정 조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월 31일 현재)

범어사 종립학교 금정중학교는 1월 31일 열린 졸업식을 각 교실에서 축소해 진행했으며, 불교종립학교 학생임원 수련회도 내원정사서 2월 8~10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불교 해외성지 순례는 타격을 입었다. 불교 여행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성지순례에 대한 취소가 대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태국과 인도 등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경과 중국 오대산, 보타산 등의 성지순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승투어 관계자는 "2월에는 통상 300명 가량이 성지순례에 참여했다. 우한 지역으로 들어가는 상품은 없음에도 중국 관련 상품은 현재 90%가량이 취소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마하연여행사도 이러한 중국을 비롯한 해외성지순례 취소가 국내 성지순례 취소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여행사 측은 "대중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매출 타격은 불가피하다"고 털어놨다.

이상원 실크로드여행사 사장도 "사실상 중국 여행은 100% 취소라고 보면 된다. 4~5월 떠나는 여행도 항공사 취소 수수료가 3월까지지만 취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아무쪼록 폐렴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국불교계 영향은

중국 현지에서는 검역이 강화되며 신도들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본지의 이호 광저우 통신원에 따르면 "사찰 폐쇄뿐만 아니라 아파트 등 집단 주거지는 검역과 함께 입출입시 발열체크를 하기 때문에 사찰 행사에 가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우한 대표사찰인 귀원사(歸元寺)를 비롯해 호북성에 위치한 오조사(五祖寺)도 폐쇄됐으며 사찰의 대외행사는 전면 취소됐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전화를 통해 건강관리를 당부하고 사찰보다 집에서 다른 이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eekly Focus 2면

르꼬르동블루 런던캠 사찰음식 정규교육 편성

문화사업단 신년 간담회서 밝혀

한국불교의 대표 전통문화인 사찰음식이 세계 3대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 영국 런던캠퍼스에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앞서 학생들을 위한 사찰음식 강연은 있었지만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은 1월 29일 서울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르 꼬르동 블루의 사찰음식 교육과정 편성이다. 르 꼬르동 블루는 120여 년의 전통을 갖춘 프랑스 요리학교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캐나다 등에도 캠퍼스를 두고 있다. 이 중 영국캠퍼스의 채식교육과정에 사찰음식이 3월과 8월 연 2회 정규교육으로 제공된다. 강사는 법송 스님이 맡으며, 강의 메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르꼬르동블루의 채식과정은 3개월간 진행된다. 이 가운데 사찰음식이 한 차례 교육 카테고리로 제공될 예정"이라며 "사찰음식 특강은 몇 차례 진행한 적이 있지만 정규과정 편성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사업단은 사회공헌을 위한 '나눔 템플스테이' 확대를 위해 별도 예산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층, 공상경찰관 등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현재 경찰청과 법무부, 여성가족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과 업무협약도 맺은 상태다.

이 같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나눔 템플스테이 참가자는 2018년 9795명에서 지난해 2만 4471명까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문화사업단은 나눔 템플스테이 전용예산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해 지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평가항목에 나눔 템플스테이 관련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사찰 스스로 템플스테이의 사회공익적 가치를 더 크게 실현해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문화사업단은 올해 내 · 외국인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해 전통사찰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운영에 힘을 쏟는다. 또한 사찰음식 특화사찰의 교육기능을 높여 지역문화 확산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불교사찰음식체험관에서는 가족 및 무료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찰음식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인다.

원경 스님은 "템플스테이가 그동안 전 세계 500만 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며 "올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템플스테이로 우뚝 서는 원년으로 삼겠다. 소외된 이웃과 약자를 더욱 따뜻하게 보듬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연등시공 전문기업
대광불교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Weekly Focus

신종코로나 확산, 불교계는?


1월 31일 서울 조계사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불자들이 손을 닦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형 법회·행사 자제”… 전문가 한목소리

신성민·노덕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포 이후에도 1월 31일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외 8개 지역에서 사람간 전염사례가 발생하고 확진자 발생 국가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22개국에 달하는 확산세에 국제사회가 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1월 31일 현재 2차 감염자를 포함한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르스 당시 불교계 대응은

일명 ‘우한 폐렴’ 대유행이 예고되면서 불교계에서는 과거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와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당시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03년 사스(SARS) 당시 불교계의 대응은 대응이랄 것이 없었다. 당시에는 참여정부 출범 초기로 방역이 국가 차원에서 이뤄졌고, 중국과 홍콩에서 6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동안 한국에서는 확진자가 1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불교계에서는 정부 요청 하에 당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개최할 예정이었던 ‘2003민족화합 금강산 성지순례’를 취소하는 정도의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불교계의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정부 차원의 방역망이 붕괴된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부터 본격화됐다.

2015년 5월 발생한 메르스 사태의 여파는 6월부터 불교계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사찰 법회 참가자는 대폭 감소했다. 서울 한 사찰의 경우 일요법회 참여자가 800명에서 600명으로 약 20%가량 감소했으며, 5월 초하루법회는 40%가량이 감소했다.

불교계는 이후 법회와 행사를 취소하며 확산 방지에 나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6월 6일 개최예정이었던 재가불자 대중공사를 연기했고, 6월 8일 예정이었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를 시작으로 공공기관 합동수계법회, 템플스테이, 어린이청소년캠프 등도 줄지어 취소됐다. 사찰마다 메르스 극복기원 플래카드를 걸고 사보와 문자 등을 통해 신도들의 자발적인 예방을 독려하기도 했다.

확산 빠른 ‘우한 폐렴’ 대책을

4년 뒤 이어진 우한 폐렴 사태에서 불교계는 대응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중 이동이 많은 조계사의 경우 1월 30일 소독제를 비치하고 예방수칙을 쓴 플래카드를 사찰에 걸었고, 다른 사찰들도 사찰 곳곳에 손소독제 비치와 예방 수칙 안내문을 내걸고 있는 상황이다.

메르스 당시 불교계 빠른 대응
대형법회 등 취소해 확산 방지

현재는 추이 보며 대응책 고민
“비말 전파로 2차 감염 가능성
中여행자 참석 자제 권고해야”

금정총림 범어사 등에서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열리는 방생법회나 오래 전 계획됐던 성지순례 등을 취소·연기하고 있지만, 그 수가 이전 메르스 사태와 같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사찰들에서는 우한 폐렴의 확산 추이를 보고 법회와 행사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의 감염 전파 속도가 빠르고, 확산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일선 사찰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충고했다. 특히, 사찰을 찾는 주연령층이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인 만큼 되도록 대형 행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류재환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은 “짧게는 3월에서 길게는 4월까지도 우한 폐렴의 여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불교계가 대중이 많이 모이는 행사를 되도록 자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차 감염자가 발생했고 감염이 사람 간 비말(飛沫)로 전파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는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 일반 사회에서는 대형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찰과 불교 단체의 행사 취소가 어렵다면 14일 이내에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 신도들에게 법회와 행사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공지를 하고,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 있는 신도들도 요양할 것을 권고하길 바란다”면서 “사찰에서 알코올 70%이상의 손세정제를 구비하고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사찰 공동체 전반의 위생과 방역 수준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정지천 교수는 “2차 감염 발생 이후 무증상 전파 발생 가능성 등 위험성이 있다. 과도한 공포와 혐오는 병의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도 개개인의 위생도 중요하지만 사찰공동체 전반의 위생과 방역 수준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정보력이 약한 주변의 고령의 불자들에게 예방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전하고 함께 이겨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 감염 확산 방지 위한 사찰 조치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사 취소가 어렵다면 14일 이내에 중국 여행 이력이 있는 신도들에게 법회와 행사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야 한다. 사찰에 손세정제를 비치하고 신도들에게 마스크를 제공하는 것도 공동체의 위생 상태를 높이는 방법이다.

Q. 신도 제공 마스크는 어떤 것이 좋나

식약처가 인증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 하는데, 최대한 코와 입, 턱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같은 마스크는 1회용으로 8~10시간을 착용했다면 폐기해야 한다. 일반 방한 마스크는 쉽게 오염될 수 있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Q. 신도 개인을 위한 예방 수칙은

사찰에 비치된 손세정제가 있다면 이를 사용해도 된다. 손세정제는 알코올 70% 함량이 좋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감염 예방에 가장 도움된다. 법당이나 대중이 많이 모인 곳에서 기침이 나온다면 손이 아닌 옷소매에 하는 ‘기침 에티켓’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마스크 착용도 사찰에서 권고하면 좋다. 〈도움말. 최승임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감염내과 교수〉

기자의 펜

‘코로나 포비아’ 확산 어려울 때 주변살피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며 온·오프라인 어디서든 부정적 내용이 쏟아지고 있다. 환자들이 아무런 제지를 안 받고 내 주변을 활보했다고 맹비난한다. ‘중국인’, ‘조선족’ 심지어 ‘다문화가족’까지 위험하다고 낙인 찍으며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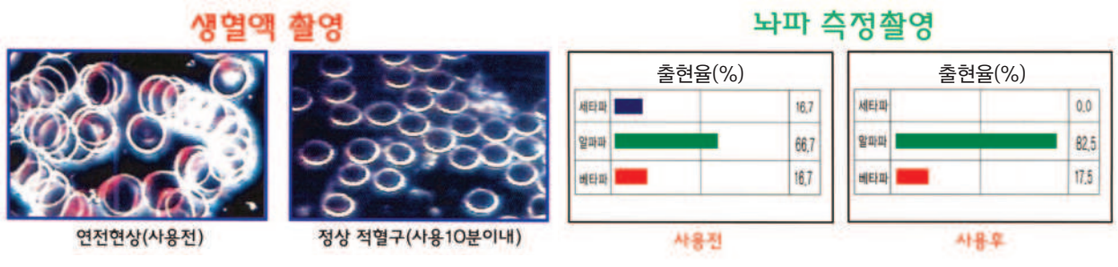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31일 현재 60만명이 참여했으며, 우한교민의 거부하는 반대시위도 벌어졌다. 새로운 전염병은 그 위험성이 정확히 판명되기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조차 그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에 의한 포비아는 또 다른 우리사회의 아픔을 낳는다. 2015년 메르스 당시 감염에 대한 우려로 봉사자 및 후원 감소가 이어졌다.

전염병은 개인의 질병임과 동시에 우리사회에 혐오와 분노를 양산하는 병이다. 불자로서 사회의 병고 또한 돌보는 노력이 필요한 때다. 노덕현 기자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양치후 먹었더니 식중독·배탈·설사가 없어지는 치약

원래의 세정목적 외에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대장균(식중독균), 포도상구균(화농성세균) 99.9% 정균 감소 가능과 탈취 75%, 음이온 134cc, 원적외선방사 90.2% 의 기능으로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체험수기 개발자인 41년 3월생 남자 본인은 BLOOD MATE®사용후 6년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단 한번도 몸살, 감기를 앓아누워본 적이 없으며 안경을 써야 신문을 봤는데 현재는 안경없이 신문을 보고 코막힘이 없고 가래나 누런코도 나오지 않습니다.

BLOOD MATE®(비누)는 아토피, 무좀, 비듬, 발뒷굼치각질, 체취 등 각종 피부질환을 없애주고, 특히 연전현상의 엉켜있는 적혈구가 정상화되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므로 허리, 목, 어깨의 통증과 다리에 쥐나는것을 개선하는 효과

BLOOD MATE® ●강비누:120g 개당 25,000원 ●순비누:120g 개당 10,000원

양치후 뱉어내지않고 먹었더니 식중독, 배탈, 설사가 없어지고
숙취에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며 술이 깨면서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치약)는 구강건강(잇몸 붓는것, 피나는것, 아픈것, 이시린것, 이 흔들리는것 등)은 기본이고 잇몸이 튼튼하고 치태가 끼지 않고 구취가 없으며 하루종일 입안이 개운합니다.
식후에 바로 양치하고 먹었더니 속이 편안해지고 정신이 맑아진다

ORAL MATE® 치약 120g 할인가 개당 15,000원

위와같이 BLOOD MATE®, ORAL MATE®가 별도의 추가 부담없이 공산품인 세정용 비누가 피부, 세포를 건강하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의약외품인 치약이 배탈, 설사, 식중독이 없어지고 구강건강을 지켜준다면

이는 식약처가 과대, 과잉광고로 단속을 하여 생산활동을 막을것이 아니라 진위를 확인하여 오히려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지원, 보호,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요 국가 산업발전, 해외수출 등 국익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서소문공원 ‘성지’ 아닌 ‘열린 공간’ 변화를…

종교투명성센터, ‘종교와 재정’ 좌담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해 6월 가톨릭 순교성지가 된 서소문역사공원에 대한 종교편향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종교투명성센터는 1월 29일 서울 중구 문화살롱 기룬에서 ‘종교문화시설의 현주소-서소문역사공원의 경우’를 주제로 ‘종교와 재정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가톨릭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서소문역사공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공공부지였던 공간이 특정 종교의 성지로 점유·전유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종교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소문역사공원의 전시 운용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서소문역사공원 전시 운용의 세부내용을 보면 사실상 특정 종파의 장기독점을 염두에 둔 장치들이 곳곳에 설치됐다”며 “실제로 가톨릭만을 위한 경당을 갖추고 그곳에 종교의식만을 전담하는 사제를 배치하고 있어 종교시설로서의 물적, 인적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길순 명지대 교수는 ‘서소문공원 성지화 과정’ 주제 발표에서 “국가 공공기관에서 특정종교 사업을 할 수 없지만, 특정 종교 유적지 사업을 진행했다. 이름만 서소문역사공원이고 내부 시설은 서소문 순교성지박물관이 됐다”면서 “해당 공원은 명실상부한 조선시대 역사 희생자 추모시설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가톨릭 순교성지가 된 서소문역사공원은 가톨릭뿐만 아니라 천도교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곳이다. 동학 농민운동의 지도자인 전봉준이 1894년 이곳에서 교수형을 당했으며, 2대 교주 최시형은 1898년 서소문 감옥에서 재판을 받은 뒤 순교했다. 동학 농민군 3대 지도자 김개남은 전주에서 참형된 뒤 머리만 압송돼 다시 서소문역사공원에서 효수됐다. 이웃종교와 민중의 기억을 지우고 자신의 역사를 부각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서소문역사공원에 세워진 천주교 순교자 현양탑. 서소문에서 순교한 천주교인들을 기리며 세워졌다. 이를 중심으로 공원 내에 순교 박물관이 건립돼 있다.

국고 등 596억 원 투입돼
지난해 가톨릭 순교성지화
이웃종교·민중 역사 지운
무리한 성지화 사업에 비판
“다양성 견지서 재구성 필요”

이 같은 가톨릭의 성지화 사업은 불교계와도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 천진암과 여주 주어사다.

천진암과 주어사는 조선 후기 중국으로부터 전래한 천주교 자료들을 공부하던 권철신 등이 1779년 천주강학을 진행하다가 1801년 신유박해 당시 천주학을 공부하던 이들과 이를 보듬고 지켜주던 스님들이 함께 수난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폐사의 길로 접어든 아픈 역사가 담긴 곳이다.

하지만 천진암은 더 이상 사찰이 아닌 한국천주교회 창립 성지로 불리고 있다. 이곳에는 한국 가톨릭 창립 선조 5위의 묘소가 있고, 매년 한국천주교회 창립 행사도 열리고 있다.

다만 주어사지는 국유지여서 본격적인 성지화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22년까지 임차한 상황이다. 여기에 2015년부터 용주사를 중심으로 가톨릭 성지화 추진을 반대하는 운동을 펼쳐 사업의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어사지에 있었던 ‘해운당대의징비’를 천주교 절두산 성지로 가져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2015년 당시 주어사지 가톨릭 성지화 반대 운동에 나섰던 제2교구 신도회는 “천주교 측이 천진암을 성지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 마포구 합정동 절두산 천주교 성당으로 옮긴 주어사 해운당대사 의징 스님비와 여주시청에 보관돼 있는 부도탑을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소문역사공원 역시 특정종교의 성지가 아닌 공동의 역사 공간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게 이날 좌담회 참석 패널의 주장이다. 성강현 동의대 교수는 “동학의 관점에서 본 서소문은 동학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역사적 공간”이라며 “서소문역사공원은 천주교가 독점할 역사적 공간이 아니라 조선시대 동학을 포함한 사회 개혁·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집중 사무총장은 “근본적으로 구청이 시설운영권을 가져와 직접 운영하고 종교·사상·역사적 다양성의 견지에서 내용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정 종교만의 배타적 공간이 아닌 다양한 종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폭설 내린 월정사 ‘雪景’

평창 월정사를 비롯한 강원도 전역에 올해들어 첫 눈다운 눈이 내렸다. 뒤늦게 평균 9cm의 눈이 내려 최근 3년 만의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사찰의 기와지붕마다 소복히 눈이 쌓였고, 공양보살상은 하나의 눈사람이 됐다. 월정사의 상징인 팔층석탑은 하얀 설경의 상징처럼 눈속에 드러났다.

운력으로 눈을 치워야하는 걱정도 잠시 눈은 어렸을 때의 순수한 감정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새하얀 눈 덮인 월정사 설경이 주는 매력에 참배객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는다. 눈꽃 속에서 추억이 쌓이고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는 낭만을 더한다.

노덕현 기자, 사진제공=월정사

백만원력 원만성취 기원법회 시작

조계종, 위례 상월선원서 1월 29일 1차 법회 봉행

“대한민국 위례신도시 포교당 건립 발원도량에서 백만원력 결집불사 원만성취 기원 1차 기도법회를 맞이해 지극정성으로 기도 축원하옵나니 국민들의 고난을 어루만져 안락하게 하옵시고 남북이 공존하여 하루속히 상생하게 하시옵소서.”

위례 상월선원 기도법당에 우리 사회의 화합과 평화를 위한 간절한 발원이 하나로 모여 울려 퍼졌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을 일주일 앞둔 1월 29일, 조계종 소임자를 비롯한 불자대중이 백만원력 결집불사 성취를 발원하는 제1차 백만원력결집불사 원만성취기원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이 개최한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부실장 스님들과,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도법회에 종단을 대표해 법사로 나선 총무부장 금곡 스님은 “낙산사 화재 이후 10년에 걸친 복원불사 중에서도 끊임없이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하고 발원했다. 8가지 종단의 중차대한 불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꼭 기도를 해야 한다”며 “확실하게 믿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 손과 마음으로 함께 정진한다면 이뤄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곡 스님이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3월 6일 경주 열암곡 마애불 앞에서 2차 기원법회가, 3월 26일 인도 보드가야에서 3차 기원법회가 열리며 매달 백만원력불사 현장에서 기원법회가 열린다.

위례=노덕현 기자


백만원력 원만성취 1차 기원법회서 참가 대중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병동 증축된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회, 병동신축 결정

동국대 일산불교병원이 250병상 규모의 병동을 신축한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법산)는 1월 31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제326차 이사회를 열고 일산불교병원 신축 계획을 승인했다.

6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병동 증축 불사는 250병상 규모의 입원실을 비롯해 교수연구동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회복기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전문치료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사회는 “새로운 병동이 들어서면 기존 650병상에 250상이 더해져 900병상을 보유하게 돼 그동안 제기돼온 병상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예산 확보와 설계, 운영 등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임기만료된 이사 일관 스님과 9월 20일 임기 만료된 감사 주경 스님의 후임 선임의 건은 차기 회의로 이월됐다.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와 감사는 조계종의 후보 추천을 받아 선출해야 하지만 조계종의 추천이 없었다”고 이월을 결정했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2020년 산하기관 예산안과 경주병원 응급실 및 장례식장 확장공사 등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고 폐회했다.

신성민 기자

2020년도 1학기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기본과정 및 심화과정 모집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 불교학연구자를 위한 한문독해능력 배양 | 불교학술원의 학술사업 참여 인원 양성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협력 교육기관

1. 모집 인원

구 분		수업연한	정 원	비 고
기본과정	선발	2년	30명	서류심사 및 면접전형
	일반	학기별	30명	선착순
심화과정		2년	15명	서류심사 및 면접/필기전형

2. 지원 자격

■ 기본과정
- 4년제 대학 재학생 이상
- 조계종 교육원 추천을 받은 승려
- 불교한문에 관심이 있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 일반 수강생은 학력무관

■ 심화과정
- 불교한문 아카데미 기본과정 졸업자
-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 기본과정 졸업자와 동등한 한문 능력을 갖춘 자

3. 입학원서 접수
- 기 간 : **2020. 2. 3(월) ~ 2. 21(금) 17:00**
- 제출서류 : 불교학술원홈페이지 입학안내 참조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4. 입시 전형
- 전 형 일 : **2020. 2. 22(토) 10:30~11:40/13:00~16:00**
- 전형장소 :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동 227호

	1교시 (10:30-11:40)	점심시간 11:40-13:00	2교시 (13:00-16:00)
기본과정			면접 전형
심화과정	번역시험		면접 전형

※ 번역시험 출제범위 : 대승기신론, 선원제전집도서(종밀), 현정론(기화).

5. 합격자발표 : **2020. 2. 25(화)** ※개별 통지

6. 수업운영
- 개강일 : **2020. 3. 2(월)** - 수업시간 : 18:30~21:30(3시간)

개설과목

	월	화	수	목	금
기본과정	아함경	범어한문 경전강독	논어	구사론	삼국유사
	금천스님	원과스님	공근식	박인성	박해당
심화과정	대승의장	화엄현담	불가문집 번역연습	한시특강	선어록
	박해당	선암스님	성태용	이상하	문광스님

※ 각 과정별 1~5과목 선택수강 가능(1과목 3학점 / 15주)

7. 수강료

		일반인	동국대 교직원 재학생	선발과정 수료생	동국대 대학원수료생 타대학·대학원 재학 및 수료생
기본과정	선발	60만원	30만원	30만원	42만원
	일반(과목당)	20만원	10만원	14만원	14만원
심화과정	선발	60만원	30만원	30만원	42만원

※ 조계종승려 : 연수생 - 전액면제, 일반 수강 - 과목당 14만원
※ 심화과정 수료자는 심화과정 일반수강가능 - 과목당 10만원
※신한은행 140-009-359309(예금주:불교한문강좌) - 수강자 이름 반드시 표기 / 교재비 별도

8. 특 전
- 조계종 추천 승려 기본과정 2년 수료 시 종단의 3급 승가고시 응시에 2년 교육 경력 인정
- 선발연수생 : 성적 우수자 장학금 수여, 동국대 중앙도서관 도서대출증 발급

오시는 길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전화 : 02-6713-5154 / 이메일: hanmun@dongguk.edu
홈페이지: http://abc.dongguk.edu/academy/
동국대학교 충무로영상센터 본관동 3층 310호(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3,4번 출구 매일경제 사옥 맞은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명절 반찬봉사, '명·품·녀'가 해요

(사)미소원 봉사팀 8년째 소외계층 봉사 나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명절이면 각 가정의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로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명절증후군이란 단어는 이미 익숙해졌고, 명절을 지낸 후 이혼 수치까지 늘어나 사회문제까지 되고 있다. 하지만 봉사로 행복한 명절을 맞고 있는 팀이 있다. 사단법인 미소원 봉사팀 '명품녀'다. '명절에는 품절이 되는 그녀들'이란 말을 줄여 '명품녀'라고 불리지만, 속뜻은 '석가족의 대표 며느리이자 마음이 명품인 봉사자들'이란 의미가 담겼다.

설날 하루 전인 1월 24일에 방문한 사단법인 미소원 공양간에는 푸짐한 명절 음식이 가득 찼다. 미소원이 마련한 명절 음식들은 일반 가정집에서 마련하는 제사 음식과 비슷하다. 각종 나물과 튀김, 전, 약밥, 잡채 그리고 생선까지 푸짐한 명절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생선 까지 마련한 이유는 명절 음식을 차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다. 만성질환자, 장애인 그리고 독거노인까지 명절 음식이 먹고 싶지만 만들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나누고 풍성한 명절을 기원하기 위해서다.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은 "명품녀 봉사는 미소원 창립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변함없이 진행해왔다"며 "명절은 맞았지만 가족이 없어 평소보다 더욱 외로워지는 이웃들을 위해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절 음식을 만들기 위해 찾는 봉사자들은 명절 증후군이 웬 말이냐며 미소지었다. 오랜 봉사 기간으로 가족들이

명절에는 품절되는 그녀들
명절마다 푸짐한 음식 지어
독거어르신 · 장애인에 전달
합동 차례와 윷놀이도 즐겨

이해해줄 뿐 아니라 미리 집안 음식을 준비해둬 가정에도 소홀하지 않기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은(64) 前팀장은 "미리 집에서 필요한 제사 음식을 마련해두고 온다"며 "평소에도 반찬 봉사를 하고 있지만 명절은 더 특별해서 의미가 남다르다. 그리고 사실 도반들과 함께해 보다 즐겁고 스트레스 같은 건 느낄 일이 없다"고 했다.

정인하(63) 팀장은 "가족 같은 도반들과 함께해서인지 명절이라는 스트레스보다는 도리어 즐거움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낸다"며 "홀로 계신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을 하니 더 보람차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미소원 '명품녀'들이 공양간에 명절 음식을 지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명품녀의 명절맞이 반찬 봉사는 며칠 전부터 장보기에 이어 재료 다듬기까지 포함해 당일 오전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진다. 총 50여 명을 위한 음식이다. 허리 펼 시간도 없을 정도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즐겁다는 대답이 대부분이다.

미소원은 설날 당일에는 독거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초대해 조상 위패를 모시고 합동 차례도 함께 지낸다. 아울러 식사 후 덕담을 주고받으며 윷놀이도 진행해 즐거움을 더한다.

합동 차례는 연종학림 주지 청명 스님이 직접 집전해 더욱 특별해지는 차례로, 눈시울이 적시는 사람들도 보인다. 또 차례에 참석하지 못한 가정을 위해서는 음식을 배달해주며 새해 소원 성취와 건강을 기원한다.

장유정 이사장은 "명절에 어울리는 음식이 있다. 명절을 명절답게 보내도록 노력하며 사랑을 전하고 있다"며 "봉사와 나눔으로 함께해 웃음 가득한 시간으로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미소원이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함께 웃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통도사박물관, 상반기 문화강좌

2월 29일까지 모집… 불화 · 단청 등 6개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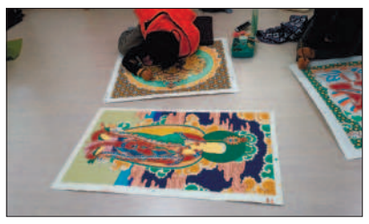
통도사성보박물관이 다채로운 불교 전통문화 강좌를 개설한다.

통도사성보박물관(관장 송천)은 2020년 상반기 전통문화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20일~2월 29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방문 접수와 전화 및 인터넷(www.tongdomuseum.or.kr)으로 가능하다. 개강은 3월 2일이며 교육 기간은 6개월이다.

불화 강의는 조해종 불모가 맡는다. 불화반은 기법과 재료에서 전통불화의 맥을 잇는 불모 양성소로 자리 잡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초실습과 강의를 구성하고, 여러 해를 거치도록 변함없이 회원들이 참여해 전문성을 익힌다. 모집정원은 30명이며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 진행된다.

단청 강의는 홍관식 작가가 담당한다. 단청 강좌는 단청에 담긴 상징세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단청의 기초와 전문과정까지 폭 넓게 진행된다. 또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문화재 수리기술 · 기능자시험 부분에서 매년 합격생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의는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오후 4시이며 모집정원은 30명이다.

서각은 김진희 작가와 서용수 작가가 지도한다. 서각반은 불교 서각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신선함을 안긴다. 김진희 작가는 수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 서용수 작가는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3시에 강의를 진행한다. 모집 정원은 각 20명.


통도사성보박물관 불화반 강의 모습.

전통사경 강의는 오현주 작가가 맡는다. 사경은 손으로 경전을 옮겨 적는 것으로 산란한 마음을 집중하고 고요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효과를 안겨준다. 강의는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에 진행되며 모집 정원은 20명이다.

생활자수는 강남순 바람의 화원 대표가 지도한다. 생활자수 강좌는 우리나라 꽃을 계절에 따라 생활용품에 수놓아 심미적인 기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강의는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이며 모집 정원은 20명이다.

전각은 최두헌 작가가 담당한다. 전각은 단단한 돌에 날카로운 칼끝으로 새겨지는 문자의 유희(遊戱)를 느낄 수 있는 강좌다. 강의는 전서에 대한 이해로 시작해 돌에 새기는 기술을 습득, 돌에 새긴 결과물을 찍어내는 과정까지 이어진다. 강의는 목요일 오후 2시~4시이며 모집정원은 20명이다. (055)384-002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불교 원력 가득한 한 해를"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범어사 찾아 신년하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가 지난해 불교문화대축제의 원력을 이어 올해 팔관회와 연등축제 등 주요 행사를 여법하게 치러내겠다고 다짐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는 1월 23일 범어사를 방문하고 주지 경선 스님과 신년하례를 진행했다. 박수관 회장을 비롯한 회원 10여 명은 먼저 대웅전에서 참배한 후 주지실로 자리를 옮겼다. 설 연휴를 맞아 주지 경선 스님에게 삼배를 올린 후 "2020년에도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수관 회장은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불교문화대축제는 불교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행사였다"며 "올해에도 그 원력과 힘을 모아 연등축제, 팔관회 등 불교 대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임원진과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설날을 맞아 종정예하를 비롯해 어른스님들께 인사를 드렸다. 어른스님들 모두 '불교문화대축제는 부산 불도의 저력을 보여준 행사'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며 "노력을 기울여준 박수관 회장과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올 한 해도 다함께 맑고 밝은 사회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박수관 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1월 20일 부산진구청장실을 방문해 3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유기농 쌀 10kg 910포를 전달했다. 쌀은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장애인, 독거노인,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들에게 회향됐다.

박수관 회장은 "이웃들을 생각하면 턱 없이 부족한 양이라 아쉽다"며 "하지만 이웃이 조금이라도 밝고 따뜻한 설을 맞으시길 발원하며 회원들이 함께 준비하고 모았다.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박수관 회장은 35년 이상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명절에는 쌀 전달뿐 아니라 생활용품, 선풍기, 연탄, 김장, 성금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부산봉사대상 시상을 통해 숨은 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해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0 태화강 정월대보름 대재

2월 8일 태화강 둔치… 세시풍속 · 전통문화 다채

법요식 · 방생 · 강강술래도

정월대보름을 맞아 울산불교가 시민들의 번영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기원하는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를 개최한다.

사단법인 태화문화진흥원(이사장 산옹)은 2월 8일 오후 3시 태화강 둔치(구, 태화호텔 앞)에서 '2020년 태화강 정월대보름대재'를 봉행한다. 이번 정월대보름 법회는 관내 사찰과 신도, 시민 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을 초청해 진행된다.

정월대보름 법회는 매년 경주시 양남에서 개최돼 왔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태화강 둔치서 울산시민의 번영을 위한 수륙대재(국가무형문화재 제125호)로 진행된다. 행사는 법요식, 태화강 생명살리기 방생, 태화강 강강술래 시연, 달집태우기, 용왕재, 공양물 헌공과 먹거리 나눔 등 다채롭게 마련된다.


지난해 태화강 정월대보름 대재.

특히 태화강 생명살리기 물고기 방생은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이후 처음 실시돼 그 의미를 더하며, 전통방식의 강강술래 시연은 울산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 참여한다.

태화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나쁜 액을 없애고 풍요와 건강을 기원했던 우리 고유의 정월대보름 민속놀이와 풍속을 경험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52)226-3318

성낙두 경남지사장

2020년
삼선불학승가대학원
제 4 기 신입생 모집

1. 모집요강
① 모집인원 : 개방형(통학)○○명
② 지원자격 : 구족계를 수지한 대한불교조계종 비구니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타 종단 소속 비구니
③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원 소정양식), 수행이력서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기본교육기관 졸업증명서, 사진(3×4)2매
④ 모집일정
◦ 접수기간 : 2020년 2월 29(토)까지
◦ 전형방법 : 서류심사(조계종소속)및
면접(타 종단 소속)전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마길 40, 삼선포교원)
◦ 합격자발표 : 추후 개별통보
◦ 등록금 : ◆1학기당 70만원
◆재수강(본원졸업생에 한함) : 30만원
◦ 예비소집 : 2020년 3월 4일(수) 오후 2시
◦ 입학 및 개강일시 : 2020년 3월 11일(수) 오후 2시
◦ 문의 : Tel. 02)923-0582 / Fax. 02)929-1870

2. 특전
① 졸업 후 3급 승가고시 응시에 필요한 교육경력 2년 인정
② 장학제도 : 전 학인 2년에 총 2회 수업료 전액 지급
③ 청강제도 : 본원 졸업생 중 재수강 희망자에 한함

3. 교육과정(2년 4학기)
■ 과 목 : 1학년 1학기 아함경 I , 도서, 구사론
2학기 아함경 II , 유식30송, 금강경
2학년 1학기 한국선전, 불교미술, 중론
2학기 기신론, 육조단경, 법화경
■ 수업일정 : 2020년 1학기(3월 11일 ~ 6월 24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8시

삼선불학승가대학원장 연담 묘순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20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응시자격
▷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 (음악, 무용과) 등 일반인
▷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 전형일정 : 2020년 2월 10일 (월) ~ 2월 27일 (목)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시 우선 선발.

▷ 신입 및 수료과정

모 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 일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조현성 스님	월	30명
2학년 [상주권공 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김태호 스님	수	편입생 약간명
3학년 [각배]	각배과정	조인각 스님	목	
4학년 [영산]	영산과정	이기봉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

입 · 학 · 문 · 의 www.okchunbud.kr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02)392-3234 Fax (02)392-3239
국가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보디야나선원 일요정기법회

‘참 나’ 향한 욕망도 사견

주제 : 순수한 앎, ‘참 나’ 아니다

혜안 스님 보디야나선원장



혜안 스님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통도사 청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국내 선원과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호주 등의 사찰 및 수행처에서 정진했다. 아잔 브람 스님과의 인연으로 호주의 보디냐나사원에서 수행했다. 현재 해운대 청사포에 위치한 보디야나선원(해운대불교명상센터)에서 불교명상을 지도하고 있다. 저서는 〈마음 다루기 수업〉, 역서로 아잔 차 스님의 〈반조, 마음을 비추다1, 2〉와 아잔 브람 스님의 명상지침서인 〈놓아버리기〉가 있다.

명상센터 보디야나선원 선원장 혜안 스님은 1월 12일 일요정기법회 ‘참나에 대한 바른 견해’를 주제로 법문했다. 혜안 스님은 견성성불 및 영원불멸의 참나에 대한 견해는 사견이며 부처님 가르침은 ‘참 나’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 즉 무아를 깨닫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리=하성미 기자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음’ 아는 것

저희가 계속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념처, 마음에 대한 숙고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수행에 대해 참선에 관한 법문도 듣고 책도 보는데요. 흔히 견성성불, 성품을 알아야 한다, 영원불멸한 참 나를 알아야 한다고 많이 듣습니다. 사실 ‘불교적인 깨달음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원래 부처님의 말씀과는 다른 식으로 목표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선 등을 통해 본래면목 혹은 영원불멸한 ‘진아(眞我)’를 알아야 된다고들 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늘날 법회에 나오게 한 그것이 무엇이냐, 차를 마시게 하는 이놈이 누구냐,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듣는 그놈이 무엇이냐,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습하거나 불쾌하거나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하는 그놈이 무엇이냐 하면서 그것을 바로 아는 게 불교의 목적이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내가 죽고 나도 영원히 불멸하는 그것이 참 나인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예처럼 생사윤회를 돌고 돈다. 그 ‘참 나’를 알아야 완전한 자유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 부처님 가르침은 ‘참 나’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불멸한 나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영원불멸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참 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아를 깨닫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숙고, 마음에 대한 숙고, 느낌에 대한 숙고, 마음 대상에 대한 숙고 이 네 가지는 우리의 정신과 물질, 오온입니다. 몸과 마음입니다. 몸과 마음에 실체가 없고 나에게 속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이걸 배웁니다. 사념처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통의 원인인 탐 · 진 · 치가 완전히 소멸되고 집착,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면서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약간 왜곡된 면도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잘못된 견해를 자세하게 설명한 경전이 있습니다.

〈디가 니까야〉인데요, 그 첫 번째 장이 〈범망경〉입니다. 〈범망경〉에는 62가지 사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에 대한 18가지, 미래에 대한 42가지 사견인데요. 이 62가지가 모두 사견이라 밝히는 경전이 〈범망경〉입니다. 다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영원불멸의 나를 인정하는 사견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라고 집착하는 것이, 아무리 고귀하고 아무리 일상의 차원을 넘는 경지라도 무엇이라도 ‘나’라고 집착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사견이라고 분명히 설하십니다. 경전에 명백하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 나’라 여기는 것은 무조건 사견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한, 아라한 또는 예류, 일래, 불환, 아라한이라고도 합니다.

> **불교적 깨달음의 참 본질은**
> **영원 불변한 ‘나’ 찾기 아니다**
> **순수한 ‘앎’도 결국 무상한 것**

그 첫 번째 예류자 혹은 수다원의 경우에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면, 성자의 초입단계 기준은 유신견, 즉 ‘나’가 있다는 관념이 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금치’라 해서 ‘계’와 율에 대한 집착이며 그 다음이 부처님이나 법에 대한 의심이 사라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유신견,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관념이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을 일시적으로 알게 되고 사라지면 수다원과이고 완벽하게 사라지면 아라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첫 번째 예류자가 되기 위해서도 유신견, ‘나’라는 실체의 관념이 깨져야 합니다.

‘doer’와 ‘knower’

그럼 수행 중 ‘나’라고 여기는 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서 ‘행하는 자’와 ‘아는 자’라 표현한, 영어로 하자면 ‘doer’와 ‘knower’에 해당합니다. 오늘 법회에 오셨는데요. 동기를 유발하는 의지, 즉 내 행동이나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의지에 해당하는 것을 doer라 표현하고, 이것을 또 자신이라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법회에 오게 하고, 밥을 먹게 만들고, 공부를 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일으키고, 나의 행동을 일으키는 의지를 ‘참 나’라 여기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알아차림이 강해질 때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볼 때가 있는데 그 때 이것을 ‘참 나’라 여기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좀 더 차원 높은 것인데 knower, 즉 아는 것을 ‘참 나’라 여기는 것입니다. 추우면 추운 줄 알고, 아프면 아픈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그 기능을 ‘나’라 여기는 겁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그쪽으로 계속 추구하다보면 나의 생각과 느낌, 행동을 아는 근본적인 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나’라고 여깁니다. 살아서도 영원한 것이고 죽어서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하는 ‘나’라고 착각합니다. 본래면목이라 착각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리 미세하고 정제된 차원 높은 것이라 해도 ‘나’라고 여긴다면 잘못된 견해입니다.

‘참 나’ 욕망 버려라

저희가 불교 수행자로 출가 입문을 한다는 것은 세속에서는 궁극적인 진리를 알기 힘들다는,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속에서의 좋은 것,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 등이 허망하고 부질없음을 알고 수행자는 그걸 버릴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면서 앞서 말한 것들은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것을 버렸기에 반대로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 죽고 나서도 영원불멸한 ‘참 나’, ‘진아’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진짜로 여기며 우주에서 뛰어난 존재가 되겠구나라며 추구할 목표로 삼습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 이런 내용들이 묘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 대한 집착이 아무리 정제된 것일지라도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비유를 들어 보겠습니다.

똥이 있습니다. 똥이 한 무더기 있다면 냄새가 엄청나겠지요, 하지만 똥이 손톱만큼만 있어도 냄새는 납니다. 냄새 나는 건 같습니다. 밖에 거친 욕망덩어리인 물질이나 명예나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똥 무더기를 보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황금색 같고 윤기도 나고 크기가 작아서 소중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어 보인 것을 취했는데 그것이 욕망이라면 욕망일 뿐입니다. 작은 손톱만한 똥이라도 손에 쥐면 냄새가 납니다. 행하는 자, 의지를 아는 것도 결국은 일반적인 차원보다는 높지만 그것조차도 고통의 원인이요, 크기는 다르지만 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망경〉에서 수십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 ‘찟따’를 마음이라 말했지만 그냥 마음의 차원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 5가지 감각 영역, 안이비설신인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등 5가지 감각 영역을 삼매와 선정을 통해 완전히 벗어나 순수하게 아는 것을 찟따라 합니다.

‘찟따’를 ‘참 나’라 착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무상하며 일시적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는 집착을 깨버리는 것이 사념처 가운데 세 번째인 심념처, 마음에 대한 숙고입니다. 선정을 통해 강력한 알아차림을 계발하면 선정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앎이라는 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에서는 이것을 모래사장에 비유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모래가 쭉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어져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자세히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하나하나의 알갱이로 되어 별개의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앎도 일상에서 보면 항상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참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음 챙김이 강력해 졌을 때는 이것이 일어났다 사라짐일 뿐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이게 일상의 차원에서는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분명한 건 ‘앎’이라는 것,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것, knower라는 자체가 ‘참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면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금방 사라진다 것을 압니다. 아는 것도 조건에 따라 사라집니다.

생각, 감정도 하늘의 날씨처럼, 궂었다 개었다 추웠다 더웠다 하는 날씨 변화처럼 생각이나 감정이 무상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런 앎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순수한 ‘앎’ 조차도 무상합니다. 선정을 통해 5가지 감각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야 실체를 알 수 있는 차원 높은 것이고, 이정도 차원이 되면 다른 종교에서는 성자에 이르는 수준이지만 이 정도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순수한 앎은 무상합니다. 이것도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 앎도 수증기가 모여 구름을 형성하고 조건들이 모여 비가 내리고 여러 조건들에 따라 날씨가 덥기도 하듯이 앎도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아’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차원 높은 위빠사나이며 고차원의 사념처 수행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아’라 여기며 ‘나’라고 여기는 것도, 몸, 느낌, 아는 것, 의지도 ‘나’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지나 순수한 앎도 ‘나’가 아닙니다. 조건하에 존재하는 걸 알면 예류자, 수다원과이고, 항상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걸 자각하면 아라한입니다.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령, 관욕의식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현불 논단

‘관계’에서 ‘행복’ 찾다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의 숙명
좋은 관계가 건강 · 행복 유도
고립감은 뇌기능 저하 초래

유대관계의 질, 고통 완화
의지처가 기억력 유지 도움
초연결 속 고독 시대 맞아
좋은 관계 맺기에 공들이자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것은 본능이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또한 인간의 숙명이다. 인간의 한 생은 수많은 관계들의 축적이다. 따라서 새해의 시작을 관계 관리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하버드대학 성인발달연구소가 무려 75년간 수행한 행복과 건강에 관한 연구의 최종 결론이다. 수 세대에 걸쳐 연구진은 724명을 대상으로 10대 때부터 노년기까지 직업, 가정생활, 건강상태 등 그들의 인생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1938년, 명문 하버드대 2학년생으로 구성된 한 그룹과 보스턴 빈곤지역 출신 10대 그룹을 대상으로 면접, 의료 검진, 부모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변호사, 벽돌공, 인부, 알콜 중독자가 되었는가 하면 대통령도 되었다. 2년마다 설문을 지속했고 면접, 의료기록 확인, 촬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의 삶을 추적하여 기록하였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결과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부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가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연구의 결과로서 이들은 다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한다. 첫째, 사회적 연결과 유대는 유익하지만, 고독은 해롭다는 것이다. 사람은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사회적 연결이 긴밀할수록 더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이들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은 행복감을 덜 느낄 뿐만 아니라, 중년기에 건강이 더 빨리 악화되고, 뇌기능이 일찍 저하되며, 외롭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것이다.

둘째, 친구와 관련하여 그 수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공인된 관계를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바람직하고 따뜻한 관계는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다. 중년기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그들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노년기의 인생을 위해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바람직하고 친밀한 관계가 나이 먹는 고통의 완충제 역할을 해 준다고 말하고 있다.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해준다는 사실이다. 좋은 연결 관계를 가진 80대는 그렇지 않은 동년배들보다 더 건강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가 자신이 힘들 때면 의지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 간다는 것이다.

하버드 연구진은 은퇴 후 가장 행복했던 사람들은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최종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와 명성, 높은 성취를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의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것,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들은 그들이 의지할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계에는 좋은 관계도 있고, 나쁜 관계도 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오히려 불행해지기도 한다. 21세기는 풍요 속 빈곤의 시대, 초연결 속 고독의 시대이다. 관계 맺기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듯한 이 시대에 하버드대학의 연구결과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관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다. 새해를 맞아 좋은 관계 맺기에 공을 들이는 한 해를 설계해보면 어떨까. 어차피 타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인간의 본능이자 숙명이라면 말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걱정 · 근심, 해결능력 없어”

전 인류의 에너지 80%가 쓸데없는 걱정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은 현재 일어난 일, 또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자신을 아직 오지 않는 미래 시간으로 보내 버리는 것입니다. 대다수 인간의 걱정과 고뇌는 현실이 아닌 지나간 과거사와 미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생깁니다. 걱정이란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일어날 일 때문에, 지금 어떤 식으로든 활력이 무디어지고 매사에 의욕을 잃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의 고통도 현재 앓고 있는 병 자체보다는 ‘더 악화되지 않을까 혹시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고통이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속에 번민이 있으면 천재도 그 생명의 불꽃을 태울 수 없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에는 어떠한 명인이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많은 해를 끼친 것 중 하나가 근심 걱정 불안 공포입니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지요. 걱정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자포 자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심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전혀 없습니다.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 먹습니다. 걱정은 미래를 위한 계획과는 다른 것입니다. 장래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혹은 더 알찬 미래에 도움 된다면 그것은 걱정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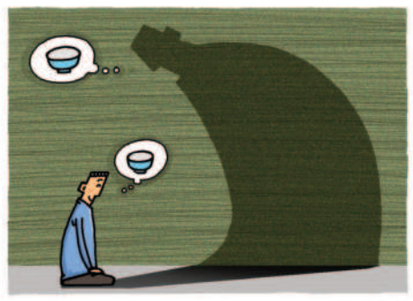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떤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에게 걱정은 커다란 장해가 됩니다. 이 쓸데없는 걱정은 절호의 찬스에 가장 필요한 결단의 용기를 반감시키지요. 걱정하는 나쁜 습관이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아요. 마음의 법칙서 보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은 두려워하던 일을 더 빨리 불러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인생이 언제나 좋은 기회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는데 반해,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인생이 어둡게만 보이는 까닭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한 번에 해치울 수 있는 일도 쓸데없는 걱정으로 능률을 올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걱정을 함으로서 현명한 판단은 흐려지고 마음은 분산돼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우선은 능력의 샘이 흘러나오는 마음의 파이프를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수도가 이물질로 막혀 있으면 능력의 샘물은 제대로 흐를 수가 없지요. 여기서 이물질이란 바로 걱정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걱정하는데 현재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걱정은 자신의 상상력으로 일만 더 악화시킵니다.

걱정은 귀한 현재의 시간과 내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백해무익한 행위입니다. 지나간 과거사를 후회해본들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굳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면 걱정대신 해결법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공동체 ‘協心’, 전염 극복 해답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낮은 치사율에도 높은 전염성으로 우리 사회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어느 누구도 죽음과 병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순 없지만 부처님 일화에서는 이러한 고통 극복의 해결책이 제시된다.

부처님은 재세시 함께 하는 공동체의 협심이야말로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인도에서 주술적 힘에 기대어 무지에 빠져 오히려 병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고자했다. 〈증일아함경〉 역품에는 부처님이 전염병을 창궐한 베살리를 방문해 직접 방역을 하신 일화가 전해진다.

부처님이 마가다국의 수도 라자가하(왕사성)의 죽림정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다. 당시 흉년에 전염병이 돌던 베살리는 하루에도 죽는 이가 수백명을 넘었다. 이 베살리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베살리를 구해달라는 청원을 한다. 부처님은 위험하다는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00명의 제자와 함께 베살리로 향했다. 부처님이 감염을 무릅쓰고 찾은 베살리에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제자들과 발우에 물을 받아 물청소를 한 것이다. 이후 부처님은 게송을 지어 삼보에 귀의하여 마음의 안정을 이끌었다. 남방불교에서는 이후 이러한 내용이 ‘피릿(pirit=paritta)’이라는 일종의 소재(消災)의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부처님이 행한 것은 단순한 방역이 아니다.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동체를 정화하는데 모범을 보이신 것이다. 전염병이 돌 때는 어려운 소외계층이 더욱 피해를 본다고 한다.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이들에 대한 혐오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 가르침인 자비와 공동체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힘을 모아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할 것이다.

사찰음식 세계화, 국내가 밑거름

미국 CIA요리학교와 이탈리아 알마와 함께 세계 3대 요리학교로 꼽히는 프랑스 르꼬르동블루에 한국의 사찰음식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됐다. 본교가 아닌 영국 런던캠퍼스의 일이지만 한국 사찰음식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르꼬르동블루 파리본교에서 특강을 하고, 영국캠퍼스와 지속적인 교류를 거친 덕분에 이뤄진 성과다.

한국의 사찰음식은 오래 전부터 전 세계의 식문화에 화두를 던졌다. 슬로푸드 운동이나 채식 등에만 관심 있는 서구인들은 음식의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기법을 중심으로 가치를 담은 사찰음식에 큰 호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현재 사찰음식 전문가 스님들은 해외 각국의 초청을 받아 강연을 소화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사찰음식의 국내화는 곳곳에서 안타까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분명 사찰음식은 일반인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찰음식체험관은 예약이 가득 차 체험도 쉬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찰음식교육과정을 수료한 스님이 아닌 재가자들은 정작 설 무대가 없어 아쉬워한다. 자격증을 땄으나 쓸 기회가 없는 것이다. 이는 ‘사찰음식은 스님에게 배워야 제대로’라는 대중의 편견에 기인한다. 사찰음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질수록 반대의 그늘은 크게 느껴진다.

전국 교구본사에서 사찰음식체험 기회를 만들거나, 전국적으로 사찰음식전문점이 늘어나야 하는 이유다. 다만 교육을 배운 사람만의 힘으론 불가능한 일이다. 범불교적으로 함께 지혜를 모아 사찰음식 국내화부터 이뤄내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사찰 맞춤형 이동식 전통하우스

전통성 경제성 佛事는 내구성 효율성

시대에 맞는 신소재, 신기술, 신공법으로 무장한 광명이 佛心으로 채워 드립니다.
요사채, 창고, 삼성각, 기도실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보세요.(컨테이너처럼 간편히 설치)
공간이 바뀌면 사찰내 환경이 바뀝니다.

특허제10-1957831호
특허제10-1957826호
디자인등록 제30-0599196호



광명 문의전화 H·P 010-3401-5633 TEL 041)852-5163

제11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학인모집
각단 불공의식 단기속성 6개월 과정

- 교육과정 -
기본의식 6개월 단기
도량석, 종송, 향수하례,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교의식, 관음청, 지장청, 신중청, 시달림, 방생의식, 상용영반, 구병의식
중급과정(범음, 범패 1년과정)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39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화청(개인지도, 천수바라, 도량게작법)
* 작법 : 천수바라, 도량게, 사다라니작법
* 사물 : 북, 태징, 목탁, 요령

무파사 불교대학원에서는 초심자라도 불교정통 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수 있도록 지도해 드립니다.
→ 모집대상 : 스님, 출가예정자, 재가불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 교육원에서 교부) ……1부
반명함사진 ……3매
→ 개강일시 : 2020년 3월 7일(토) 오후2시
→ 수 업 : 매주 토요일 2시 ~ 5시
→ 준 비 물 : 목탁, 요령
→ 주 소 : 대구시 동구 팔공로 28길 73-7
→ 신청문의 : (053)986-1080
H·P 010-9361-5566

대한불교조계종 승가회 불교대학원(학장)



무상 스님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

“바느질 세 뜸, 공덕은 으뜸”

가사 얻으려 가사불사 동참했다
법장 스님 따라 가사 도편수 돼
수십 년간 전국사찰서 가사 지어

가사원서 ‘통일가사’ 제작하지만
사찰 자체 가사불사는 줄어들어
가사 전통도 점차 사라지는 현실

불상 · 불복장보다 중요한 가사
출가사문들이 만드는 법 배워야
“우리 것, 우리가 지켜야 빛난다”

법주사=윤호섭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불교에서 가사(袈裟)는 생명이다. 가사 한 벌과 발우 하나. 태초의 불교도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발(衣鉢)이자 외도들과 구분되는 불교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성보다. 그렇기에 출가사문에게 가사는 곧 계율의 상징이요, 흐트러진 심신을 바로잡는 장군죽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불교 가사의 맥은 더없이 엷다. 가사는 소중하다고 여겼지만 정작 가사를 짓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윤달이 낀 올해, 전국 곳곳의 사찰에서 가사불사가 이뤄져야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가사는 왜 만들어야 할까? 그리고 가사 짓는 일을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전통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1월 28일, 속리산 법주사를 찾아가 조계종단의 사실상 마지막 전통가사 도편수인 무상 스님을 만났다.

승려를 승려로 만들어주는 가사

“부처님 조성하고 복장물 봉안하는 것보다도 가사가 먼저야. 근데 스님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해. 해탈복이다, 청정의다, 복전의다. 온갖 의미는 다 갖다 붙여놓고 자기 손으로는 만들려고 안 하잖어. 별다른 이유가 있겠어?”

무상 스님에게 한국불교에서 가사불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답답한 마음을 풀어내듯 호통 아닌 호통이 쏟아졌다. 가사 짓는 일이 고귀한 일로 인정받지 못하는 조계종 현실에 대한 호소다. 1960년대부터 가사를 만들어온 노스님의 담담한 목소리가 한편으론 체념처럼 다가왔다. 목소리는 높였지만 스님도 이런 현실이 안타까운지 한동안 눈앞의 찻잔에만 눈길을 보냈다.

조계종은 2000년대 초 법계위원회가 꾸려지고 의제실무연구회의를 수년간 실시하며 통일의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스님들의 가사가 통일되지 않아 승복업체 로비 의혹이나 원단 공급에 대한 독점 논란 등이 암암리에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계종은 2006년 삼보륜이 직조된 이른바 ‘통일가사’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조계종은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 가사원을 설립, 구족계 수계산림이나 각종 법계품서식에서 스님들에게 주어지는 가사를 가사원이 도맡아 제작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사를 손수 만드는 스님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재봉기술이 발달하고 많은 인력이 필요치 않아졌기 때문인지, 사찰의 가사불사를 승복업체에 맡긴 것인지, 아니면 가사를 만드는 일 자체에 관심이 떨어진 것인지 명확한 이유는 무상 스님도 알 수 없었다.

“가사 박사는 많어. 사회에서 의상학인가 뭔가 공부한 사람들이 절에 오가며 주워듣고 사진 찍은 걸로 논문을 쓰지 않았으려나. 간혹 양장을 잘하는 분들이 가사 만드는 걸 배워서 하기도 하고. 근데 가사를 수해보면 어딘가 어색한 게 꼭 있거든? 가사는 그 가사를 수하는 사람에게 딱 맞고 편안해야 돼. 그대로가 작품이니까.”

무상 스님은 1960년대 중반, 선방에 방부를 들이며 수행하다가 가사불사에 동참했다. 당시는 가사 한 벌조차 쉬이 구할 수 없던 시기였다. 스님은 대전 심광사의 가사불사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 그때 가사불사의 편수는 1930~40년대 법주사 주지를 역임한 장석상 스님 손상좌인 법장 스님이었다. 법장 스님이 만든 가사를 최고로 여기던 시절이다.

무상 스님은 가사 한 벌을 얻기 위해 법장 스님 옆에서 일손을 거들었다. 많게는 100명이 모여 한쪽에선 천을 재단하고, 다른 쪽에선 바느질을 하고, 누군가는 다리미질을 했다. 편수인 법장 스님은 그 모든 과정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심광사 가사불사를 마치고 무상 스님은 다시 선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안거가 끝날 때마다 법장 스님에게서 가사불사를 같이 하러 가자는 연락이 왔다. 그렇게 무상 스님은 법장 스님을 따라 꾸준히 가사불사에 참여했다.

윤달이 든 어느 해, 통도사와 해인사 삼선암에서 동시에 법장 스님에게 가사불사를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다. 이때 법장 스님은 무상 스님에게 자신이 쓰던 대나무 ‘가사 자’를 건네주며 삼선암의 가사불사를 맡게 했다. 법장의 ‘가사 맥’이 무상에게 이어진 것이다.

헤아릴 수 없는 가사공덕

옛말에 “가사는 바느질 세 뜸만 떠도 복이 된다”고 한다. 무상 스님에게 가사 공덕을 물었다. 스님은 경전 속 금시조 이야기를 들려줬다.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용의 새끼를 잡아먹던 금시조가 있었어. 용들은 금시조한테 자꾸만 새끼를 빼앗기니 속이 타들어갔지. 그래서 용은 부처님을 찾아가 새끼를 빼앗기지 않을 방법을 물어봤어. 그때 부처님이 수행을 열심히 한 스님들 가사를 얻어다가 세치 길이만큼 나눠서 등에 붙이라고 했거든? 용들이 그 말씀을 따라 가사를 붙이니 금시조가 새끼 빼앗으러 왔다가 스님들만 있다며 돌아간 거야. 가사불사가 끝나고 천 조각을 얻어가려는 이유가 여기에서 시작됐지.”

무상 스님은 이런 경전이야기에 이어 자신이 가사불사를 맡아오며 직접 경험한 불자들의 영험담도 들려줬다. 무상 스님에 따르면 스님이 절을 옮겨 다니며 주지를 할 때 어느 부부가 계속 가사불사에 동참했다. 사고로 젊은 아들을 잃은 부부였다. 이들은 산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공덕이 된다는 얘기를 듣고 가사불사에 참여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남편이 꿈자리를 털어놓았다.

“스님, 저는 소원이 꿈에서라도 죽은 제 아들 얼굴 한 번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꿈에 나왔어요. 아들이 말하기를, 엄마 아빠가 가사불사에 시주한 덕에 좋은 곳에 와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소원을 이뤘습니다.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좋다는 얘기에 부인 따라서 가사불사에 동참한 건데 그 덕분에 많은 걸 얻었습니다.”

무상 스님이 굳은 살 깊게 박힌 두 손으로 옛날에 쓰던 가사 자를 꺼내들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가사 자에는 치수를 표시한 한자와 한글, 그리고 까만 경계선들이 적혀 있었다. 지금은 쓸 필요가 없지만, 과거에는 정확한 재단을 위해 수십 개의 자를 들고 다녔다. 스님은 옛 가사는 아니지만 지금의 통일가사를 바닥에 펼쳐놓고 가사 곳곳을 자로 짚었다.

“가사는 조각과 조각이 만나는 조엽이 중요해. 여기서 바느질 한 뜸 어긋나면 전체가 틀어져. 모서리에는 천왕문첩이 들어가고. 하품(9 · 11 · 13조)은 기다란 조각 2개랑 짧은 것 1개가 이어져 1조가 돼. 9조 가사면 총 아홉 줄이 되는 거지. 중품(15 · 17 · 19조) 상품(21 · 23 · 25조)으로 갈수록 긴 것이 하나씩 늘어나고. 옛날에 손으로 가사 하나 만들려면 20일은 족히 걸렸어. 어느 곳에서, 누구와 하더라도 일념으로 만들지 않으면 좋은 가사는 절대 안 나와.”

가사 장인의 손에 세월을 함께한 가사 자가 쥐어지자 방안에 열기가 도는 듯 했다. 지금은 드물게 가사원에 찾아가 후학들을 지도하는 노스님이 됐지만, 혈기왕성한 시절 누구보다 많은 가사를 만들었던 무상 스님 마음속엔 여전히 가사뿐이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문득 ‘가사장’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선장, 누비장, 자수장까지 바느질 관련 무형문화재는 있지만 가사장은 없다. 불화장이나 단청장을 봤을 때 종교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무상 스님의 생각을 물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그게 되겠어? 내가 할 줄 모르면 누군가 인재를 키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법계품서할 때 가사 담아주는 가사봉투에 증명, 편수, 시주자까지 가사불사에 함께한 사람들 이름이 들어 가야해. 근데 편수는 없거든. 가사장은 언감생심이야. 그나마 몇몇 스님들이 전통방식을 이어가려고 노력하니까 다행이지. 나중에 가사 형태만 알고 참뜻은 모르는 일반사람들을 가사 전문가라고 하면 안 되잖어.”

무상 스님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목소리 높여 격한 심정을 토해냈지만, 그것은 결국 가사를 향한 애정이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출가사문이 가사 짓는 일에 관심을 쏟아 전통이 사라지지 않길 바라는 애절함이다.

“우리가 가사를 왜 수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돼. 외도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자신의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거짓말 했잖아.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가사는 출가사문을 출가사문답게 만들어주는 법의(法衣)야. 당연히 가사공덕이를 수밖에 없지. 가사불사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돈을 안 내도 가사 짓는 도량에 와서 일손만 거들어줘도 돼. 가사공덕이 널리 알려지면 가사의 맥도 다시 살아나겠지.”

인터뷰를 마치고 무상 스님은 처소 밖까지 기자를 배웅했다. “신문은 보내주지 않아도 되니 좋은 글이나 써달라”는 스님의 마지막 인사가 모든 불자들에게 공덕 쌓는 계기로 전해지길 바라본다.

무상 스님은…

열네 살 때 속리산에 소풍 왔다가 어느 스님이 가사를 수한 모습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서당에 찾아가 한문을 공부하던 중 원적사 아랫마을에서 금강경 독송을 듣고 서암 스님을 찾아갔다. 서암 스님에게 〈금강경 오가해〉를 들으며 1961년 정월 초삼일에 서당 선생에게 세배 간다고 한 뒤 출가했다.

그렇게 서암 스님 인연으로 동화사에서 월담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63년 3월 15일 사미계를 수계했다. 1965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고 제방선원을 돌면서 안거 수행했다. 현재 속리산 법주사에 주석하면서 조계종 가사원 도편수를 맡고 있다.







1. 가사 자로 가사 부위를 설명하는 무상 스님.
2. 무상 스님이 직접 쓰던 가사 자.
3. 가사의 매듭 ‘연봉’을 가리키는 무상 스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30~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낡은 옷을 벗어라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6	안녕다람살라·달라이라마와함께한다람살라 30여년수행생활을되돌이본다	청전스님	운주사
2	스스로행복하라·법정스님열반10주기특별판	법정스님	샘터	7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출판
3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8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4	스님의 사랑 수업	원빈스님	이층버스	9	너의 그리움이 화두가 되어	청림 지상	맑은소리맑은나라
5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정원규	불광	10	한번 웃으면 하루가 즐겁다	지혜스님	불교시대사

책세상

“명상, 마음과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



아디야샨티의 가장 중요한 것
아디야샨티 지음/이창엽옮김
불광 펴냄/1만 7천원

현명한 영적 스승, 심오한 가르침도
‘중요한 것’을 대신 발견해 줄 수 없다
삶과 수행서 만난 갈등 명쾌한 통찰
“더 이상은 추상적인 삶을 살지 마라”
주옥 같은 문장 속에 숨은 진실한 삶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서구 영성계의 차세대 지도자 아디야샨티. 그는 삶과 영적 여정서 마주치는 숱한 갈등에 대한 지혜로운 길을 제시한다. 오랜 명상과 수행 결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알아차림’ 하며 은혜와 감사, 사랑이 일어나는 경험을 한 그는, 그 순간들을 구술해 녹음했다. 이 책은 ‘은총의 순간(Moments of Grace)’으로 이름 붙인 음성 기록을 묶은 것이다.

그는 ‘매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힘’이 우리 ‘내면’에 이미 갖춰져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힘을 발견하기 위한 통찰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신의 삶과 수행 여정서 일어난 여러 일화를 통해 보여준다. 난독증이 있던 어린 시절과 할아버지의 죽음, 영적 스승과의 진솔한 대화, 종교를 초월한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 명상 수행에서의 갈등과 의문의 해결 등. 그의 개인적 체험은 신비롭게도 내면을 탐구하도록 이끌며,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진실과 연결해 준다. 우리 내면의 세계는 무한히 넓고 깊고 불가해하다. 그러나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통찰력 즉 ‘깨달음’에 이른다면, 태어남, 삶. 죽음의 여정서 마주치는 숱한 절망과 두려움이 은혜로운 순간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존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친절한 스승으로 알려진 아디야샨티. 영성가인 그는 20대 때 읽은 책 한 권이 인연이 되어 선불교 수행을 시작했다. 오랜 명상과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은 이후, 14년 동안 모신 선(禪) 스승에게서 가르침을 펼치라는 요청을 받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서 영적 지도자로 활동중이다. 그의 가르침은 어떤 전통이나 종교,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책은 아디야샨티 자신의 경험서 길어 올린 깊은 성찰을 27개의 장으로 나누고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 가족 이야기, 영적 스승들과의 진솔한 대화, 종교를 초월한 붓다와 예수의 가르침, 명상 수행에서의 갈등과 의문 해결 등을 바탕으로 우리 삶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에 이르는 방법을 명쾌하게 밝힌다.

한편으로 아디야샨티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그것을 줄 수 없다. 어떤 현명한 영적 스승도, 어떤 심오한 가르침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을 대신 발견할 수 없다. …… 정말 진지하게 탐색하고 심각하게 숙고해야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적용하면 인생의 어떤 분야에서든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스스로의 각성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아디야샨티가 들려주는 경험과 사례는 평범해 보인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진리’는 단순하지 않다. 갈등을 겪고 있을 때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은총(grace)’이 찾아온다는 것, 내면 깊숙이 들여다보는 올바른 질문을 찾으라는 것, 삶은 내가 선택한 것으로 이뤄진다는 것, 놀라움이나 슬픔과 미지(未知)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 우주와 나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명상은 자신의 내면을 ‘듣는’ 기술이라는 것 등등. 우리가 태어남-삶-죽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탐구하고, 궁극에는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진리란 무엇인지 힌트를 준다.

더불어 우리가 삶과 수행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오해, 의문에 대해 명쾌하게 답한다. 특히 맹목적으로 따라 했던 명상의 문제점을 지목한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대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고 여기고, 생각을 없애는 데 몰두한다. 이 경우 고요해지려는 ‘욕구’와 활발히 움직이는 마음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 명상은 실패하고 만다. 저자는 명상이란 마음이나 생각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듯,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깨달음 이후에 어째서 ‘나’는 달라지지 않는지, 명상할 때의 고요와 평온을 평소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는지 등 영적 구도의 과정에서 겪는 의문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한다.

“내면의 고요한 자리로 들어가라. 내면의 고요한 공간을 신뢰하라. 바로 그곳이 궁극적인 존재의 경전이기 때문이다.”

명상 지도자이자 심리학자인 타라 브랙은 이 책의 추천사에서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거의 모든 페이지에 있는 지혜로운 보석 같은 글귀에 밑줄을 치고 싶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항상 형광펜을 가지고 읽는다’ ‘방금 책을 다 읽었고, 다시 읽을 준비가 되었다’ ‘매일 아침 조금씩 읽는다’는 아마존닷컴 서평도 눈에 띈다.

그만큼 이 책의 문장과 단어에 담긴 은유적 표현은 여러 번 새길수록 더 풍부한 의미로 다가온다. 현학적이거나 고차원적이란 뜻이 아니다. 문장마다 저자의 깊은 수행과 통찰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진실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편안하게 이끌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에세이이면서 법문(法問)이기도 하다. 열린 마음으로 저자의 경험담과 이를 통해 깨닫게 된 가르침들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존재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은 곧 내 삶과 내가 속한 세계를 바꿀 것이다.

“깨달음이나 깨어남이나 신을 향한 진정한 본능은 일종의 불만족에서 비롯된다. 더 이상 추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려 하고, 더 이상 슬픔의 세계에 끊임없이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 하고, 자기가 믿는 것을 경험하는 대신 풍부하고 깊은 존재를 경험하려는 소망에 주목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충동이다.”

▲저자 **아디야샨티**는?

미국서 태어난 영적 스승으로, 모든 존재들이 깨어나도록 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 그는 멈추어서 진실한 것을 탐구하고 알아차리며, 모든 존재의 중심에서 자유로워지라고 열린 마음으로 권한다. 14년 동안 선(禪) 스승이었던 분에게서 가르침을 펼치라는 요청을 받은 1996년부터 전통이나 이데올로기에 구애받지 않는 가르침을 펼친다. 그는 “내가 가리키는 ‘진리’는 어떤 종교적 관점, 신앙 체계, 교리에도 한정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저서로는 〈공의 춤〉 〈깨어남에서 깨달음까지〉 〈아디야샨티의 참된 명상〉 〈해탈의 길〉 등이 있다.

『대승기신론』과 『해동소』의 정수를 온전히 풀어놓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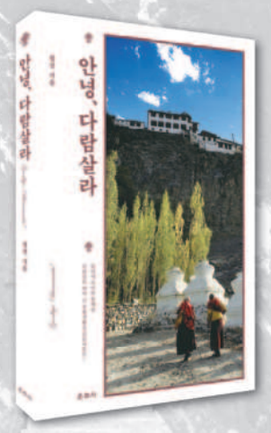
대승기신론 해동소 혈맥기 1~3

대승불교의 교과서 『대승기신론』과 그 주석서로 인도와 중국을 뒤흔든 원효의 『소별기』!

기존 해설서들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쉽고도 가슴에 쏙쏙 들어오는 해설!

공파 스님 역해/신국판 양장/각권 400여쪽/각권 20,000원

30년 동안 다람살라에 머물며, 스승 달라이 라마를 모시고
수행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청전스님이 풀어놓는 이야기들!



안녕, 다람살라

달라이 라마를 직접 모시지 않았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일화들!

어린아이처럼 순진무구하고 티없이 맑은 노스님들의 이야기!

오로지 부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민중들의 소박하고 감동적인 모습들!

청전 지음/국판 무선/200쪽/값 1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필적 담긴 송광사 가풍과 역사

송광사 성보박물관
'송광사의 필적기행' 展
2월 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전라남도순천군조계산송광사성수전상량문 기판(1903년).

상량문 기판은 고종 연간 한성부판윤, 홍문관제학,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궁내부특진관을 지낸 이순익(1827~)이 쓰고, 내각 총리대신, 대광보국숭록대부, 법규교정소 총재를 지낸 운용선(尹容善 1829~?)이 찬했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송광사의 가풍과 역사를 담은 필적들이 전시된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 2월 6일(개막식 오전 9시 30분)부터 12월 27일까지 특별전 '송광사의 필적기행' 을 개최한다.

"성상께서 51세를 맞이한 경사에 마침내 대중들이 삼축(三祝)하는 마음으로 저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성수(聖壽)라고 이름을 지었다. 가까이로는 고운사의 전례를 끌어다 향을 피우고 마음을 재계하며, 멀리는 맥구인(麥邱人)의 정성을 본받아 장수를 바라며 머리를 조아리니, 이는 그 생성함육(生成涵育)이 사사로움이 없는 상천(上天)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며 백성들과 함께 소원한 것이다."

위는 송광사 성수전 건립 상량문의 내용 중 일부다. 성수전은 고종황제의 성수 망육(51세)을 맞아 임금이 이름을 지어서 편액을 내린 황실기도처였다.

상량문 기판은 고종 연간 한성부판윤, 홍문관제학, 이조판서, 판의금부사, 궁내부특진관을 지낸 이순익(1827~)이 쓰고, 내각 총리대신, 대광보국숭록대부, 법규교정소 총재를 지낸 운용선(尹容善 1829~?)이 찬했다.

이번 특별전은 송광사 경내에 걸려있던 현판과 시판, 기판, 주련, 금석문 등을 전시하고 그 내용과 유래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현판 · 시판 · 금석문 · 주련 · 불화
암막새 · 청동그릇 · 동전 등 유물도
〈송광사의 필적기행〉 책 함께 출간

또한 현재 각 건물에 걸려있는 현판류 등을 제외한 박물관 소장품과 관련된 불화 및 기타 유물도 선보인다.

또한 송광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와 함께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송광사의 현판류와 실제 건물에 걸려 있어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던 시판 등에 대한 해제와 번역 등을 담은 〈송광사의 필적기행〉을 출간했다. 이 책은 그동안 어려운 한문이나 초서체로 쓰여진 현판, 시판은 물론 경내 곳곳의 바위에 새겨진 인명(人名)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인문학적으로도 풍부한 자료를 담은 책은 송광사 경내는 물론 산내 암자를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종합적인 해설서 역할도 한다.

전시는 도입부에 '십리 벚꽃 길을 끼고 돌아서' 라는 주제로 송광사 산문부터 일주문까지에 남아 있는 현판, 금석문 등을 풍경사진과 함께 소개한다. 이후 '그대여 헛되이 고개 돌리어 가지 말라-경내 주요 전각' 과 '암자로 가는 길-여기 오면 어느 누가 한가한 이 아니 되랴' 에서는 우화각, 사천왕문, 대웅보전, 영산전, 설법전, 국사전 등 경내 중심부와 화엄전구역과 부도암, 감로암, 천자암 등 산내 암자의 현판, 주련, 시판과 '불조전 53불도' 등이 공개된다.

전시되는 주요 유물로는 조선 후기의 문관으로 이조참의, 충청도관찰사, 대제학,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역임한 연천 홍석주(1744~1842)가 1828년 지은 '연천옹유산록(淵泉翁遊山錄)' 기판, 1938년 염재 송태회가 지은 '송광사 내외팔경' 시판, 1750년 완화 처해(玩華 處解) 스님이 쓴 '침계루에서 짓다(근차판상원운 謹次板上元韻)' , 1903년 연안 이순익이 쓴 '성수전상량문(聖壽殿上樑文)' 등 현판류와 보물 제1043호 송광사 16국사 진영 중 제1세 보조국사, 보물 제1367호 송광사 응진전 16나한도, 보물 제1914호 천지명양수륙잡문 목판, 보물 제1909호 대방광불화엄경소 목판 등이 전시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선 조선 광무 4년(1900)에 다시 쓴 '칠전간당론(七殿看堂論)' 과 13가지 절목(節目)' 기판(記板)도 전시된다. 이 '칠전간당론' 기판은 조선후기 선원 청규로 안거기간과 해제는 물론 평상시 사찰에서 지켜야할 예절과 덕목 등을 자세히 밝혀놓은 것으로, 이를 통해 보조국사 이후 당시까지 전해온 송광사의 선풍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산내암자 보조암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명문 암막새, 청동 그릇, 조선시대 동전 등의 유물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061)755-0107.

TV 보는 부처님, 백남준의 부처님

'학고재 소장품 21.2세기' 展
학고재갤러리 1월 22일~4월 5일
백남준을 화두로 'TV 부처' 등
영상, 회화, 조각 등 26점 전시

학고재갤러리는 1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종로구 신관에서 '학고재 소장품 21.2세기' 展을 개최한다.

'미래는 지금이다' 는 문장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는 학고재갤러리가 21.2세기에서 바라보는 미술의 '미래와 지금' 으로, 어제에 살며 오늘의 시간을 끌어다 썼던 백남준을 화두로 정성화, 김현식, 정현, 안토니 곰리 등 국내외 작가의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백남준 作, TV 부처, 1974-1989, 청동 조각, TV 모니터, 폐쇄 회로 카메라.

전시는 백남준의 'TV 부처' 등 회화, 조각, 영상, 드로잉, 콜라주,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인다.

백남준의 '로봇(라디오 맨, 요셉 보이스, 1987)' 이 전시의 시작을 연다. 백남준의 오랜 벗 요셉 보이스(1921~1986)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제작된 작품이다. 보이스가 즐겨 쓰던 펠트 모자가 상징적이다. 로봇의 상단 모니터는 '굿모닝 미스터 오웰,1984' , 하단 모니터는 '바이바이 키플링(1865~1936, 인도)' 을 재생한다. 백남준이 '우주 오페라 3부작' 이라고 불렀던 연작 중 두 점이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디스토피아에 천진한 안녕을 고하고, 동양과 서양은 회합할 수 없다던 러디어드 키플링에게 위성 연결한 세계로 회답하고 세기말의 로봇이 오늘을 응시한다.

단색화의 거장 정성화는 반복의 미학을 담고 있는 '무제 A' 에서 철저한 계산과 수행적 행위로 가득 찬 듯 비어 있는 한국의 여백을 구현한다. 반복의 미학은 동시대 작가 김현식으로 이어진다.

안토니 곰리의 '커패시터, 2008' 은 2001년부터 제작한 동명의 조각에 대한 드로잉이다. 원작은 스스로의 몸을 본뜬 틀에 수천 개의 금속막대를 이어 붙인 조각이다. 안토니 곰리는 신체를 주물로 뜨는 과정을 정신수련에 비유한다. 수없이 뻗은 막대의 반경은 신체와 자아의 확장을 암시한다.

전시의 시작이었던 백남준이 전시를 마무리한다. 백남준의 'TV 부처' 가 전시를 마무리한다. 백남준의 자화상 같은 작품이다. 백남준은 1974년 독일 쾰른 시립미술관에서 직접 법의를 입고 TV 앞에 앉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불상이 모니터와 폐쇄회로 카메라를 마주본다. 실시간으로 녹화한 영상이 모니터에 송출된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에서 착안한 작품이다. 깨달음의 상징인 부처가 모니터 속 자신의 환영을 응시한다. 가까이 다가서면 우리의 모습도 화면에 함께 떠오른다. 미디어 매체가 범람하는 문명시대, 진실에 대한 성찰을 고무하는 작품이다. 21세기의 두 번째 장을 넘기는 오늘에서 26점의 예술작품은 내일을 향해 가는 인류에게, 낯선 날들을 향해 가는 인류에게 말한다. "미래는 분명 지금이다"고. (02)39-4937. 박재완 기자

국립경주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오는 1월 29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을 진행한다. 음악, 가족, 문학' 세 가지 테마로 영화상영, 가족연극, 북 토크 등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1월부터 4월은 '음악' 을 테마로 '위플래쉬' 등의 영화와 연극 '평강공주와 온달바보' 를 공연한다. 5월부터 8월은 '가족' 을 테마로 '코코', '언더독' 등의 영화를 상영하고 '그림책 함께 보기' 를 주제로 북 토크가 진행된다. 9월부터 12월은 '문학' 을 테마로 '줄무늬 파자마를 입은 소년' 등의 영화 상영과 '시 이야기' 를 주제로 북 토크가 진행된다. 1월 29일은 데이미언 셔젤 감독의 영화 '위플래쉬' 를 국립경주박물관 강당에서 16시부터 상영한다. 박재완 기자

출강 및 통신 2020학년도 29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9년의 전통과 법사 양성 기술 축적을 자랑과 긍지로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품수를 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입니다.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20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현재 강의중 접수가능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

美 베트남 사원 불교식 설맞이

텍사스주 다오 탐 사원, 각종 공연과 법회

미국 텍사스주의 베트남 사찰에서 설맞이 축제가 열렸다. 베트남 이민 불자들은 다오 탐(Dao Tam) 사원에 모여 이틀간 음력 설을 축하했다. 1월 26일 텍사스주 지역매체 '헤럴드 제이퉁'은 베트남 불자의 설 축제를 특별 보도했다.

텍사즈주 뉴브라운펄스에 있는 다오 탐(Dao Tam) 사원은 베트남 이민자들이 세운 베트남 불교 사찰이다. 다오 탐 사원은 1월 24일부터 이틀간 음력설을 기념하는 축제를 봉행했다. 신년맞이 행사를 총괄한 담당자 타이라이 응우옌 씨는 "2020년은 쥐의 해로 부지런함과 검약을 상징한다"고 사찰을 찾은 미국인들에게 설명했다.

응우옌 씨는 "베트남 문화에서 쥐의 해에는 쥐에 대해 나쁘게 말하거나 쥐를 잡는 것을 피하라고 말한다. 당장 나 역시 자택의 온실에서 열대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쥐가 온실에 나타나 키우는 식물에 해를 끼쳤다. 그러나 쥐의 해이기 때문에 쥐를 잡지 않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다오 탐 사원의 신도들은 사찰을 찾은 미국인들과 다른 이민자들을 위해 베트남 전통 용춤과 사자춤을 공연했다. 생동감 넘치는 공연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다. 곧 부처님전에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 법문을 청해 듣는 법회가 진행됐다.



Dao Tam 불교 사원에서 중국 신년 축제에 사자춤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출처=뉴브라운펄스헤럴드

많은 베트남 이민 불자들은 과일과 물을 불단에 공양 올리고 새해의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했다. 공양을 안내한 다오 탐 사원의 비구니 스님은 공양을 올린 사람들에게 초를 나누어주고서 "가난한 여인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동전 두 닢으로 부처님께 등을 올렸고, 그 등은 다른 이들의 등보다 더욱 밝게 오래 빛났다는 '빈녀일등'의 고사가 불경에 있다. 비록 작은 공양일지라도 정성을 다하면 큰 가피가 있을 것"이라고 짧은 법문을 이었다.

다오탐 사원의 신도 히엔 씨는 "예불을 드리고 부처님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법문을 통해 새해에 기억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돈은 모두에게 나눠 줄 수는 없지만 선행은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다"고 다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모래만다라' 미국서 선보인다

망명 티베트 스님들, 코랄 스프링스 미술관서

티베트 불교의 예술이 미국에서 펼쳐진다. 1월 23일 미국의 '코럴 스프링즈 토크', '프리뉴스 와이어' 등의 매체들은 플로리다주 코럴 스프링스 미술관에서 열릴 티베트 불교 예술전을 예고했다.

코랄 스프링스 미술관 관장 줄리아 앤드류스는 "해당 행사와 전시는 동 미술관에서 진행된 바 있었다. 그러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다시 한 번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앤드류스 관장은 "데풍 고망사원의 스님들과 함께 티베트 불교문화와 가르침을 다시 배우게 되어 영광"이라고 기쁨을 표했다.

미술관에서는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남인도의 망명 티베트 사원인 데풍 고망사원 (Drepung Gomang Monastery)의 스님들을 초청해 전통적인 티베트 불교예술과 가르침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 행사의 주요한 전시는 미세한 모래로 조성되는 모래만다라다. 스님들은 7일간 관세음보살 만다라를 조성한다. 미술관 측은 "일반적인 문화체험을 위해 조성되는 모래만다라와 달리 이번 만다라는 티베트 불교의 전통 조성의궤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님들은 행사 첫날 만다라를 세울 전시실을 정화하는 의식을 진행하고 매일 만다라의 문을 열고 닫는 의식을 통해 만다라를 조성한다. 완성된 만다라는 전시 마지막 날 해체돼 미술관 인근의 수로에 뿌려진다. 앤드류스 관장은 "티베트 불교에선 만다라의 모래가 뿌려진 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평화와 자비, 지혜의 축복이 넘친다고 말한다. 이번 행사로 지역사회에 불교가 가르치는 평화와 자비의 메시지와 그 축복이 전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금은 고망사원에서 수행 중인 2,000여명 스님들을 위한 불사금으로 회향될 예정이다.

김민재 객원기자

지역경제 살리는 스님 달리기

日 구온지 유지 스님, 트레이닝 러닝 대회 개최

박영빈 객원기자

지역사회와 사찰의 부흥을 위해 달리는 스님이 있어 화제다. 1월 21일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스님이 주축이 되어 매년 열리는 트레이닝 러닝 대회를 집중 보도했다.

일본 야마나시현에 소재한 일련종(日蓮宗)의 총본산 구온지(久遠寺)와 성지인 시치멘산(七面山). 특히 구온지는 13세기 말 일련종을 창시한 니치렌(日蓮) 스님의 묘소가 있어 연중 참배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두 성지가 자리 잡은 미노부쵸(町)는 1980년대부터 인구가 감소, 현재 지역이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 도시로 분류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온지의 산내 사찰 중 한 곳인 '타케이보(武井坊)'의 주지 코마츠 유지(44) 스님은 미노부쵸를 되살릴 부흥책을 마련했다. 유지 스님은 "1980년대, 마을의 인구가 감소함과 동시에 구온지에 순례를 오는 전국의 신자들이 줄기 시작했다. 일본 전국에서 유명한 미노부산이 있는 마을이 사라진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라며 부흥책을 마련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유지 스님이 마련한 부흥책은 트레이닝 러닝 대회. '미노부산(身延山) · 시치멘산 수행달리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대회는 벌써 7회를 맞이했다. 트레이닝 러닝이란 산악에 마련된 코스를 달리는 운동을 말한다.

유지 스님은 "옛 중세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순례자들이 미노부산과 시치멘산 사이를 달리며 순례하는 것이 유행이었다. 또 일련종으로는 드물게 산악수행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이 시치멘산"이라며 옛 전통을 현대식으로 복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회를 고안한 유지 스님 자신도 트레이닝 러닝 애호가다. 대회를 처음 개최하면서 홍보를 위해 미노부산에서 도쿄의 대본산 혼몬지(本門寺)까지 160㎞를 완주한 경력도 가지고 있다.

인구 · 참배객 감소 위기 도시
상황 타기 위해 스님이 나서
명산 중심으로 '수행 달리기'
참가자 몰리며 지역경제 살아

대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자연을 즐기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장소들이 코스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지난해 개최된 제7회 대회에는 일본 각지에서 8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지난해 12월에 열린 수행달리기 대회의 모습. 사진출처=대회 공식 페이스북

대회의 코스는 4가지로 모두 불교식 이름을 붙였다. 최장코스인 깨달음 코스(38km)는 미노부산과 시치멘산 간의 길을 3번 왕복하며, 최단 코스인 발심코스(13km)는 한 번만 왕복한다. 이중 깨달음 코스를 3인이 릴레이하는 이체동심(異體同心) 코스는 지난해 시작돼 주목을 받았다. 유지 스님은 "지난 대회까지는 2가지 코스만을 운용했으나, 참가자가 점점 늘면서 코스를 다양하게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대회 참가자와 관람을 위해 방문한 이들 모두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숙소나 사찰이 운영하는 숙소에 묵고, 또 방문을 계기로 구온지나 시치멘산을 참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참가자들의 경우 원활한 경기 참가를 위해 사찰에 묵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 대회가 지역과 사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회가 안정화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준비 중이다. 유지 스님은 "올해는 무농약 농산물에 도전해 사찰에 묵는 숙박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좀 더 지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 열심히 달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번 맛보면 빠져드는 '스님 카레'

일본 스님들 포교 위해서
'갑자기 카레' 이벤트 열어
가격 무료 · SNS공지 운영

스님과 카레. 상상하기 어려운 조합으로 불교를 전하는 스님이 있다. 지난 1월 20일, 일본의 인터넷 매체 '핫 페퍼'는 카레스님으로 유명한 요시다 타케시 스님을 소개했다.

요시다 스님은 비정기적으로 카레를 만들고 누구나 함께 먹을 수 있는 '갑자기 카레'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격은 무료, 예약 필요 없이 개최일도 갑자기 정해져 SNS를 통해 공지된다.

'갑자기 카레'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스님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인 일본에서 크리스마스는 전 사회적으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데 반해 부처님오신날은 너무나 조용하다"며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이웃과 함께 즐기는 분위기를 만들려 시작한 이벤트가 첫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만든 카레를 보이는 요시다 스님. 사진출처=핫페퍼

요시다 스님은 "비구스님 다섯이서 적당히 카레를 만들다보니 엄청난 양이 됐다. 이웃들은 물론 길을 가던 행인들에게 '절에서 만든 카레를 먹어보지 않겠냐'며 권유한 것이 사람들의 호응을 얻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요시다 스님은 "왜 하필 카레였냐"는 질문에 "나 스스로도 카레를 좋아하지만, 당시에 만들기 쉬운 음식을 생각하다보니 가볍게 생각해낸 것이 카레였다"며 웃어보였다. 스님은 "카레와 불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국적이 인도라는 것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각자의 맛으로 변화해 각 가정에 스며든다는 점"이라며 "불교에 '반드시 이것'이라는 것이 없는 것처럼 카레도 평등한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님은 SNS 활동도 열심이다. '갑자기 카레'의 공지가 SNS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카레 스님'이라고 이름붙인 요시다 스님의 트위터 계정은 9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유지하고 있다. 이벤트 공지 이외에도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재밌고 가볍게 풀어낸 게시물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요시다 스님은 "스님이어서 알 수 있는 지금의 불교, 일상과 카레를 소개하다보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SNS 활동과 카레를 통해 사람들이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카레라는 음식은 많이 만든다고 해서 힘든 음식도 아니고, 각각의 재료를 나누지 않고 한데 모아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두 한데 모여 인연이 맺어지는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겠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신간
한국의 민중의술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예수재, 조선 중기 칠칠재 형식 설행”

이종수 순천대 교수 ‘불교학연구’서 주장

고려末 수륙재, 칠칠재로 정착
조선 왕실도 국행수륙재 봉행
차츰 폐지되며 예수재 등장해
조선 중기 칠칠재로 설행 · 전래
“韓불교만의 독창 의식” 의미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18년 서울 봉은사에서 설행된 생전예수재의 모습. 현재 봉은사는 생전예수재를 무형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 중이다.

생전예수재는 불교에서 행하는 천도의식 중 하나다. 49재와 수륙재는 망자와 무주고혼을 위한 불교 의식이지만 생전예수재는 산 사람을 위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그간 생전예수재는 고려시대 설행된 것으로 추정돼 왔지만, 조선 중기 이후 칠칠재 형태로 설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수 순천대 사학과 교수는 〈불교학연구〉제61호에 게재한 논문 ‘조선시대 생전예수재의 설행과 의미’에서 생전예수재의 성립시기와 개념을 재검토하고 불교사적 의미를 조명했다.

우선 이 교수는 문헌들을 통해 수륙재 정착과 생전예수재의 분화를 분석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고려시대 수륙재와 관련해 가장 이른 기록은 최승로가 성종에게 건의한 ‘시무 28조’의 2번째 조항에서 광종대의 지나친 불사를 비판하며 이를 축소하고 수륙재를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지금의 칠칠재 형식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진정국사 천책이 남긴 ‘수륙재소’에 보면 세 번에 걸쳐 설행했다고 한다”며 “당시 수륙재의 방법과 절차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경전에 의거해 거행했음으로 최사겸이 가져왔다고 하는 〈수륙의문〉에 따라 설행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이 시작된 수륙재는 공민왕비 노국공주가 사망한 뒤 나옹혜근이 국행수륙재를 주관할 정도로 왕실의 상례로 정착될 정도로 성행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며 국가적 불교행사는 차츰 폐지되거나 축소됐지만 수륙재는 〈경국대전〉에 면세전으로서 ‘국행수륙전’이 인정되며 계속 설행됐다.

조선시대 왕실의 수륙재는 무주고혼을 위한 천도재이자 망자를 위한 제례로서 봉행됐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폐지됐다. 다만 민간에서는 기양의례(祈禳儀禮)로서 수륙재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설행됐다.

이 교수는 왕실의례로서의 수륙재가 폐지되는 시기에 예수재라는 명칭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고려시대에 이미 〈불설예수시왕생칠경〉이 전래 · 간행됐지만 명종대 이전까지 예수재가 독립적으로 설행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허응보우가 청평사에서 예수재를 설행하고 ‘예수시왕재소’를 남긴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16세기 발행됐던 의식집의 서문 등을 분석하고 예수재가 조선 중기 이후 수륙재에서 분화돼 설행되기 시작했음을 주장했다. 1721년 중흥사에서 간행된 〈천지양명수륙재의범음산보집〉 서문에서 석실명안(1646~1710)은 서문에서 “지리산 승려 지환이 당시 수륙재 의식문을 산삭해 산보집을 편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지환은 당시 유통되던 소례 · 대례 · 예수문 · 지반문 · 자기문 등의 의식문을 산보한 인물이다.

이 교수는 “지환이 수륙재 의식문을 산보하면서 참고한 것 중에 예수재 의식문이 포함됐다. 이는 수륙재와 예수재 의식의 유사성을 의미한다”면서 “수륙재가 고려시대부터 설행됐음을 비춰보면 조선 중기부터 사례가 확인되는 예수재는 수륙재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날 수륙재와 예수재가 칠칠재 형식으로 전승되고 있는 것도 조선시대 수륙재와 예수재 전개 및 분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칠칠재로서 예수재의 설립은 중국 남북조시대에 이미 명맥이 끊어졌던 예수재가 조선에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새롭게 성립됨으로써 조선불교만의 독창적인 의식됐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의 논문은 〈불교학연구〉 제61호 특집 ‘조선시대 불교 심성과 세속적 융합’에 게재된 것으로 최종석 동덕여대 국사학과 교수의 ‘조선 초기 종교 심성의 전환과 불교’와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의 ‘조선 후기 불교와 민간 신앙의 공존 양상’도 함께 수록됐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3월부터 심사해 선정

국가무형 이수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월 28일 밝혔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총 52건으로, 불교 관련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박찬수, 전수교육학교)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임석환)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가 포함됐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 · 문화 기반 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신성민 기자

금정총림 범어사 전각을 망라하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범어사의 전각〉 발간

박물관 신축기념으로 출간
가람배치 · 역사적 가치 소개

금정총림 범어사의 전각들의 역사 · 건축학적 가치를 망라한 도록이 제작 · 발간됐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최근 소장유물도록Ⅱ 〈범어사의 전각〉을 발간했다. 이는 범어사 성보박물관이 새롭게 건립되는 것을 기념해 발간된 것으로 지난 2018년 제작된 〈범어사의 전적〉에 이은 두 번째 도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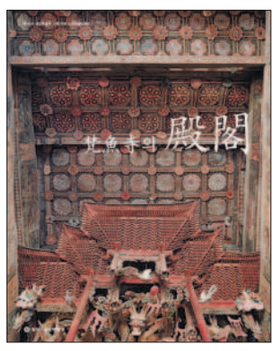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 대부분의 전각이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당시 크게 소실됐다. 이후 많은 조선시대 고승들에 의해 중창됐으며,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쳐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 도록은 범어사 전각들의 역사 · 문화 · 예술적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범어사의 전각〉은 총 6부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부 범어사의 역사’에서는 전해져오는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창건 당시 범어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2부 가람배치’에서는 중창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한 범어사의 가람배치를 담고 있다.

‘제3부 상단의 전각’에서는 상 · 중 · 하단으로 나눠진 범어사의 가람배치에서 상단의 전각인 대웅전, 관음전, 조사전, 팔상독성나한전, 지장전, 산령각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소개한다.

‘제4부 중단의 전각’ 범어사 중단 전각인 미륵전, 비로전, 심검당, 종루, 보제루를, ‘제5부 하단의 전각’에서는 하단의 삼문(三門)인 조계문과 천왕문, 불이문까지 범어사로 들어오기 위한 세 문에 대한 설명한다.

‘제6부 선원과 요사’에서는 범어사 역대 고승들이 지내 온 선원과 요사인 원응방 · 청풍당 · 안심료 · 함흥당 · 해행당 · 침계료를 소개하고 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사찰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공간으로 종교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쉼 없이 방문하는 곳”이라며 “이번 도록에서는 사찰이라는 공간과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 등 방대한 이야기들을 소개하고자 했다”고 도록 발간 의미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한문아카데미 1학기 연수생 모집

2월 21일까지 심화 · 기본과정
조계종 스님은 수강료 면제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가 2020년도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한문불전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정별로 매학기 마다 15주 동안 진행되는 강좌로 이뤄진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과목씩 5강좌가 운영되며 10강좌(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일반수강생은 기본과정 강좌 가운데 한 과목 이상 개별 수강이 가능하다.

기본과정은 △〈아함경〉(월, 금천 스님) △〈범어-한문 경전강독〉(화, 원과 스님) △〈논어〉(수, 공근식) △〈구사론〉(목, 박인성) △〈삼국유사〉(금, 박해당) 강의가 이뤄진다. 심화과정은 △〈대승의장〉(월, 박해당) △〈화엄현담〉(화, 선암 스님) △〈불가문집 번역연습〉(수, 성태용) △〈한시특강〉(목, 이상하) △〈선어록〉(금, 문광 스님) 강의로 구성돼 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월 21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2월 22일에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필기고사 전형을 거쳐야 하며 정원은 15명이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수강료가 면제되며,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지원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 홈페이지(abc.dongguk.edu/academy)에서 입학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자기소개서와 대학(원) 재학증명서(혹은 수료증명서)를 이메일(hanmun@dongguk.edu)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회 44기 특설강좌 모집

국립중앙박물관회(회장 신성수)에서는 2020년 44기 박물관 특설강좌 회원을 모집한다.

이번 44기 박물관 특설강좌에서는 화요반과 목요반 각 200명씩 총 400명의 회원을 모집한다. 1년간 인문학의 다양한 주제를 함축적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분야별 최고의 석학 100여 명에게 배울 수 있다.

박물관 특설강좌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7회에 걸쳐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소강당에서 진행된다. (02)2077-9790~3

신성민 기자





조성금의
한국불화 원류를 찾아서

③ 부처님 생애 그린 '팔상도'

인도·중앙아시아엔 '팔상도' 없다



쿠차 키질석굴 제38굴의 열반도. 4~5세기 경 조성됐다. 우리에게 알려진 팔상도와는 도생의 차이가 있다.



고양 흥국사에 있는 '도솔래의상.'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석씨원류〉를 바탕으로 해서 제작됐다.

몇 해 전 강의를 들었던 한 학생이 의욕이 충만한 얼굴로 찾아와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팔상도에 관해서 논문을 쓰려고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나의 대답은 인도와 중앙아시아에는 팔상도가 "없다"였다. 학생의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답이었다.

학생이 돌아가고 난 뒤 수업 내용이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지 못했었나하는 자책과 논문을 쓰면서 어떻게 팔상도의 기본개념도 사전에 조사해 보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팔상도(八相圖)'는 이미 알고 있듯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윤회의 마지막 생의 생애와 업적 중 중요한 여덟 장면을 그린 것으로, 팔상전(八相殿) 또는 영산전(靈山殿)에 봉안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불교의 교주인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된 불경고사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인 본생담(本生譚, Jataka)이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본생도이다. 두 번째가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제자나 신도 등의 전생이야기인 본연(本緣, 산스크리트어 avadāva, 팔리어 apadāna)이다. 세 번째가 석가모니의 생을 다룬 불전(佛傳)이며, 이를 도해한 것이 불전도다.

즉, 팔상도라고 하는 그림은 석가모니께서 카필라성에서 정반왕(淨飯王)의 아들 싯다르타 태자로 태어나시어 열반에 드실 때까지의 많은 일들 중에서 여덟 장면만을 그린 것으로 불전도의 한 부분이다.

인도에서는 이미 기원전 2세기경에 석가모니의 생을 묘사한 불전도가 출생(出生)·성도(成道)·전법륜(轉法輪)·열반(涅槃)의 사상(四相) 혹은 입태(托胎)·출유(出遊)·출가(出家)·항마(降魔)의 네 장면이 스투파의 평두나 탑문 등에 조각되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해당하는 중국 신장성 위구르 자치구의 쿠차(庫車) 키질석굴에는 4~5세기경 그려진 출유·고행·항마·열반장면이 현존한다. 그밖에도 출가·수도·항마·전법륜 등의 장면이 확인되고 있다. 천산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자연환경을 이용해 조영된 수많은 석굴사원들의 후실에 독립적으로 묘사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장면이 불전도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중국의 불전도는 금대(金代)와 원대(元代)의 경우 산서(山西)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명대(明代) 불전도에 큰 영향을 끼친 〈석씨원류(釋氏源流)〉는 영락 20년(1422)에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석씨원류〉는 석가모니의 생애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사의 중요한 고승들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교재로서, 다양한 판화가 삽입되어 있다. 명·청대에 황실과 관련된 숭선사(崇善寺), 구담사(瞿曇寺), 다복사(多福寺) 등의 불전도는 〈석씨원류〉의 영향이 거의 없는 반면에, 민간 화가에 의해 불전도가 그려진 각원사(覺願寺), 융흥사(隆興寺), 극락사(極樂寺) 등의 벽화에서는 〈석씨원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명대의 불전도는 48, 84, 200, 205장면 등 석가모니의 입태 이전부터 열반 후 사건까지의 다양한 장면을 사원 내부 벽면에 장황하게 도해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선에서는 명대에 크게 유행한 〈석씨원류〉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이를 기본으로 1459년에 세조의 명으로 고승 10명과 김수온(金守溫) 등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합하여 엮은 석가모니의 일대기인 〈월인석보(月印釋譜)〉를 편찬하였다. 이후 조선의 불전도는 〈월인석보〉에 수록된 석가모니의 생을 그린 여덟 장면을 모본으로 삼아서 도상이 정형화되었으며, 오늘날 우리가 팔상전이나 영산전에서 접하는 〈팔상도〉로 고착화되었다.

조선 불화의 특징인 〈팔상도〉 여덟 장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솔래의상(兜率來儀相, 도솔천에서 내려오시다)**: 석가가 탄생을 위하여 도솔천을 떠나 흰코끼리를 탄 호명보살의 모습으로 마야부인의 몸에 입태되는 장면이다.

인도 B.C 2세기 '불전도' 조성돼
출생·성도·열반 등 四相 제작
중앙아시아 석굴 열반도 압도적

韓·中 불전도 〈석씨원류〉 영향
中 205장면 등 장황하게 묘사해
〈월인석보〉 韓팔상도 도상 근거

2.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룸비니동산에 태어나시다)**: '비람(毘藍)'이란 룸비니를 거꾸로 음역한 것이다. 마야부인이 산달을 맞아 친정으로 가던 도중 산기가 있어, 룸비니동산에서 오른손으로 무우수가지를 잡고 오른쪽 옆구리로 싯다르타 태자를 출산하는 장면이다.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일곱 발자국을 걸은 이야기, 사천왕이 의복을 바친 이야기, 아홉 마리의 용이 태자를 목욕시킨 이야기 등이 〈월인석보〉의 판화와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3.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생로병사를 알게 되다)**: 태자가 성장하여 성문을 나가 노인과 병자, 죽어 실려 나가는 시체, 승려를 보고 출가를 결심하는 장면이다.

4.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출가를 하다)**: 삶의 무상함을 깨달은 태자가 29세 되던 해에 처자와 왕위를 버리고 성을 뛰어넘어 출가하는 장면이다. 화면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궁인들과 사천왕의 도움으로 성을 넘는 태자, 태자의 출가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설산에서 수도하다)**: 흰 눈이 쌓인 설산에서 석가가 수도하는 장면과 마부 차익이 궁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는 장면, 머리를 자르는 석가, 석가의 결심을 돌릴 수 없음을 알고 슬퍼하는 왕과 태자비의 장면이 표현되어 있다.

6.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마군을 항복시키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선정에 들겠다는 석가에게 마군은 군대를 불러서 위협하고 마왕의 딸을 보내 유혹하기도 한다. 갈등이 심하지만 수행이 자신과의 투쟁임을 깨닫고 용맹정진하여 마침내 마군의 항복을 받고, 대오각성의 경지에 드는 모습이다.

7. **녹야전법상(鹿野轉法相, 녹야원에서 설법하다)**: 대오각성한 석가모니가 그곳에서 500리쯤 떨어진 녹야원 즉, 사르나트(Sarnath)에서 처음으로 다섯 명의 수행자에게 설법하여 그들을 귀의시키는 모습이다. 화면은 적멸도량에서 깨달음을 이룬 직후 노사나불의 모습으로 설법하는 화엄대법과 대중이 깨달음을 이해하지 못하자 화려한 불신을 버리고 고집멸도(苦集滅道)의 네 진리를 설하는 초전법륜으로 구성된다.

8.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열반에 드시다)**: 45년간 수많은 중생들에게 법을 전한 석가는 쿠시나가르(Kusinagar)의 사라수 아래에서 열반에 든다. 석가가 열반에 들자 사라수 두 그루가 서로 머리를 숙여 그늘을 만들었다는 장면, 사부대중이 비탄에 잠겨 석가의 열반을 슬퍼하는 장면, 사리분배, 사리 분쟁 장면 등이 화면을 구성한다.

〈월인석보〉와 현존하는 팔상도를 비교해 본 바와 같이 조선의 불전도 '팔상도'의 도상적인 근거는 〈월인석보〉라 할 수 있다.

한편, 불전도의 도상학적 근거는 수대(隋代)에 도나굴다(闍那崛多)가 한역한 〈불본행집경(佛本行集經)〉이다. 경전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부분은 석가모니가 전생에 깨달음을 구하여 도솔천에 태어났다가 다시 마야부인에 잉태되기까지이다. 두 번째 부분은 석가모니의 탄생부터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출가 후 깨달음에 이르러 처음으로 가르침을 펴는 장면이다. 세 번째 부분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석가모니를 묘사하면서 제자들의 생애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의 불전도는 〈석씨원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유사한 발전 과정을 거쳤으나, 중국의 경우는 고정화되지 않은 다양한 화면구성을 가지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에는 정해진 여덟 장면을 꾸준히 계승해 왔다는 차이점이 있다.

필자는 불교회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늘 세조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말한다. 200여 장면이 넘는 불전도의 장면을 단 여덟 장면으로 줄여 주셨으니, 조선의 불화를 연구하는 우리는 조상님의 덕을 본 것이라 이야기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객원교수〉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인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작지만 큰 '中道 정부' 필요



윤성식의
붓다의 정치학

③ 왜 정부를 필요로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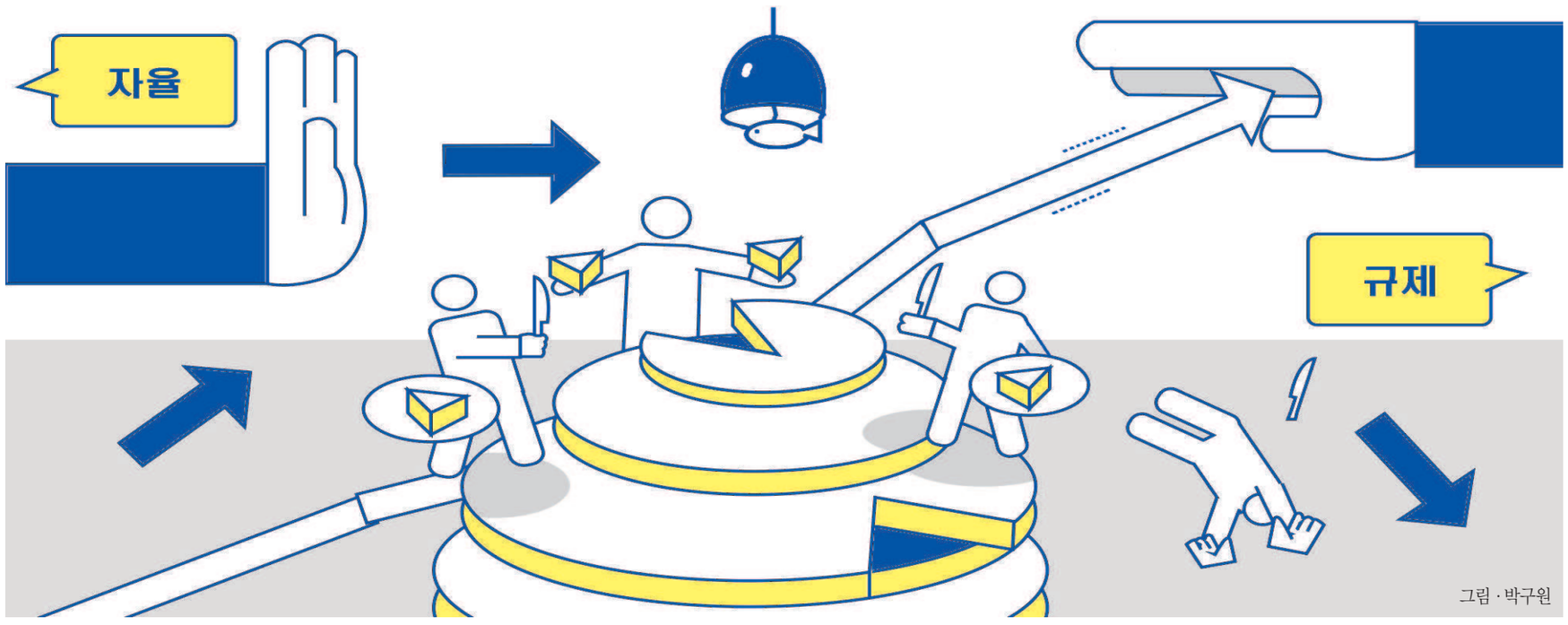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비가 오는 날 수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사물놀이패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꽹과리를 치며 연습을 한다고 가정하자. 교수와 학생이 사물놀이패에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사물놀이패는 비가 오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연습하고 싶어 한다. 서로 원하는 바가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시장에서 해결하는 방법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해결하는 방법부터 먼저 살펴보자.

시장에 맡긴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원하는 것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개 돈을 주고 받는 교환으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 교수와 학생은 조용함을 원한다. 사물놀이패는 연습을 원한다. 만약 교수와 학생이 돈을 거두어 사물놀이패에 주고 조용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하자. 사물놀이패가 돈의 액수에 만족하면 연습을 중단하고 교수와 학생은 조용히 수업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쉽게 거둘 수 있을까? 누구나 돈을 내면 좋은데 어떤 학생은 모금을 거부할 수 있다. 할 수 없이 다른 학생들이 돈을 더 많이 내어 사물놀이패가 원하는 액수를 만들었다고 하자. 사물놀이패가 연습을 중단하면 돈을 낸 학생도 돈을 내지 않은 학생도 조용히 수업 받을 수 있다. 돈을 내지 않은 학생은 조용한 수업에 '무임승차' 하는 셈이다.

다시 어느 비오는 날 이런 일이 반복되었다 하자. 이번에는 돈 내지 않겠다는 학생이 증가할 수 있다. 돈 내지 않고도 조용히 수업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 내지 않겠다는 학생이 증가하면 사물놀이패가 원하는 액수를 만들 수 없고 결국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시장의 자유에 맡겼더니 무임승차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경제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무임승차로 인한 시장의 실패이다. 즉 시장에 맡겨두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에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해서 공공재를 공급한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떻게 시장에 개입할까?

대한민국은 공공의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로 처벌한다. 사인간의 분쟁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하여 수업을 방해하면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미국은 대학 캠퍼스 내에 대학 경찰이 있어 이런 경우 신속하게 출동해서 해결한다. 시장에 맡겨두면 조용한 수업이 불가능하기에 정부가 개입하여 조용한 수업을 보장한다. 이것이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하나의 사례다.

요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온 국민의 불만이 매우 높다. 흔히 언론에 자주 이야기되는 주장은 '시장에 맡겨라' 이다. 시장에 맡긴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시장에 맡긴다는 말은 돈을 주고 받는 거래에 맡긴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다 넓게는 국민의 자유의사에 맡기자는 뜻이다. 서로 각자 알아서 주고 받으며 원하는 것을 갖도록 허용하자는 말이다. 정부가 모든 사항을 규율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낳는다.

영국이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식민지를 개척했을 때 초기 이주민은 정부가 없는 시대를 살았다. 영국 정부가 식민통치를 하기 전에는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었다. 그야 말로 농업, 상업, 목축에 종사하는 자유민들이 자유롭게 살았다. 과연 이들 정착지에 범죄가 있고 살기 힘들었을까? 뜻밖에도 이들은 매우 평화롭게 갈등없이 잘 살았다고 한다. 무정부주의자가 이 사례를 근거로 정부가 필요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보자. 만약 악인 몇 명이 식민지 초기 정착촌에 들어와 횡포를 부린다면 나머지 이주민들이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힘을 합쳐서 이들 악인을 몰아낼까? 어쩌면 초기 정착촌은 워낙 가난했기에 악인이 모여들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공동체는 작은 규모이므로 서로 얼굴을 알고 보편적 규범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왕따 당한다. 따라서 법이 없고 공권력이 없어도 저절로 질서가 유지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공동체가 붕괴되고 안면 몰수하는 행위도 점점 증가한다.

오늘날 도시에 사는 현대인은 몰인정하고 이기적인 각종 행위를 겪으며 산다.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용납되지 않지만 공동체가 파괴된 도시에서는 서슴치 않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 오늘날 법과 정부가 없이 대도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스스로 사이 좋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니 법과 정부가 필요없다며 아득한 과거의 원시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찬성하겠는가.

인간의 다툼은 무엇 때문에 생길까? 이익의 충돌 때문에 생기는데 이익 중에서 재물로 인한 이익이 갈등을 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오래 근무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재산이 많은 노인이 사망하면 거의 대부분 자식 사이에 유산 다툼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란 겪어보아야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돈 문제를 놓고 겪어보면 사람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돈 문제로 겪어봤을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시장 성공이 곧 정부 성공
시장 · 정부 대립인식 배제
'중도'로 상호 보완력 확대

불교는 인간 세상의 초기에는 정부가 없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보고 있다. 경전에 설해진 이상사회는 소유의 개념이 없는 곳이다. 하지만 사유재산 제도로 인한 갈등이 생기면서 무기를 만들고 약탈이 생기며 빈궁이 있었다고 경전은 설한다.

〈장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은 울단왈 사람이 염부제 사람보다 낫다고 말하시면서 '나의 소유라는 것이 없다' 고 설하셨다. 〈장아함경〉은 "각각 밭을 나누고 경계를 달리 해 저와 나가 있음을 계산했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전에는 사유재산이 없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인간의 빈부격차는 원시시대에 토지의 배분을 둘러싼 불평등이 기원이라는 학문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러한 학설은 경전의 설명과 서로 부합한다. 〈장아함경〉은 다음과 같이 설한다.

"전지(田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툼이 생겼다. 이에 백성들은 자기를 방위하기 위해 드디어 칼과 활 따위의 무기를 만들어 서로 해치고 침로하고 약탈하게 되었다. 이 때부터 비로소 빈궁이 있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탄생했다는 경전의 설명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탄생했다는 신고전파 경제학과 맥을 같이 한다. 〈장아함경〉은 사유재산으로 인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탄생하는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제 차라리 한 사람을 세워 주인으로 삼아 이것을 다스리게 해야 하겠다. 보호해야할 자는 보호하고 꾸짖어야할 자는 꾸짖게 하자. 우리가 각각 쓰는 쌀을 줄여 그것을 그에게 대어 주어 모든 송사를 다스리게 하자."

사유재산의 시발점은 시장자본주의 출발을 암시한다. 이상사회에서 소유의 개념이 없이 경제활동을 하다가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다툼이 생겼고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탄생했다는 관점이 불교의 견해이다. 불교가 보는 세계는 연기법에 의해 작동되는 세계다. 수많은 요인과 조건이 어우러져 결과를 낳고 결과는 또 원인이 되고 원인은 또 결과가 된다. 이러한 연기의 세계에서는 요인과 조건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요인과 조건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발생한 결과도 임시일 뿐 수시로 변하니 고정된 것은 하나도 없으므로 공(空)하다. 따라서 수시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정부보다는 자유롭게 변화하기 쉬운 시장이 더 낫다.

우리는 여기서 시장과 정부라는 이분법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비록 편의상 정부와 시장을 구분했지만 연기의 세계에서 모든 사물과 현상은 독자적 실체가 없기에 정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요즘은 정부, 시장, 시민사회라는 세 가지 영역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한다. 정부, 시장, 시민사회는 독자적 실체가 있는게 아니고 서로 연기하여 임시로 존재하므로 정부에 시장과 시민사회의 요소가 있고, 시장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요소가 있으며 시민사회에 정부와 시장의 요소가 있다. 시장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요소를 외면해서도 안되고 외면 할 수도 없고 정부가 개입한다고 해도 시장의 요소를 외면해서도 안되고 외면할 수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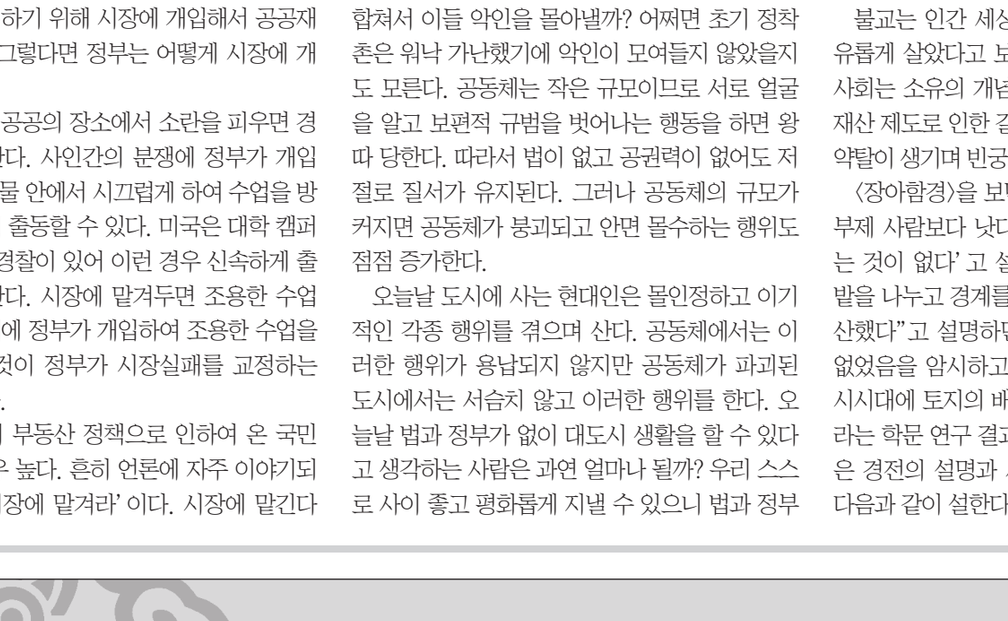
세계경제위기에 하버드 대학생들이 멘큐라는 교수의 경제학 수업을 거부했다. 멘큐의 경제학 교과서는 가장 많이 팔린 교과서이고,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국내 대학 경제학 수업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멘큐는 자유시장경제의 옹호자인데 학생들이 시장의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인한 실패에 분노하여 수업을 거부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우리가 가능하면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을 따른다해도 지나치게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반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지 시장의 자생적 해결역량까지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경전에 설해진 내용을 근거로 보면 불교는 가능하면 모든 일은 시장에게 맡기는게 좋다는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시장이 실패할 경우에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시장도 실패하지만 정부도 실패한다. 국민이 시장실패에 실망하면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큰 정부로 발전한다. 국민이 정부실패에 실망하면 정부가 권한을 내 놓으면서 작은 정부로 회귀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작은정부, 큰정부, 작은정부, 큰정부를 거치며 시계추처럼 변화해왔다. 불교는 큰정부라는 극단도 작은정부라는 극단도 떠나 중도를 지향해야 한다. 그렇다고 중도란 중간규모의 정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규모가 중도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고려대 명예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佛·儒·道’ 회통 근간 이루다



정운 스님의
인물로 읽는 禪이야기
③ 유불도 융합과 宋學

송나라로 접어들어 나라를 통일한 태조는 불교에 관대했다. 그러나 당나라 말기부터 지방 절도사들의 권력이 매우 커져 있는 상태였다. 태조는 지방 절도사와 관리들의 권력을 방지코자 하나로 통일된 문인중심주의 정책을 폈다. 곧 불교도 국가의 권력 안으로 포섭하려는 의도였다. 물론 이런 경우는 송대만이 아니라 중국 역사상에 자주 드러났고, 우리나라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체로 유불 융합을 주장한 때는 불교가 약세에 몰릴 때, 불교와 유교의 차이점을 논하며 불교의 우수성을 밝혔고, 유불의 합일을 주장하며 황제에게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점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원고에서는 유불융합의 시대적 · 공간적 차원에서 살펴보자.

유불을 주장한 선사와 문인들

중국에서 유불도 삼교 합일을 처음으로 주장한 이는 양나라 때 승우(僧祐, 445~518)이다. 그는 〈홍명집(弘明集)〉을 편찬했는데,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이래 남북조시대를 거쳐 양나라 때까지의 유불도 문제를 다룬 책이다. 승우는 서문에서 불교를 비방하는 자들에 격분해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 불교의 유익한 내용을 수집한 것이다.

다음 〈광홍명집〉은 〈홍명집〉의 속편으로 도선(道宣, 569~667)이 편찬했다. 총 30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명집〉에 실지 못한 것을 첨가하였다. 두 책 모두 삼교회통이라기 보다는 호법론(護法論)에 가깝다. 다음 유불융합을 주장한 이는 수나라 때, 천태 지의이다.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는 ‘마음의 약’으로서 세간의 도덕에 관해 “만약 깊이 세간의 도덕을 알면,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였다. 곧 불교의 5계, 5상(五常, 인의예지신), 5행(五行, 목화토금수), 5경(詩經 · 尙書 · 春秋 · 禮記 · 易經)이 대응하며 양자의 교설이 상통함을 주장하였다. 지의는 유교나 오행설을 근본적으로는 불법(佛法)이라고 보았다. 그는 불교실천론을 정립하는데 있어 중국의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며, 불교와 유사점을 찾아 체계화하였다. 지의의 사상을 이어 유불도 융합을 주장한 인물은 당대의 규봉 종밀(圭峰宗密, 780~841)이다.

종밀은 〈원인론(原人論)〉으로 불교 입장에서 유교 · 도교를 회통시켰다. 그는 불교의 심성(心性) 입장에서 유교윤리를 포섭해 종합하려는 시도를 보였다. 종밀이 주장한 유불회통은 한유(韓愈, 768~824)의 사상을 본받았다고 본다. 그런데 한유는 불교를 오랑캐 종족의 사상이라며, 불교를 단호하게 비판했다.이후 송대로 접어들어 최초로 유불융합을 주장한 이는 불일 설숭(佛日契嵩, 1007~1074)이다. 그는 불교 입장에서 유교를 일치시킨 〈보교편(輔教篇)〉을 지었는데, ‘유교의 5상은 불교의 5계 · 10선과 유사하다’ 고 주장하였다. 설숭은 한유의 지나친 배불에 항거해 불교의 존재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주장한 것이다. 설숭과 동 시대 인물인 구양수(歐陽修, 1007~1072)는 유교만이 참된 국가 이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후에 설숭에게 감화를 받아 불교를 옹호했다. 이 구양수는 당송 8대 문장가중 한 사람이다. 어려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4세 때 아버지를 여의고, 붓과 종이를 살 돈이 없어 어머니가 모래 위에 갈대로 글씨를 써서 가르쳤다고 한다. 10세 때 당대 한유의 글을 읽은 것이 문학의 길로 들어선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진사를 시작으로 관료파의 중심인물이 될 만큼 높은 관직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많은 시와 저서를 남김으로서 후대 사람들과 문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구양수는 생전 〈화엄경〉 전권을 다 읽을 만큼 신심이 깊어 ‘육일(六一) 거사’ 라 칭했다.

설숭에 이어 유불융합을 주장한 이는 운문종의 중흥조이자, ‘100칙 송고’ 를 저술한 설두 중현(雪竇重顯, 980~1052)이다. 설숭과 중현은 모두 운문종 승려로서 송나라 초기의 국가 이념인 유교주의를 자신의 이론에 절충한 선사들이다.

삼교합일, 양代 승우가 첫 주장
천태지의 유불 유사점 찾아
뒤이어 종밀이 삼교회통 주창해
유학자들이 선사상 영향 받기도

또 남송대로 접어들어 장상영(張商英, 무진거사, 1043~1121)이 〈호법론護法論〉을 저술했는데, 이 논은 대장경에 입장入藏될 정도로 뛰어났다. 우리나라는 고려 말기, 환암 혼수(1320~1392)가 승준과 만회에게 명하여 장상영의 〈호법론〉을 청룡사본으로 간행하였다.

물론 사상적으로 철학적인 입장에서 삼교일치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시대적인 위기감에서 불교를 보호하는 차원이 더 강했다고 보인다. 우리나라도 유불도 삼교 일치를 주장한 이들이 많다. 삼교일치는 조선시대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함허 득통(1376~1433)은 〈현정론〉을 저술함으로서 삼교일치 사상을 주장했는데, 득통의 삼교융합론은 유가의 배불론을 반격하면서 삼교의 조화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불교를 현정(顯正)시키고 있다. 조선 중기 서산 휴정도 〈삼가귀감〉을 통해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휴정은 삼교가 모두 근원적인 마음을 구명(究明)하고 그것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어 그들이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송대 문치주의와 찬녕의 불교관

앞에서 말한 대로 송나라는 문치주의를 표방했다. 이 무렵, 절강성 항주 태수의 원조와 권력에 힘입어 국사가 된 찬녕(贊寧, 919~1002)은 계율에 정통한 불교 학자로서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시도했다. 곧 율과 유학에도 뛰어났던 인물로 〈승사략(僧史略)〉이나 〈송고승전〉을 저술했다. 그의 저술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선사의 행적을 해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국왕의 권력을 제일’로 하고, 불교를 그 아래에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권력의 도움 없이는 불교가 발전할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송 태조가 수도 상국사에 행차했을 때의 일이다. 황제가 대웅전 앞에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지 않은가 하고 질문했을 때, 찬영은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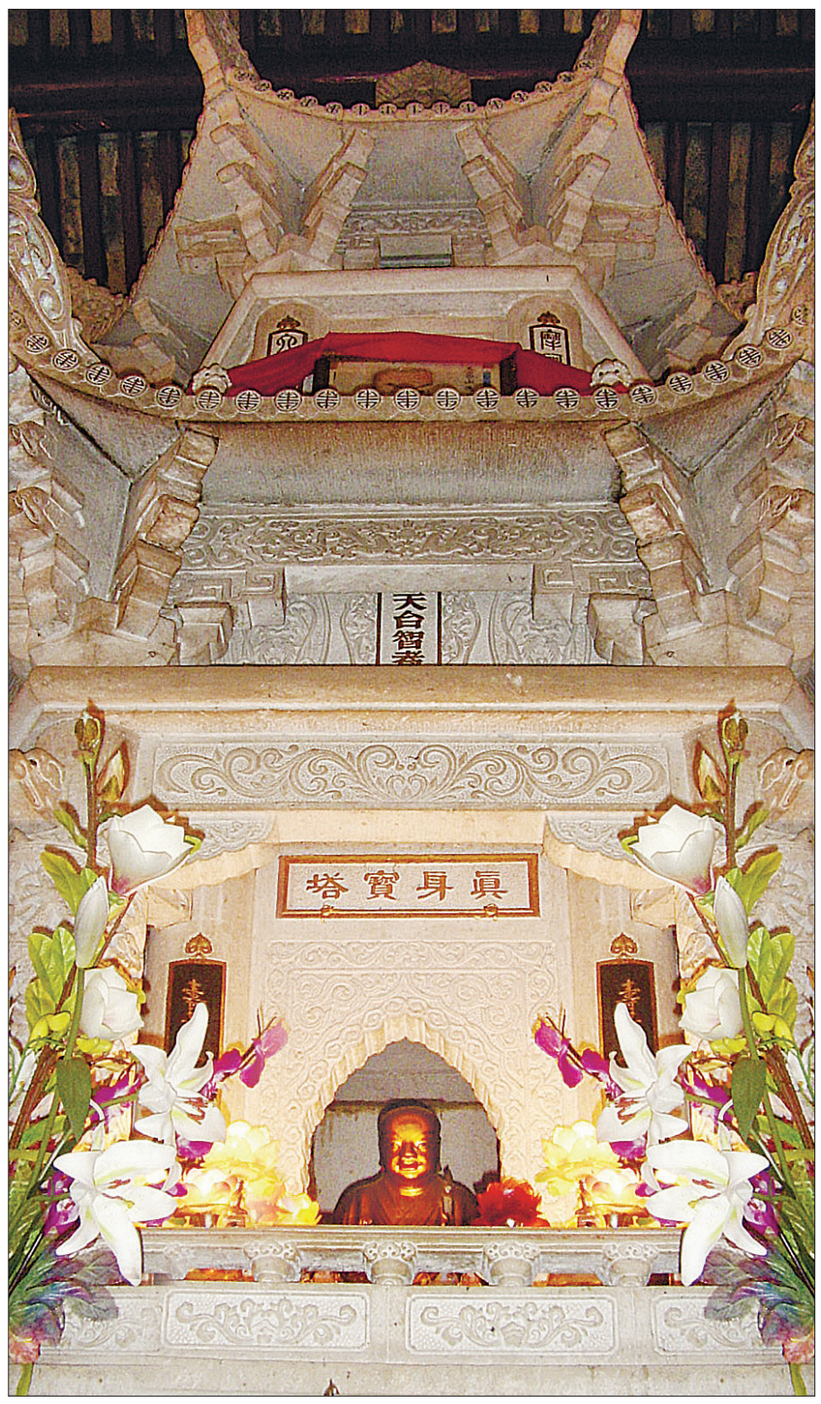
“황제는 부처님께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황제도 신심으로 예배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황제는 우리들의 현 부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상은 과거의 부처님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녕과 다른 승려가 있다.

여산 혜원(廬山, 334~416)은 여산에서 산문 밖을 나오지 않고 30여년을 수행한 승려로서 〈사문불경왕자론(沙門不敬王者論)〉을 저술하였다. ‘승려는 황제에게 예를 하지 않는다’ 는 주장이다. 승려는 삼계도사요, 사생자부가 되기 위한 출가자로서 세속 왕에 비견될 수 없을 만큼 수승한 경지의 소유자임을 의미한다. 두 분을 비교코자 언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승려가 재빠르게 시대에 순응하기 보다는 굴하지 않는 자존감이 더 돋보인다.



삼교회통을 주장했던 천태지의의 진신보탑. 중국 절강성 천태현 천태산 지자탑원에 조성돼 있다.

송학과 선종과의 관계

우리나라 조선은 유교주의 정책을 표방함으로서 불교는 쇠락의 길을 걸었다. 송나라도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불교 말살정책을 펼친 것은 아니다. 송학(宋學)은 불교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불교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 송대 불교는 색깔만 달라졌다고 보면 맞을 듯하다. 곧 당대 선사상의 영향으로 유교의 송학이 발달된 점은 모든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당나라 때의 유학자들도 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철학을 구축했다. 앞 원고에서 당대 한유나 이고(李翺) · 유종원(柳宗元) 등을 언급했다.

한유는 〈오원(五原)〉을 주장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탐구했다. 이고도 〈복성서(復性書)〉를 통해 불교적인 관점에서 유교이론을 저술한 것이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회복, 본심 · 본성으로 돌아가는 반본환원 사상을 주장했다. 당시 한유의 문하생들이 이고의 〈복성서〉를 읽고 이렇게 탄식했다. “아아, 이고도 가고 말았구나(불교로 귀의). 우리 유교도 이제 쇠퇴하겠구나. 통탄할 일이다.” 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당대 유학자들의 사상을 본받아 송대 이후의 문학과 철학에 새로운 경향이 시작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특히 이고(?~844)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이고의 철학에서 송학의 선구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송학은 내용적으로 불교가 개척한 심성(心性)의 사변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송학은 불교의 이름을 칭하지 않는 중국적인 불교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주자의 불교비판과 같은 것은 거기에서 문제 삼고 있는 지식이 거의 모두 선(禪)에 관한 것이다.

일본의 가마다 시게오(鎌田茂雄)은 “중국 사상가들은 불교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사상사에 큰 영향을 남긴 인물은 종밀”이라고 하였다. 즉 종밀이 송학 및 양명학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종밀이 지(知)를 보편적인 원리로 삼은 것처럼, 주자는 이(理)를 종지로 삼았다. 또 종밀은 마조(709~788)의 견성(見性) · 작용(作用)에 대해 비판했는데, 주자는 불교를 비판하는데 종밀 사상을 활용하였다. 종밀은 역설적 의미에서 불교를 비판하는 길잡이 노릇을 한 셈이다. 불교를 하락시키는 주자학의 주춧돌을 종밀이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송대의 몇 유학자들의 사상을 보자.

정명도(1032~1085)는 “인(仁)을 알아야 한다. ‘인’ 이란 혼연물과 동체이다. 천지의 상(常)은 그 마음이 만물에 빠짐없이 미치지만 무심(無心)하다.”고 하였다. 유교의 어구로서 불교의 뜻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주자는 송학과 선과의 차이에 대해 “송학은 마음에 바탕해 이치를 구명하고, 이치에 따라서 사물에 응하려고 하는 것이다. 선학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구하고, 마음으로서 마음을 부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유학자들의 계보를 보면, 한유 · 이고 · 유종원→구양수→정명도 · 정이천→주자 · 육상산이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www.boryeon.com
연등설치 문제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치 – 철거 – 보관 – 유지관리까지 보련기획이 책임집니다.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 중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시공
보관 및 유지관리 대행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계약조건
별도의 공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부처님전 찻잎 갈아 공양한 태조



박동춘의

고려 茶 문화, 그 아름다움

③ 고려 차 문화의 발흥

후삼국으로 분열되어 혼란했던 정치 환경을 극복하고 고려를 건설한 왕건은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고려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고,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민심을 수습하여 국가 안정과 번영을 꾀하고자 했다.

특히 선종은 고려 건국 이후, 왕실의 후원 아래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여 교단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형성은 고려 초기 선종이 불교 교단의 중심 세력으로 부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처럼 불교계가 당면했던 시대 환경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불교의 영향력을 확산시킨 동력이었다. 아울러 차 문화가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차 문화가 어느 시대보다 아름답게 꽃피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교의 흥성에 의한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더구나 왕실의 후원과 사원의 넉넉한 경제력 또한 차 문화가 발전한 요인인데, 이는 송나라와 비견되는 질 높은 차를 생산할 수 있었던 기반이었다. 물론 관료 문인으로 확산된 음다 풍속은 그들의 문예적인 안목이 더해져, 한층 격조 있는 차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문화 토층을 넓힌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차 문화를 형성하는데 필수 요건인 명차와 찻그릇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는 고려색채를 함의한 청자 찻그릇을 독자적으로 완성했고, 고려 자체적으로 명차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괄목할 흔적을 남긴 시대였다.

물론 차 문화의 흥망성쇠에 영향을 미친 변수를 하나둘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불교의 성쇠(盛衰)가 차 문화의 발전과 쇠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차 문화는 정치적인 환경뿐 아니라 풍요로운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차를 애호했던 계층의 안목이 함께 이룩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차 문화를 살펴보면서 간과할 수 없는 관점은 결국 차를 향유하며 문화적인 토양을 풍요롭게 했던 문인의 지적 수준이나 안목이 어느 시대든 차 문화의 문화 수준을 가늠케 하는 잣대라는 점이다.

한편 고려 왕실은 연등회, 팔관회 등을 개최하여 불교를 중심으로, 나라의 응집력을 결집하려 하였다. 이러한 태조의 통치 입장은 943년에 지은 〈훈요십조〉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특히 〈훈요십조〉 1조는 태조의 불교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며, 제6조는 팔관회 연등회 등 불교 행사에 대한 태조의 소망을 드러냈다. 특히 왕실에 주관한 팔관회, 연등회에서 차가 올리는 의례 절차가 있고, 공덕재 같은 국가 의례에서 부처님께 올리는 중요한 공양물이 차였다. 이러한 정황은 〈훈요십조〉 6조에서도 서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주박물관 소장 다연.

고려시대 귀중품 분류된 茶
대규모 불교행사 거행하면서
왕이 직접 차 갈아 공양 올려
후대에는 백성들 원망 야기해

그 여섯 번째, 내가 원하는 바는 연등과 팔관이다. 연등(燃燈)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요, 팔관(八關)은 천령(天靈) 및 명산(名山) · 대천(大川) · 용신(龍神)을 섬기는 것이다. 후세의 간신들이 가감(加減)할 것을 건의하여 아뢰면 금단(禁斷)하라. 나 또한 당초에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팔관과 연등회가 열리는 날에 국기를 범하지 않고 군신이 동락하여 공경히 거행하라.(其六曰, 朕所至願, 在於燃燈八關, 燃燈所以事佛, 八關所以事天靈及五嶽名山大川龍神也. 後世姦臣建白加減者, 切宜禁止. 吾亦當初誓心, 會日不犯國忌, 君臣同樂, 宜當敬依行之)

앞의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태조는 국가의 중요한 불교 행사인 연등회와 팔관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왕과 백관들이 친히 사원에 나아가 이 행사에 참여했다. 태조는 이런 불교 행사를 "내가 원하는 바는 연등과 팔관이다"라고 할 정도였다. 그런데 연등회와 팔관회의 행사 성격은 조금 다르다. 연등회는 부처님을 섬기기 위한 불교 행사였다면, 팔관회는 하늘과 명산, 대천, 용신에게 올리는 의례였다. 특이한 점은 팔관회에는 용, 봉황, 말, 코끼리를 탄 화랑이 등장하고 사선악부(四仙樂部)가 뒤따른다는 것이다. 분명 코끼리는 불교를 상징하는 것이며, 사선은 영랑, 술랑, 남랑, 안상은 선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는 신라의 전통 사상을 잇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립청주박물관 소장 청주 사뇌사지 다마.

물론 팔관회에는 태조의 진전(眞殿)과 역대 국왕을 참배하는 의식도 거행되어, 고려는 불교 행사뿐 아니라 화랑 사상과 제천의식, 조상숭배를 국가적으로 치렀다는 점도 눈에 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국가 행사 규모의 불교 행사로 팔관회, 연등회는 물론 공덕재, 수륙재, 무차회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불교 행사를 거행했는데, 이는 민심을 규합하고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도 국가와 왕실의 권위를 백성에게 드러내기 위한 행사이기도 하였다. 특히 공덕재를 거행하면서 왕이 직접 차를 갈아 부처님께 올렸다. 그 폐단을 지적한 것은 최승로(崔承老 927~989)이다. 그의 〈시무 28조〉 2조에 차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다.

짐짓 듣건대 성상께서 공덕재를 베풀기 위해 혹은 몸소 차를 갈고 차 싹을 연마한다고 하오니 신은 성체가 피로해지심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이 폐단은 광종 때부터 시작된 것이니 남을 헐뜯는 말을 믿고 죄 없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는, 불교의 인과응보설에 미혹되어 죄업을 없애고자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불사를 일으킨 것이 많았습니다.(竊聞聖上 爲功德齋 或親碾茶 或親磨麥 臣愚深惜聖體之勤勞也 此弊始於光宗 崇信讒邪 多殺無辜 惑於浮屠果報之說 欲除罪業 浚民膏血 多作佛事)

〈시무 28조〉는 성종 1(982)년 정광행선관어사상주국(正匡行選官御事上柱國)으로 재직하던 최승로가 올린 상소문이다. 성종 1년 6월에 경관 5품 이상자들에게 시정 득실을 논하는 봉사(封事)를 올리게 했는데 이때 최승로가 〈오조치적평(五朝治績評)〉과 〈시무 28조〉를 올린다. 그의 〈오조치적평(五朝治績評)〉은 바로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의 치적을 평한 글이며, 〈시무 28조〉는 성종이 이루어야 할 정치 개혁을 28조 조목으로 분류하여 최승로의 정치적 입장을 밝힌 상소문이다. 그의 〈시무 28조〉에는 지나친 왕실의 불교 비호나 불교 행사로 인한 폐단을 비판한 내용은 제 2, 4, 6, 8, 10, 16, 18조에서 언급했다. 차와 관련된 것은 앞에 언급한 제 2조의 내용 중에 들어 있는데, 성종이 공덕재를 베풀기 위해 몸소 차를 갈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당시 차는 선진문물이라는 인식이 강했던 귀중품이었다.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하사품이었다. 당시에는 병차(餠茶, 일명 떡차)의 제다법이 더욱 발전되어 단차(團茶)를 생산할 무렵이다. 단차를 만드는 공정은 당대에 만들었던 병차보다 수많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병차는 찻잎을 따서 증기에 찐 후, 찐 찻잎을 절구에 찧어서 틀에 찍어내면 완성되는 것이지만 단차는 찻잎의 크기라든지 차를 만드는 과정이 더욱더 세밀하다.

더구나 한 잔의 차를 얻으려면 차를 분쇄하여 가루로 만들어야 하므로 다마(茶磨, 차 맷돌)나 다연(茶碾)을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섬세하고 고운 가루차를 얻기 위해 왕이 몸소 차를 가는 번거로움을 감수한 것이다. 이런 성종의 심려는 결국 통치에 몰두해야 할 왕의 처신으로는 불합리하다는 것이 최승로의 지적이었다. 물론 왕이 친히 차를 갈아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덕은 왕 자신에겐 소중한 일이겠지만 먼저 국가 대사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군주로서의 덕목을 지적하고 나선 셈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화려해지는 불교 의례가 결국 민폐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닐까.

한편 공덕재를 베풀기 위해 성종이 갈았던 차와 맥(麥)은 어떤 차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차는 맥보다 큰 차 싹으로 만든 것이며, 맥(麥)은 맥아(麥芽)를 의미한다. 바로 맥아는 최고급 차를 만드는 여린 차 싹으로, 모양이 보리알처럼 작디작은 여린 찻잎을 말한다.

차에 타물(他物)을 넣지 않고 순수한 찻잎으로 차를 만든 것은 8세기 이후이다. 바로 육우(陸羽)가 완성한 병차인데, 이는 죽순처럼 생긴 여린 잎, 혹은 일창(一槍)만을 사용하여 만든다. 그런데 맥아는 육우가 말한 "죽순 같은 차(茶之芽者)"보다는 작고 여린 찻잎으로 만든 차이다. 11세기에는 이보다 더 여린 찻잎을 사용하여 용봉단차를 만들었고, 12세기에 이르면 이보다 더 정밀하게 만든 소용봉단과 밀운용(密雲龍) 등이 등장하다가 송 휘종 때 최고급 백차(白茶)가 유행한다. 이는 결국 채다 시점과 제다법이 더욱더 정밀해졌음을 의미하는데, 이런 차는 상대적으로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최고급 차를 만들었던 송대나 고려시대처럼 차 문화가 화려하고 정밀함을 선호했던 시기에는 이런 차를 만들기 위해 백성이 감당할 고통이 컸다. 그러므로 고려 후기에 차 문화는 백성의 원성을 야기한 민폐 중의 하나였다.

고려시대 차는 왕실 귀족이나 수행승, 관료 문인의 전유물로 왕의 하사품이었다. 처음으로 차를 하사한 사례는 신라 경덕왕 19년(760)이다. 당시 두 해가 나타나 열흘 동안 사라지지 않자, 월명스님(月明師)이 도솔가를 지었으니 즉시 괴변이 사라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왕은 월명에게 "품차일습을 하사하고 108 수정 염주를 내렸다(賜品茶一襲 水精念珠百八)"고 하는데, 이는 〈삼국유사〉 〈감통〉에서 확인된다. 고려시대 차를 하사한 예는 〈고려사〉 〈세가, 태조 2〉 에 "태조 14(931)년에… 군민에게 차와 복두를 내리고 승려에게 다향을 각기 차등 두어 내렸다.(太祖十四年…軍民茶幞頭僧尼茶香有差)"라고 한 것에서 확인되는데, 복두는 관모 같은 모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고려 초, 왕은 군민이나 승려에게 차를 하사했던 것이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소리 성명학 최고위 과정
창업반모집

■ 이름으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 이름만 듣고 운명을 말해주면 신비함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는 말소리에 따라 각기 다른 파장의 에너지가 발생 합니다.
우리의 말은 말을 하는 순간 파장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는 같은 소리지만 어떤 소리는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소리는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는 소리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어떤 에너지의 힘 때문입니다.
즉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비판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것과 같은 월리 입니다.
소리파장으로 부르는 이름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작명. 개명. 법명. 호. 회사이름. 상호. 각종번호. 집 주소. 핸드폰번호. 차량번호에 따라
소리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름과 회사명을 개명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만족해합니다.
힘들 때 이름을 바꿔보세요.

부산 접수처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26-16번지 학마을 명상선원.
지하철 : 금련산역 3번출구 간사안내전화 : 010-5155-0918

천안 접수처 천안시 동남구 청수3길 37호 학마을 명상선원.
안내전화 : 010-8634-7851

에너지 파동 성명학회장 도윤 스님

궁극적 깨달음 경지, 無位眞人



지안 스님의 임제록 강설

⑤ 참사람(無位眞人)

임제가 법당에 올라가 말했다.

"벌거벗은 몸뚱어리 위에 틀이 없는 참사람이 있다. 항상 여러분들의 얼굴로 출입하고 있다.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아라."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틀 없는 참사람이오?"

임제가 선상에서 내려와 물은 사람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말해봐. 말해봐."

스님이 머뭇거리자 임제가 멱살을 놓고 밀치며 말했다.

"틀 없는 참사람이 무슨 똥막대기인가?"

그러고는 바로 방장으로 돌아갔다.

틀 없는 사람(無位眞人)은 〈임제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이다. 무위(無位)란 지위, 혹은 차별이 없다는 말인데 무어라 규정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남녀노소, 상하귀천, 범성미오 등 사람의 신분을 무엇이다, 어떻다 말할 수 없다는 말로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를 의인화 한 말이라 할 수 있다. 보통 차별 없는 사람, 지위 없는 사람이라 번역하기도 했으나 '틀 없는 사람'이라 번역해 보았다. 폼(form)이 없다는 뜻이다.

신체적인 모양이나 정신적인 어떤 상태를 틀이라 표현하는 수가 있는데 그런 상태를 꼭 집어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진짜 사람이라 하여 진인(眞人)이라 하였다. 곧 '참사람'이란 말이다. 원래 진인(眞人)이란 말은 장자(莊子)가 쓴 말로 장자의 '대종사(大宗師)' 편에 나온다. 불교에서는 부처나 아라한을 의역할 때 써 오기도 했다.

설법을 하러 법좌에 올라가자 어떤 스님이 나와 절을 했다.

임제가 할(喝)을 했다.

스님이 말했다.

"노스님은 탐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제가 말했다.

"자네가 말해봐라. 어디에 떨어져 있는가?"

스님도 바로 할을 했다.

또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임제가 바로 할을 했더니 스님이 절을 했다.

임제가 말했다.

"자네가 말해봐라. 이 할이 좋은 할인가 좋지 않은 할인가?"

스님이 말했다.

"초적(草賊)이 크게 패했습니다."

임제가 말했다.

"허물이 어디에 있었는가?"

스님이 말했다

"다시 범하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임제가 할을 했다.

임제의 법문은 주로 할(喝)이다. 질문을 받으면 곧잘 할을 한다. '불법의 대의가 무엇이냐?' 고 묻자 할로써 응수한다. 그랬더니 물은 스님이 절을 한다. 버럭 고함을 한 번 질렀더니 절을 한 것이다. 그러자 또 임제가 마치 네가 내 할의 뜻을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묻듯이 이 할이 좋은 할인가 좋지 않은 할인가 하고 묻는다. 물은 스님도 만만찮다. 초적(草賊)이 대패를 했다 한다. 초적이란 좀도둑이다. 법을 훔치려던 도둑이란 말인가? 그런데 임제를 도둑이라 한 건지 물은 자신을 도둑이라 한 건지 알 수가 없다. 뭣 때문에 도둑이라 하는가? 누가 도둑인가? 허물이 어디 있냐고 하니 다시 허물을 찾는다면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일종의 협박성 발언이다. 그 협박성 발언에도 또 할을 한다.

어느 날 양당의 수좌들이 서로 만나 한꺼번에 할을 했다.

어느 스님이 임제에게 물었다.

"주인과 손님이 있습니까?"

임제가 말했다.

"주인과 손님이 분명히 있지."

임제가 말했다.

"대중들, 임제의 '주인과 손님'을 알고 싶은가? 양당에 있는 두 수좌에게 물어들 보게."

그리고는 법좌에서 내려왔다.

두 채의 건물로 나눠진 선방에서 정진하던 수좌들이 만나 동시에 할을 하였다. 이 할을 두고 어느 스님이 주인과 손님이 있느냐고 임제에게 묻는다. 빈주(賓主)란 임제선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사빈주(四賓主)가 있다. 종지를 드러내는 방편적인 수단이 네 가지가 있다는 말이다.

원래 학인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종사를 주인이라 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를 손님이라 하였는데 나중에 선기(禪機)가 익어지면 빈주교참(賓主交參) 혹은 빈주호환(賓主互換)이라 하여 서로의 자리를 자유롭게 바꾼다.

〈조계종 고시원장〉

중생, 보살이 있어야 하는 이유



세상 속 경전읽기

⑤ 바라밀(波羅蜜)과 나룻배

먼지 탄 책꽂이를 눈으로 더듬다가, 책등의 위쪽이 일부 떨어져 나간, 청색조의 양장본 책에 눈이 멈추었다. '~의 沈默'이 눈에 들어온다. '님의 沈默'에서 '님' 글자 부분의 책등 껍질이 떨어져 나간 것이다. 책을 뽑아들고 끝 쪽의 판권장(版權張)을 살피니 '정가 330원'이고, 1950년 초판을 찍어, 1970년에 10판째인 발행본이었다.

대학생 때 자주 들고 다니며 읽은 탓에 모서리들이 많이 헤졌다. '타고르 시선'과 함께 애송하였던 오랜 기억을 떠올리며 책을 펼친다.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 갑니다. /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 갑니다."

한용운 선사의 '나룻배와 行人'이란 시의 전반부이다. '나룻배와 行人'은 바라밀(波羅蜜, Skt. pāramitā)을 시어로 표현한 것이다.

바라밀은 보살 대행(大行, 큰 덕행)을 지칭한 것으로, '모양에 집착한 착한 일(有住相의 善行)'보다는 '집착이 없는 큰 덕행(德行)(無住相의 大行)'을 뜻한다. 바라밀은 능히 자기 스스로 불도(佛道)를 닦고 그 얻은 바에 따라 다시 다른 중생을 교화하는 일이 궁극에 다다른 것이니 '사구경(事究竟)'이라 뜻번역한다.

또 이 덕행에 힘입어, 생사의 고통이 있는 차안(此岸)에서, 번뇌와 고통이 없는 열반의 피안(彼岸)에 도달하므로 '도피안(到彼岸)'이라 뜻번역한다. 이 덕행으로 인해 능히 한없이 넓고도 먼 온갖 세속사(世俗事)에서 중생을 제도하니 '도무극(度無極)' 또는 '도(度)'라 뜻번역하기도 한다.

바라밀은 산스크리트어 pāramitā를 음사(音寫)한 것으로, pāramitā의 어원을 'pāram(to cross over, to save)'으로 보면 '건넨다[도(度)]'가 되고, 어원을 'pārama(supreme, excellent)'로 보면, '무극(無極, 궁극, 최상)'이 되니, '도무극(度無極)'은 '건넨다'는 뜻과 '궁극'의 뜻을 합성한 뜻번역인 셈이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려. /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위에 언급한 시 '나룻배와 行人'의 후반부이다. 중생은 보살을 있게 하는 원천이다. 피안으로 건네줄 중생이 없다면 어찌 보살 대행이 있을 수 있으랴.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바라밀다를 바라밀다라 부르나이까.' '선남자여, 다섯 가지 까닭이 있으니, 첫째, 물들고 집착함[染着]이 없는 까닭이요, 둘째, 돌아보고 생각함[顧戀]이 없는 까닭이요, 셋째, 죄와 허물이 없는 까닭이요, 넷째, 분별이 없는 까닭이요, 다섯째, 바르게 회향하는[正廻向] 까닭이니라.'"

[世尊何因緣故. 波羅蜜多說名波羅蜜多. 佛告觀自在菩薩曰. 善男子. 五因緣故. 一者無染著故. 二者無顧戀故. 三者無罪過故. 四者無分別故. 五者正迴向故.]

〈解深密經 T0676_.16.0705c25-8〉

〈배광식 서울대 치의대학원 명예교수〉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㊶ 이해의 길 31

'언어 한계' 인식한 밀교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불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번쯤 들어봤을 소리다. 이것은 '정구업진언(淨口業眞言)'이라 불리는데, 글자 그대로 입을 깨끗이 하는 진언이다. 주로 경전을 독송할 때 이 주문을 읊조리면서 시작한다. 이런 진언이나 만다라(Mandala) 등을 통해 깨침의 세계를 드러내는 불교가 바로 밀교(密敎)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불교를 비밀스런(密) 가르침(敎)이라고 했을까?

밀교란 비밀불교의 준말인데, 언어나 문자와 같은 형태로 드러내는 현교(顯敎)와 대비되는 말이다. 붓다의 깨침은 언어의 길이 끊어진(言語道斷) 종교적 체험이기 때문에 말로 표현하는 것이 본래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언어를 통하지 않고 이를 전할 방법이 마땅히 있는 것도 아니다. 붓다가 45년 동안 수많은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깨친 진리를 드러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밀교에서는 이러한 언어적 설명 방식이 깨침의 세계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보다는 만다라, 진언과 같은 상징이나 소리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밀교는 대승불교 후기에 해당되는 7세기 중반부터 13세기 사이에 유행한 사상이다. 주요 경전으로는 〈대일경(大日經)〉과 〈금강정경(金剛頂經)〉 등이 있다. 밀교의 수행 방식인 진언은 본래 불교가 태동하기 훨씬 이전부터 인도 사회에서 유행하던 종교 의식이었다. 그들은 병에 걸리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주문을 외우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다. 바라문교의 경전인 〈베다〉나 〈우파니샤드〉 등에는 수많은 주문들이 등장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주술적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붓다는 바라문교의 이러한 방식을 선호하지 않았다. 지나치게 주술적이고 은밀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주술이나 비법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당시 정신문화는 바라문들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붓다는 자신이 깨친 진리를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다. 이러한 불교의 개방성은 당시에는 혁명적이었다. 불교는 눈뜬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직접 볼 수 있는 열린 가르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승불교 후기에 이르러 주술적인 방식이 불교계에도 수용된다. 당시 바라문교는 인도의 토착신앙을 포용하여 힌두교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그리고 기존의 주술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는 그들의 요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대승에서는 교화의 방편으로 진언을 수용하여 불교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에는 당시 주류였던 중관이나 유식이 너무 어려워서 대중들이 접근할 수 없었던 요인도 작용하였다. 그만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신앙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밀교의 진언에는 산속에서 뱀을 만날 때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주술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다. 본래 진언(眞言, Mantra)은 '심성'이란 의미의 '만(man)'과 '파내는 연장'을 뜻하는 '트라(tra)'가 합성된 말이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진언은 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래의 성품을 파내는 도구, 즉 참(眞) 소리(言)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언을 외우면 깨침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밀교에서 주목한 것은 경전에 설해진 가르침이 아니라 붓다의 깨침 그 자체였다. 깨친 눈으로 보면 한 송이 장미와 그 위에 날아든 벌과 나비 등 모든 존재가 법신(法身), 즉 진리 자체라고 한다. 밀교의 주불(主佛)인 대일여래(大日如來)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처다. 우리가 사는 곳은 큰 태양(大日)과 같은 광명이 빛나는 부처들의 공간이자 진리가 현현(顯現)된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밀교에서는 진언이라는 붓으로 한 폭의 아름다운 만다라를 그리고 있는 셈이다. 비밀스럽게 말이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밀교에서 말하는 진짜 비밀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부처라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법당에서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옴 마니 반메 훔' 등의 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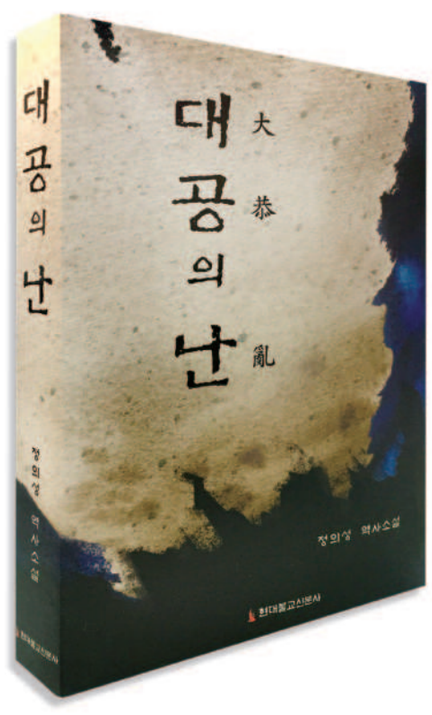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79호 | 17 | 전면광고

명상에서 지혜가 생긴다.
생과 사의 두 길을 알고 지혜가 늘도록
자기 자신을 일깨워라.



부처님 말씀 읽기 -《법구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창원 문수사 공양주,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사찰운영 및
운전가능 하신분

창원시 합포구 교방남4길
95-8 문수사
010-3132-9666

찰라지간에 성불하는 비법안내!!

- 해인삼매를 터득하면 즉신성불한다.
- 믿음은 법신불에 대한 믿음이다.
- 발 보리심은 법신불로부터 받는 것이다.
- 시공을 초월한 신통력자가 된다.

•• 안내서를 보내겠습니다. ••

010-7131-7084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운타이밍재테크**(평생부자)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270-8260

운명학 단기완성

데이터 기반 명리학과
특별한 비법 단기 강의,
스님께 확신이 됩니다

3개월 단기완성 | 수업료 : 5백만원 교육시간 : 주2회(2시간씩)

문의 010-2480-5677
(아는소리 명리학당 총무)

한국불교태고종 지성선원(창원시 성산구)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디자인 명리학 수강생모집

운명을 디자인한다
지금까지 이런강의는 없었다

보다 쉽고 정확하게 간명할 수 있는
신개념의 사주명리학
(기초부터 고급핵심이론까지 1년과정)

여기저기서 배워도 제대로 통변할수 없었는 분들
초보자, 스님, 무속인, 일반인 모두 환영

문의 운명디자인연구소 010-7328-0089

벼락맞은 대추나무 진품(眞品)

부처골 지장선원

010-8585-4908

효보당 108사주 사주비법 완전전수

(포인트"엑기스" 위주로 가장쉽게 짧은시간에 완전 이수되며 섬세하게 한손으로 잡을수 있도록 강의해드림)
-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타고난인생, 인체의병,영가,일년신수,왜! 원인과 해결)
-과거/현재, 미래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스님, 철학인, 법사 등 대상
왕초보 : 22강 진행(속성반 7강 진행)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010-2901-8923

종단기관지 양도

종단 기관지
(신문·잡지)
양도합니다.

010-5412-8040

지장성모님 예불동참

만불사는 지장보살어머니 신행중심
국내의 지장신앙 불자 다문화가족
한국방문시 숙식무료, 관광쇼핑
다문화가족 친정마트 사업지원
가족불 100만원 / 법당불 50만원
탱화별도 1인1불, 저작권 있습니다.

귄佛寺종무실
043-745-3332
충북 영동군 용산면 율리길 155-28

?

특수한 기도비법을 스님께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1-741-0867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입종 동참안내

부처님의정원 · 사암
포교원 · 선원 · 불교문화원
종단 · 단체 · 연합회
입종 동참바랍니다

한국불교 종무청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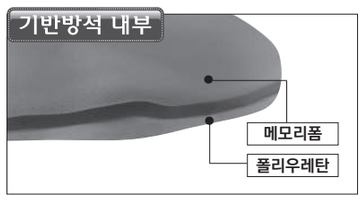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010-5412-8040 법광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비구·비구니스님 종도모집

- 준비서류 : 수계증및 법계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찰전경사진 내외 각2장
- 입종등록신청서(총무원비치)



사단법인 참승조계종 010-5353-3936

공양주
모십니다.

010-4448-3750

수강생 모집(그림)

- 수업 : 산수화, 풍속화, 달마도, 동자승
- 장소 : 서울 인사동 미술 교육관
- 매주 화요일, 수요일 주 2일 [월 8일]
- 수강료 : 월10만원

그림에 소질이 없어도 관심있는 분 이라면 누구나 그릴 수 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청곡 이한동 화백

02)2004-8216
010-3747-8692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79호 | 18 | 전면광고

선지식의 말을 떠나지 마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하여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 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광진불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60평 외
◎ 매가 : 27억 5천

◎ 위치 : 강원도
◎ 부지 : 7000평
◎ 법당 : 30평, 외
◎ 요사 : 60평, 외풍광보장
◎ 매가 : 20억 5천만원정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채권 채무상담 받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4층 건물에 3층, 40평
- 법당, 상담실, 방2, 주방, 화장실, 주차장, 옥상에 창고사용, 도시가스
- 보증금 1500만원 / 월세 50만원 (시설비 협의)

010-8695-653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토굴안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소재 토굴양도
- 법당, 산신각, 요사채 각 1동
- 가액 : 3천8백만원
- 문중땅 도지세 1년 20만원

010-5714-787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원 안내

- 경남 진주시 봉곡동 서부시장 입구
- 5층건물중 3층, 40평, 방2개, 주방, 화장실2개
- 전세2천만, 월세 40만, 시설비1천5백만
- 삼존불(소불104위)에어컨일체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010-8503-576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미로시장 입구
- 2.3층 30평씩 2층법당 3층공양간
- 보증금1천5백 / 월57만
- 시설비 절충

010-8339-5525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김해 선암다리 5분거리
- 토지 : 270여평,법당,요사,종각
- 창건24년,시세평당 350만
- 가액 : 7억5천(은)2억2천포함
- 밀양 초동. 토지 : 1136평. 관리지역
- 가액 : 1억6천 (은)1억5천

010-9906-3631

토굴안내

- 위치: 경북 문경시 농암면 화산리 연엽산자락
- 대지:150평. 전1,050평
- 건물:25평(경량철골구조) 창고:6평, 마을끝 자락 위치. 조경완료.비구니스님최적
- 가액: 1억7천만원

010-3518-395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 부곡시장윗시장상가2층 (약35평)
- 삼존불/후불탱화/신중탱화
- 보증금 2천만 월40만
- 시설비 협의후 결정

010-9430-1356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상남면오산3길 29 ● 대지 175평, 요사 30평(방3,주방, 거실,다용도실,욕실,에어컨,엠프 등 최적의 시설완비) ● 법당 대웅전 15평 (에어컨, 엠프 등 시설완비), 외부화장실(남,여), 창고 5평 ● 수려한 조경과 태양광 설치로 전기세 월 5천원
- 가액 : 2억 5천만원(대출금 1억포함)

010-8947-6370

도심속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앞산밑
- 대지 200평, 법당 40평, 방 2(각방 화장실비치)
- 종무소, 공양간 10평, 실외화장실 남, 여, 시설완벽,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방문후 결정.

010-3422-3232

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석문동길 149-88번지(애당리467)
- 법당1개, 요사채2개 밭5천평, 산2만천평
- 가액 : 5억원
- 아래에 봉화댐 조성중

010-5421-7624

사찰안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남성역 5분거리
- 관악산, 까치산 청정도량
- 재래시장 인근, 이동인구 많음 4층건물 중 2층 3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120만원
- 시설 권리금 없음

010-3657-9590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근교
- 법당 : 50평 ● 요사 : 65평
- 대지 : 5백평 ● 임야 : 4천평
- 가액 : 11억

010-4547-4990

사찰안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2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40평, 산신각 10평
- 가액 : 1억
- 사찰만 양도, 땅은 장기임대(문중땅이라 양도안됨)

010-3323-7000

사찰안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창말5길 28-6
- 사찰대지300평, 법당22평, 삼존목불, 소불108불 ● 요사체 약40평, 종무소8평, 산신각2평 ● 약사여래불4평, 용왕당2평, 실내화장실3곳, 야외화장실2곳 ● 태양광, 태양열2조 ● 가액 : 3억 7천5백만원 ● 은행대출 6천만원

010-8982-4479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금정구 금사시장 옆
- 건물 2층(약30평)
- 삼존불, 호신불 다수
- 보증금 2천만원 / 월 20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8517-2357

도심속 명당 사찰

- 위치 :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 대지 : 216평
- 주택(판넬) : 50평
- 방2, 화장실, 거실, 주방 (주택구조), 조경, 주차완비
- 가액 : 9억 3천만원(절충가)

010-2051-2588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편)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입종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사찰·전원주택지 안내

- 창원역15분, 마금산온천5분거리 ● 총면적 : 20,496㎡ ● 가액 : 11억(대출금5억포함) ● 사찰투자가치 : 35억상당(내곡지구 개발 땅값상승) ● 3억주시면 등기부이전해드립 ● (잔금 전원주택 개발 분양후 완납) ● 10,000㎡ 사찰보존 ● 10,496㎡ 전원주택 개발 분양후 잔금완납요망 ● 사회복지원 및 타용도 변경가능함,사찰앞 4차선 확장공사중

010-9647-0723

사찰안내

- 의정부시 가능역 사거리
- 평수 : 25평(방1)4층
- 보증금 : 1천만원 월세 : 77만(부가세포함)
- 시설비 1천만원(100%완벽 A급)몸만 오시면 됩니다.
- 주차장 완비

010-5497-3885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법당 30평
- 권리금 4천 8백만원
- 월 20만원

010-7289-0059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M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M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M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M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M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M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 달랜 떡국

꿈을이루는사람들, 명절행사 개최

비영리민간단체 꿈을이루는사람들(대표 진오)은 1월 26일 센터 앞마당에서 '2020 설맞이 합동세배와 떡국나눔'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이동하는 한국인에 비해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다문화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꿈을이루는사람들은 합동세배에 이어 덕담 나누기, 세뱃돈 전달, 생필품 지원 등을 통해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다문화 한부모가족 자녀들에게 희망장학금을 전달하고,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는 교복비용을 지원했다.

이 자리서 장세용 구미시장은 "고향을 떠나 한국에 오신 분들이 명절에 쓸쓸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오늘 함께 떡국을 나눠 먹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구미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모두가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행사는 구미시, 구미경찰서, 구미대학교, 구미차병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서부지사, 황금보리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삼성더불어봉사팀, 한돈협회 구미지부, SK실트론 등이 후원했다. 신성민 기자



캄보디아 스카우트 문화교류

청계사, 시엠립 영차영차유치원서

경기권에서 어린이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한 의왕 청계사가 캄보디아에서 스카우트 문화교류를 펼쳤다.

의왕 청계사(주지 성행)는 1월 17~22일 캄보디아 시엠립 영차영차유치원에서 불교스카우트대원들의 해외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문화교류 활동에는 청계사 어린이법회 지도법사 수인 스님을 단장으로 17명의 불교스카우트연맹 소속 학생들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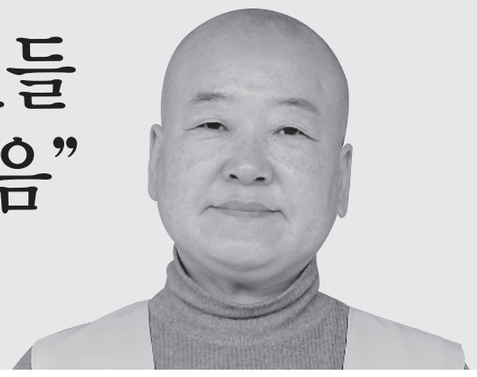
이번 문화교류에서 대원들은 유치원 담장 외벽 그림 그리기 봉사를 비롯해 한국어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캄보디아 불교유적지 견학 등을 진행했다.

단장 수인 스님은 "캄보디아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기 위한 조별 토론을 비롯해 아이들이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외로움 타는 어르신들 봉사활동에 함박웃음"

Interview

'찾아가는 마을밥상' 펼치는 보경 스님



조동제 전북지사장

3년째 이어진 산골 방문봉사
어르신들 호응 점차 높아져
일반 신도 참여도 유도 계획

"저는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신도님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보시금으로 충당하거든요. 신도들의 보시금을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시작한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의 '찾아가는 마을밥상'이 어느덧 3년째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쌍봉사 섬김봉사단(단장 양행금)이 함께 진안군 11개 읍면의 작은 산골을 찾아 어르신들을 위해 소박한 밥상을 차린 마을만 해도 50개가 넘는다. 보경 스님은 1월 30일 쌍봉사에서 찾아가는 마을밥상 활동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스님에 따르면 찾아가는 마을밥상은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라는 작은 발심에서 시작됐다.

"쌍봉사 주지로 부임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를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에 참여하면서 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해드리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거나 농번기로 인해 바빠서 이동에 불편을 겪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보경 스님은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식사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쌀밥에 여러 가지 반찬을 준비했지만, 어르신들이 수제비나 칼국수 같은 간편식을 선호해 요즘은 다슬기 수제비와 팥칼국수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찾아가는 마을밥상이 입소문을 타면서 곳곳의 마을에서 봉사 요청을 받고 있다.

"마을마다 5~6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논밭에서 일하다가 평소 생활하는 경로당, 마을회관서 식사를 하셔서 편하신 것 같아요. 요청이 쇄도해서 올해는 벌써 연말까지 일정이 꽉 찼을 정도죠. 신도들과 상의해서 가능하면 조금 더 행사를 늘려보려 해요."

보경 스님의 봉사 특징은 불교색채가 최대한 배제된다는 점이다. 봉사 대상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고, 신도들과 몸으로 직접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포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다른 시골사찰들이 신도가 줄었다고 하지만 쌍봉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늘 신도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불사나 봉사는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려운 형편에 조금씩 모아서 시주하는 분들이 더 신심 난다고 하거든요? 저는 전달자일 뿐이고 공덕은 모두 신도님들에게 돌아간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보경 스님은 그간 봉사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섬김봉사단' 외에 일반 신도회에도 동참을 권유할 계획이다. 더 많은 불자들이 봉사활동에 동참해 서로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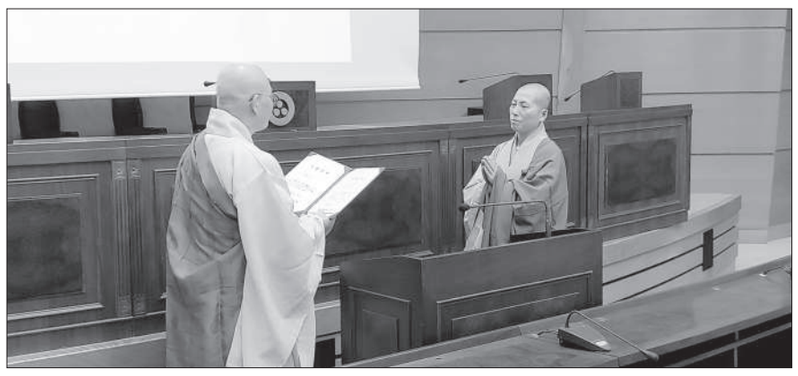
"진안은 워낙 산골이라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누군가 찾아가서 잠시나마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쌍봉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찰에서도 이런 봉사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전법교화 승가결사체 26개 선정

조계종 교육원 인증서 전달
청소년 자살예방 등 눈길
최대 지원 단체는 '안양계'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이 승려의 전법교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제도'에 26개 인증단체가 선정됐다. 2018년 시작된 승가결사체는 첫 해 19개에서 지난해 24개로, 올해 26개 단체로 확대됐다. 올해 활동분야는 △각계각층 대상 강의·설법(10개) △자비보살행(6개) △사회활동(4개) △생활불교 지도활동(6개) 등으로 나뉜다.

교육원은 이들 단체를 위해 총 1억4000만원의 보조금을 단체별로 최고 10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 단체는 여성 청소년 교정교화활동을 펼치는 '안양계'가 선정됐다. 기존 승가결사체 외에 신규로 선정된 단체로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해 모인 '메따위리야'를 비롯해 2000년대생 포교전략을 세우고자 젊은 스님들이 뭉친 '칠불회', 포교불모지 전남에서 대학생 회원 1명을 107명까지 늘린 '마음 쉬는 곳' 등이 기대를 모은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사진 왼쪽)이 생활불교 지도활동 승가결사체인 'EM지구사랑 작은실천'에 인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각 단체에 인증서를 수여하고 "승가결사체는 호스피스, 국제구호, 심리치료, 청소년 교정교화, 환경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과 봉사로 묵묵히 전법교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승가 결계의 의미가 더욱 강해지고, 활발한 전법교화가 이뤄져 한국불교 미래와 우리사회를 환하게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대만학생들 韓문화 체험

대만 남화대, 부산 홍법사 템플스테이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8박9일간 대만 남화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문화교류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대만학생들은 예불과 발우공양, 연꽃 소원지화 만들기, 손수건 천연 염색, 싱잉볼·선차명상 등 다양한 문화를 체험했다. 아울러 인근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를 순례했다.

윤호섭 기자

통일공감 템플스테이

나누며하나되기, 북할이탈청소년 대상



(사)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도웅)는 1월 21~22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울거주 탈북청소년 대상 통일공감 템플스테이를 관문사에서 실시했다. 북한이탈청소년 15명이 참가한 템플스테이는 한국전통문화 체험, 자아정체성 프록램, 미술심리상담, 나를 찾아가는 명상 등이 진행됐다. 윤호섭 기자

우면福, 무료급식 봉사

서초세무서·세정협의회 임직원들과



서울 우면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경희)는 1월 22일 서초세무서와 세정협의회의 후원금 300만원을 받고 각 단체 임직원들과 독거어르신 및 저소득가정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경희 관장은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윤호섭 기자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액)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한달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7시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액)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사절)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2020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2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11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20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20년 3월 10일(화) ~ 9월 1일(화)까지
② 수 강 료 : 약 6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20년 3월 10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최훈동의
마음 사용 설명서

③ 명상 두번째 단계

명상 목적은 '마음의 자유'



3-1 여행하려면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에 이르는 지도와 안내서가 필수이듯이, 내면의 여행도 목표와 명상(선)하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걷기 명상에서 목표 지점과 걷겠다는 의도와 함께 걸음을 떼고 멈추겠다는 의도를 세운 후 멈추고 돌겠다는 의도를 세운 후 서서히 돌고 다시 걷는 것처럼, 명상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진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숙고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의도가 선한지 타인에게 해가 되지는 않은지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명상을 시작하겠다는 의도와 함께 바르게 앉고 어깨와 목을 한껏 위로 치켜세웠다가 탁 놓습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하되 다른 모든 부위에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제 명상을 하고자 하는 목적, 이유를 살펴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자 명상을 하나요?(2분)

3-2 명상을 시작할 때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밖으로(사람, 사물, 일 등) 향하던 주의를 호흡으로 돌려 호흡을 바라봅니다. 이 때 마음이 산만하고 어수선하고 욕망이나 분노에 끄달려 있다면 먼저 심호흡을 몇차례하여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쉴 때마다 몸의 긴장을 풉니다. 그런 다음 보통 호흡으로 내려놓고 호흡을 바라봅니다. 현재 마음이 이렇고 호흡은 이렇구나하고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는 순서로 진행되는군요. 호흡이 거친지 미세한지 빠른지 느린지 무거운지 가벼운지 호흡의 모양을 바라봅니다. 호흡과 마음 상태가 연결되어 있음도 알아차립니다. 마음이 거칠면 호흡도 거칠고 마음이 편안하면 호흡도 고요해지는 걸 느껴봅니다.

3-3 이제 호흡을 코 입구에서 느껴봅니다. 들숨과 날숨의 감각의 차이도 느껴봅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규칙적으로 되면 몸의 감각을 느껴봅니다. 어느 특정 부위에 감각이 뚜렷하면 그 감각을 잠시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특정 감각이 없다면 머리끝부터 발 끝까지 차례차례 감각을 살펴봅니다. 손바닥의 감각도 느껴봅니다. 차가운지 따뜻한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저린지 등 감각을 느껴봅니다. 몸 전체의 감각도 느껴봅니다. 몸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결린지 쑤신지 아픈지 가려운지 등을 느낄 수 있군요. 통증이나 가려움이 있을 경우 자신도 모르게 움직이거나 긁거나 하려는 충동도 알아차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낱낱이 알아차리는 게 마음을 다루는 힘을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3-4 명상이 잘 안된다구요? 혼탁한 마음, 집중이 안 되고 산만하기만 한 마음,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은 온갖 욕망과 분노에 기인하는데, 계행이 바탕이 되어야 바른 명상을 할 수 있다고 붓다는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계율을 설정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 혼탁한 마음을 맑히려면 올바른 언어와 올바른 행동 그리고 잘 집중된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계행인 물 없는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한 바라문이 찾아와 질문합니다.

"세존이신 고따마여, 사람들은 바후까강(갠지스강)이 많은 사람을 해탈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후까 강에서 많은 사람이 악업을 씻습니다."

세존께서 대답하시길

"갠지스강이 무슨 소용인가?
강물은 악업을 저지르는 자를 씻지 못하네
그 잔인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바라문이여, 계행에 참으로 목욕하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인색하지 않으면
갠지스강으로 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인도를 가면 지금도 갠지스강에서 일생 동안 지은 악업을 참회하고 씻어내려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2600년전이나 지금이나 갠지스강이 또는 다른 무엇(단순한 기도나 종교적 신념)이 악업을 정화시켜줄 수는 없지요. 이것을 옷감으로도 비유하셨습니다. 옷감을 물들이는데 때 묻은 옷감에는 염색이 지저분하게 되듯이 먼저 옷감을 잘 세탁한 후에 물들여야 하는 것과 같다하시면서 계행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명상이 잘 안될 때는 자신의 행동이, 현재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게 좋은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내면여행도 목적지 필요
마음상태 직접 바라봐야
속박 벗어난 평화 누리자

3-5 목표와 의도가 바르면 바른 견해라고도 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살인마 앙굴리말라가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어떤 바라문 문파의 수제자였지요. 그는 스승으로부터 천명을 죽여 천개의 손가락뼈로 목걸이를 만들면 도를 깨치고 자신의 후계자로 될 수 있다는 말에 999명의 사람을 죽여 마침내 한 사람만 더 채우면 천개가 되는 상황에서 부처님을 만나 자신의 목표와 의도가 매우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지요. 그는 부처님 밑에서 열심히 정진하여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되고 의도가 선하지 못하면 살인마가 되고 목표 설정이 바르고 의도가 바로 잡히면 성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가르침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 살펴봄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3-6 명상과 심리치료는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보는 내면 여행입니다. 심리치료나 명상이나 모두 자신을 잘 보는 회광반조와 자귀의이지요.

무엇을 위해 자기자신을 보나요?

잠시 눈을 감고 숙고해봅니다.(1분)

자신의 행복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이군요.

호흡을 보고 몸의 감각을 보고 걸음의 움직임을 보는 연습도 모두 마음을 잘 보고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몸과 행동을 좌우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불편한 상황에 처할 때 즉각적 반응의 하나로서 상대를 보고 탓하곤 합니다. 상대를 평가하고 분석하고 비난할 거리를 빠르게 검색하지요. 그렇지 않나요?(웃음)

내가 불편해지고 화가 나는 원인을 밖에서 찾는 것입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상대가(또는 상황이) 자극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응은 자기 자신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직 수긍하기 어렵다구요?(웃음)

금방 방향 선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껏 해오던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 외부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꾸고 조절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외향적이라 합니다. 환경을 바꾸거나 상대방을 바꾸려 해보았지만 성공했나요?

삶을 돌아보셔요(눈을 감고 1~2분).

나는 놔두고 상대를 바꾸려했지만 다툼만 생기고 관계가 뒤틀리고 끊어지기까지 했군요. 환경을 바꿔보았지만 비슷한 사람 비슷한 상황에 부딪치면 같은 결과가 나왔군요. 그 사람이 싫고 미워서 떠나보았지만 또 살다보니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기를 되풀이하였군요.

3-7 그래서 심리치료는 내담자 또는 환자를 상담을 통해 변화시키는 내향적 태도를 취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것은 결국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자각이지요. 문제 해결의 키가 자신에게 있는 것과 외부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외향적(환경적) 치료는 병든 잎새나 가지를 다스리는 수준이고 내향적 자기 각성 자기 변화만이 근본적 뿌리를 다스리는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지요. 고타마 싯다르타가 전륜성왕의 길을 마다 하고 출가 사문의 길을 택한 이유이기도 하구요.

정치로는 인간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자각이었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 명제 추구보다는 내 마음의 불안과 고통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념적 해석은 고통을 해결한다기보다 설명하는 수준이기에 고통이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심리학적 지식 취득마저 외향적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발생했는지 차근차근 짚어 나가는 성찰의 과정이 필요하지요.

지난 시간에 말한 호랑이를 기억하시나요?(웃음)

호랑이에 먹힌다는 것은 호랑이를 연구하고 설명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호랑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고통 속으로 깊이 경험해 들어감을 말합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정보를 얻는 것은 지적 앎(개념지)이지만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하여 일어나는 통찰은 체험적 앎(체험지)입니다. 지적 앎은 책을 통해서도 습득되어지는 간접적 지식이지만 체험을 통한 앎은 직접적 지식입니다. 간접 지식으로는 고통이 이해는 되나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기존의 간접 지식들로 무장된 신념들을 해체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자라면서 살면서 주입된 신념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행동을 숙고하고 멈추는 것입니다. 멈추고 바라보면 습관적 행동이 멈춰집니다. 멈춤-바라봄-멈춤. 마지막 멈춤(止)은 단순한 집중이 아니군요. 고통의 멈춤, 새로운 삶이군요.

3-8 어떤 문제의 해결도 그 문제가 발생한 과정을 낱낱이 보아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듯이 우리가 삶속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들도 그러한 연유의 과정이 있기에 생긴 것임을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숙고명상이지요.

연상을 통해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그 상처가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자각한다면 통찰이 일어납니다. 이 통찰은 현재의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행동 양식을 바꾸고 대인관계의 태도를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무의식화된 카르마(조건)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렇게 지배받고 속박되어 왔음을 명확히 깨달은 후엔 오히려 그런 조건을 활용하되 구속되지 않게 됩니다.

삶을 떠난 깨달음은 없습니다.

깨달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좌절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갈등에서 평온한 삶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자유로워진다 하였습니다.

더 이상 에고를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에너지 소모도 없고 있는 그대로 좋으며 꾸미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살게 되고, 자연과 하나 되고 이 세상 모두와 연결된 소통의 삶이 됩니다.

〈한별정신건강병원장〉

그림 족자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42수진언 족자 (그린)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중의
'못자못자' 확대사진


42수진언 족자 중의
'여의수주 진언' 확대사진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80,000원	
	사찰용 65×145cm 가정용 45×110cm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보라

사회자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의문 났던 점이나 또 평상시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점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관(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일체를 관해야 한다' 고 하는데 일체가 무엇이며, 무엇을 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큰스님 요새 모두 화두를, 일체를 놔두고도 또 화두를 잡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는데, 일체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찰나찰나 화(化)해 가면서 돌아가고 있으니 일체예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주가 있듯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일체 같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둘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일체" 하죠. 그러니 지금 "일체, 모두 놓고 관(觀)하라." 이런 것이지.

내가 날더러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네가 형성시켰고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네가 나를 운전해 왔어. 진화시켰어. 형성시켰어. 그러니 나를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도 너고, 말 한 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하게 하는 것도 너니까….' 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거 그 속에 닥쳐오는 대로 놓는 것이 관하는 거죠. 그래서 맡겨 놓는다면, 앉으나 서나 바로 도량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앉은 자리에 자부처는 있는 것이죠. 자부처부터 알아야 바로 우리 마음속의 그 모든 의식 자체 생명들이 같이 화합을 해 주게 됩니다. 내 국토부터 다룰 줄 알아야, 바로 보살로 화해서 남의 국토도 내 국토와 둘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갈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 화두야. 그런데 그 화두마저도 공했다 했거늘,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라 했거늘 거기에다가 또 남의 화두까지 받아 가지고 '이게 뭣고?' 하고 먹지 못한다면 그것은 십 년, 백 년을 가도 지금 시대에는 아니 된다 이거죠. 왜냐. 전자에는 그게 씨가 먹혔지만 지금은 모두 머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천체물리학이니 과학이니 또 지리학이니 의학이니 천문학이니 이런 것이 전체, 머리에 알음알이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씨가 먹히질 않아. 밥 한 그릇 남이 준 거를 들고 '이 뭣고?' 하고선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도 공했고 그것도 공했거늘 어찌 그거를 들고 끊어질까 봐 애를 쓰느냐 이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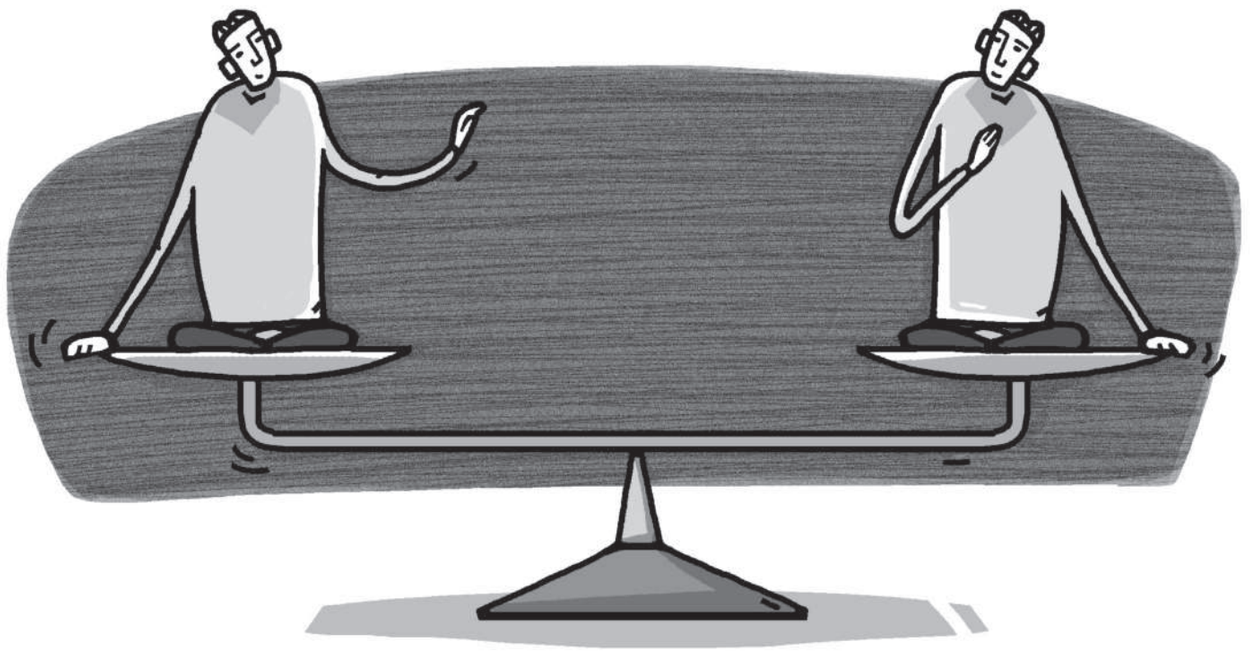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또 좌선을 할 때도 내 안으로 관한다면 그게 같이 들리지마는 바깥으로 끄달리면서 좌선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 왜냐. 지금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모든 소용돌이가 찰나에 이렇게 돌아가는데, 지구가 돌아가고 흑성이 돌아가고 우주가 돌아가고 사람도 돌아가고 사람의 마음도 돌아가고 고정됨이 없는데, 좌선을 하고 앉아 있으면서 하루 8시간을 앉았다 하더라도 단 5분 한 것만 못하다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좌선을 할 때에 관하라니까 화두를 들고 그것이 끊어질까 봐 애를 쓰고 '이게 뭣고?' 하는 게 관하는 건 줄 안다 이 소리지. 새 물이 들어오면서 헌 물은 배출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시대에, 만약에 그 물을 그냥 두고 있다면 그 썩은 물을 그냥 우리가 쓰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그랬죠. 선지식들이 "위로 눈을 뜨지도 말고 아래로 내려 보지도 말고 코끝을 내려다보고 아주 정연하게 관하라." 이런 말을 했거늘, 그것은 무슨 소리냐?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내다봐라. 그리고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바로 중도에서 중용에서,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이런 소리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해요. 요새 너무 아는 게 많아서 그런지 혼란을 일으키고 말이야, 남의 소리나 듣고. 부처님이, 석가세존이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석가세존의 몸뚱이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진짜 믿는 것은 그 부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항상 서리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보고 끄달리지 말고 그 마음을 뚫어보기 위해서 내 마음부터 뚫어봐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나를, 나라는 존재를 버려라. 버리는 게 아니라 맡겨 놔라. 아집을 버리고 말이야. 그것은 왜냐? 여러분이 여직껏 살면서도 고정되게 보신 게 있습니까? 들으신 게 있습니까? 또 말하는 게 있습니까? 가고 오는 게 있습니까? 먹는 것이 고정됩니까? 하나도 고정된 게 없어.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 사람 만나면 이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고, 저 사람 만날 땐 저 사람 만나는 대로 뜻과 행과 말이 나가니 그건 무슨 연고냐 이거야. 그러니 나라는 게 어딨는가? 누구 만날 때 내가 만났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는 없는 게 부처다 이런 소리죠. 그래서 관하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게 관하는 건지 그것조차도 모른다면 나를 어떻게 발견을 하며, 내 습을 어떻게 녹일 수 있으며, 내가 생동력 있게 모든 생물들과, 즉 사생(四生)과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대천세계를 막론해 놓고 내 몸뚱이 집과 대천세계의 집과 도량이 둘이 아닌 걸 어떻게 알 겁니까? 그래서 알게 되는 도리로 이끌어 주기 위해서 자기부터 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진짜로 일차적으론 믿어야 한다,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를. 둘째는 모든 일체를 거기서 해 나가니까 거기에 믿고 맡겨 놔라. 셋째, 거기서밖엔 일체를 할 수 없으니까 다가오는 대로, 아프면은 의사가 돼 주실 거고, 즉 약사가 된다 이거지.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줄 거고. 그래서 간략하게 말한다면 부처님의 마음, 한마음 안에서 그 모든 내 몸뚱이에 있는 중생들이 화해서 보살이 천백억화신으로 나투니, 털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고 들면서 모든 중생들을 건진다 이거야, 생사에 뛰어들어서. 그래서 중생과 부처는 둘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들듯이.

또 "몸은 내가 마음을 낼 때에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가 병이 나는 거지. 내가 병이 나니까 일체 중생도 병들었어. 그 일체 중생이 병이 낫는다면 아마 나도 나을 거야."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이냐. 유마힐 거사와 문수보살이 대담하는 데서 나온 소리지. 그러면 우리부터 발견해서 놓고, 발견해서 관하고, 관하고 발견해서 실험하고 체험하고, 당당한 그 주장자가 섰을 때 비로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이 전부 화한다 이거야. 그러니 마음 하나에서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보살들이 나투게 되니 그 얼마나 무량수(無量壽)와 같은 것이냐 이런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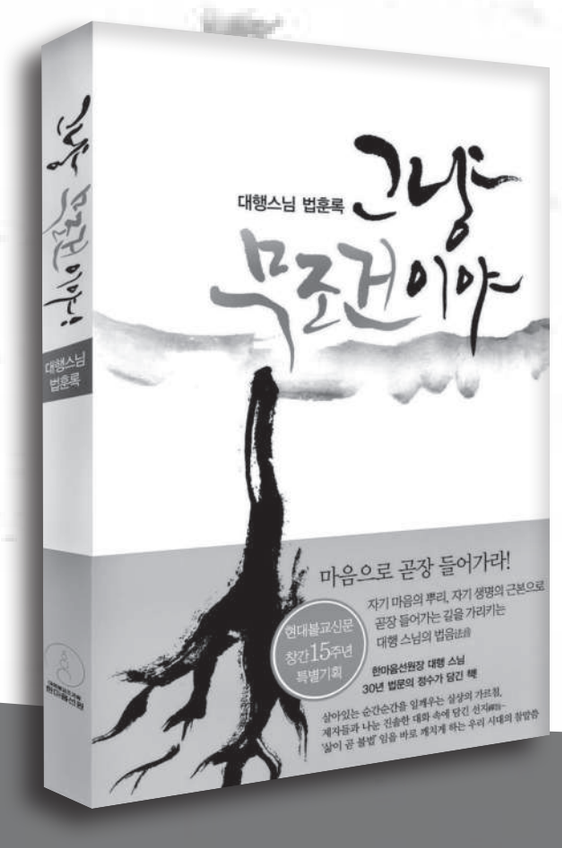
그럼으로써 보살로 화해서 바깥으로 모든 중생들의 생사에 뛰어들었으니 어찌 병이 없으랴. 보살도 어찌 아프질 않으랴. 중생들의 그 병이 없어진다면 보살 또한 병이 없어질 것이로되…. 그러니 거기에 좀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건 문수보살이 "무슨 인연으로써 병이 생겼으며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다 이 소리죠.

그러면 우리가 문자를 쓰기 이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거야. 문수보살이 그렇게 말을 하는 데 대답한 것은 뭐냐. "무명으로부터 애착이 생겨서 내 병이 났소. 또 일체 중생이 병이 들었으니 일체 중생이 병이 낫는다면 내 병도 낫겠소." 그 대답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 밑에 깔린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문수보살이 물었던 그 말도 밑에 깔려 있고, 유마힐 거사의 그 대답도 바로 그 백지에 깔려 있어. 그래서 백지를 볼 수 있다면 바로 무심과 유심이 둘이 아니게, 유구하게 무구하게 둘이 아닌 도리를 그대로 중용을 할 수 있고 중생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한마음에서 세세생생에 보살이 배출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각(正覺)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수많아진다 하더라도 불(佛)은 하나야. 그러나 양쪽 손에 돌을 들고 탁 쳤을 때 불이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지긴 했으나 그게 한데 합쳐서 하나라는 뜻이지. 만 명이다 할지라도 하나요, 억만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요, 그 하나도 이름해서 하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다 이거야. 그래서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관하라고 하는 건 물론, 뜻을 이루어서 배운 사람의 소견이 다 다르듯이, 소견이라고 하는 거보다도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소견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가 그 뜻을 이룬 사람은 소견도 없고 대견도 없어. 허허허. 그

☞ 22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모든 것을 중심을 잡고 똑바로 중도에서 보라

☞ 21면에서 계속

대로지.

그러니까 우리가 '관하라' 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믿고 맡겨 놔라. 한군데서 들고 나는 거다.' 역대를 한군데서 들고 나면서 이렇게 해 왔는데 바깥으로 방황하기 때문에, 그 한군데로 들고 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하기를 요새 이렇게 하죠.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생산이 돼서 나오는데, 생산될 걱정까지 하면서 거기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하는 탓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빠르고 빠른 세상에 앞장설 수 있는 인등이며, 마음의 향기로운 향이며, 밥 한 그릇을 놓고 바로 다 먹이고도 한 그릇이 되남을 수 있는 그런 중용을, 바로 무의 세계 유의 세계를 같이 계합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중생의 마음이 따로 없이 계합해서 중용을 하는 것이 그대로 법이다 이 소리죠. 그러니 관하라.

내가 지나올 때, 이런 말이 있더군요.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이거야. 그런데 모두 달라. 참선하고 좌선하는 사람들이 모두 마음들이 달라요. 이거는 저녁에 단 한 시간이나 30분 앉았는데 말이야,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하는 소리를 들으면 전부 끊어졌다는 소리만 들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끊어뜨리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다. 이러니 언제 공부는 하느냐."라고 한탄들을 하거든요. 나는 그때 빙긋이 웃었죠. 왜? 시간과 공간이 초월됐는데, 즉 말하자면 둥근 톱니가 아래 위 게 마주쳐서 같이 돌아가는데 거기 끊어진 게 붙을 자리가 어딨고, 이어지는 게 끊어질 자리가 어딨느냐 이거죠. 그대로 돌아간 건데. 그대로 돌아갔고, 그 24시간 끊어졌다는 생각 하기 이전에, 그냥 그 생각이 순간 날 때에 톱니는 24시간이라는 게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이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지.

또 하루 종일 일한 것이 누가 일을 하게 만들었던가. 내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걸 만들었지 누가 딴 사람이 시킨 게 아니야, 내가 있기 때문에. 소가 언덕이 있으니까 비비듯,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부처가 있고 모두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을까? 내가 나를 시자 부리듯이 그렇게 부렸지 누가 부렸을까? 그놈이 시킨 거지. 그놈이 시킨 거니까,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놈의 집이니까, 그놈의 시자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순응해서 따라갈 뿐이야.

그래서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지. "모든 진리에 순응하라. 그리고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어라. 바쁘게 맥박 뛰듯 지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순응 안 하고 항상 '이게 뭣고?' 생각을 하고 이게 잘못됐느니 저게 잘못됐느니,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하다가는 몸뚱이 떨어지면 그 또한 떨어지느니라. 지금 의식 가지고 몸뚱이가 떨어져서 간다면 눈도 멀고 귀도 멀어서 아무 데나 들어서 아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다면 그 모습 벗기가 상당히 어려우니라." 이랬거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또 한 가지 있죠. 부처님 당시에 석존과 유마힐 거사가 나란히 어깨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우리가 입산한 스님이든 스님이 아니든, 마음이 있는 모든 것은 불성이 다 있고 이 공부를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것을 표현한 거고, 둘째는 그 마음이 둘이 아니어서 항상 같이하고 있으니 유마힐과 부처는 둘이 아닌 것이고, 둘이 아니기에 모습은 유마힐 거사라는 방편, 부처님이라는 방편을 썼지만 그것을 지금 영화의 배우들이라고 본다면 부처님의 역을 맡아 가지고 나온 것도 자기의 그 근본의 종지가 바로 개선되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통달했기 때문에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죠. 유마힐은 유마힐대로 그 배역을 가지고 나온 거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두고 이 공부를 똑같이 했어도 뿌리는 같으나 모습이 각각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중생들은 말없이 거둘지언정 아무리 해도 보이는 데서는 이끌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편으로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는 거죠. 안팎을 다 이끌어 가려고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죠. 하늘 선녀가 내려와서 말을 했더니,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늘에서 꽃잎을 떨어트린다' 한 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게 와서 붙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와서 걸리는 거야. 그저 이게 오면 이게 옳다, 저게 오면 저게 옳다 그저 자꾸 붙어 돌아가니까 그것이 바로 무명에 덮이는 게 되고, 안이하게 둘이 아닌 도리만 알았지 너 나가 따로 있는 반면에 배출하는 도리를 몰랐다 이거야, 지금. 화(化)하는 도리를 몰랐으며 배출하는 도리를 몰랐으며, 중용을 할 줄 몰랐으며, 자기라는 아집을 두었으며,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게 붙어 돌아가는 거죠. 붙어 돌아가는 동시에 그걸 자꾸 떼려고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것은 칼로 물 베기라, 끊어지나, 그게?

그 진리에 순응하면서 틈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폭포수 물이 흘러서 바다를 메우고 흘러 흘러 돌아가는데 거기에 순응을 해야만이 그 물이 틈이 없듯이 우리의 마음도 틈이 없다 이거야. 틈을 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틈 내지 마라." 하는 거를 게을리하지 말라, '관하는 데 게을리하지 말라' 이러는 거죠. 틈이 있어서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돌아가는 이 자연의 진리에서 자꾸 끊어지니까 그걸 끊어뜨리지 말라고 한 거지, 남이 준 화두를 가지고 끊어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 사람은 좀 더 크게 눈을 뜨고 넓혀서 보고 위로 꼭대기로 마음이 훌쩍 올라가서 내려다볼 줄 알아야 하고, 옆으로 봐도 안 되고 위에서 내려다봐서 다 볼 줄 알아야 되느니라.

엊그저께 "우리 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8대조 할아버지가 유능하셨는데 이 묘지를 다 이장을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좋다면 좋다는 대로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그러나 그 사람네들은 그걸 아예 몰라. 그 8대조 할아버지는 예전에 참 유능하셨던 분이라 참 위대한 생각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내가 아는 소리를 할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방편으로써 "산이 이렇게 됐으면 당신 사놓은 자리는 이건데 이 자리는 아니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당신이 흥정을 해서 이 산을 마저 산다면…, 여기다가 세 분 묘지를 모시고 그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한 예가 있죠.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오신통이 재료로 돼 있는 거를 내가 마음대로 그것을 벗어나서 굴릴 수 없다면 마음으로부터 누진(漏盡)으로 굴릴 수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가고 오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심안으로 본다 하더라도, 각종의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속을 전부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남의 과거를 전부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렇게 한 것은 거기에서마저도 벗어나야 네가 그 다섯 가지의 재료를 마음대로 굴리면서, 바로 중생들을 안아 줘도 그 바퀴만 굴러 나간다면은 그냥 건져지느니라. 그래서 모든 걸 안아도 두드러지지 않고, 모든 걸 내놔도 줄지 않는 반면에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릇대로, 용도대로에 다 아시고 응해 주시고, 안아 주시니…. 그래서 천백억화신이 응해 주시고,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면서 줄 거는 주고 빼앗을 것은 빼앗고, 이러는 것은 뭐냐? 빼앗아도 자비고 줘도 자비다 이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정신병을 앓는 사람은 주장자를 빼앗아야 하고, 그래야 잠이 들고, 또 불종은 심어서, 씨를 심어서 이게 날 듯 말 듯 하는데 만약에 길러 주지 못한다면 안 되니까 그것을 길러 주기 위해서 내가 주장자를 줘야 하고…. 그래서 임제 스님은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그 참, 뜻이 깊죠. 주장자는 있으나 배출을 못 하고 용도에 따라서 굴릴 줄 모르는 사람 앞에 스님께서 주장자를 준다면 그것이 활연히 개오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가 주장자를 너를 줄 것이로되." 즉 말하자면 "네 물이 얕아 조그만 고기밖엔 놀 수가 없으니, 깊은 물에 큰 배를 띄울 수 있고 그 큰 고기가 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한테 배출시켜 주마." 하는 소리나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 그런 뜻이 서려 있는 거는 모르고, 그 말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관은 좀 버려야 하지 않나.

아까 얘기한 거, 꽃잎 얘기 한 것도 붙으면 붙은 대로 떼어지질 않는데 그걸 놔 버린다면은 그대로 붙지 않고 그냥 떨어지지 않느냐. 그 소리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성문 연각(聲聞緣覺)들은, 즉 말하자면 지금 말로 자기 불종을 계발해서 배출시킬 줄 모르고 자기만 편안하게 아방궁처럼 들어앉아서는 그냥 키우지 않는 형국이니, 불종자를 아주 삶아 먹는 거나 똑같다 이런 소리지. 우리가 그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본다면 그 밑바닥에는 그런 뜻이, 아주 무궁무진한 뜻이 서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문수보살이 물었던 거, 유마힐 거사가 대답했던 거는 나부터 믿어서 나부터 거기 놓고 모든 걸 한마음의 의식이 돼서, 바로 진화가 돼서 보살로 되어야만이 생사에 뛰어들어서 그 중생들을 건질 수 있다 이런 소리나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다음에는 무슨 말을 거푸 했느냐 하면 "보살은 중생들을 위해서 생사에 뛰어드니 어찌 병이 없으리. 중생들의 병이 나아진다면은 보살 또한 병이 나아질 수 있노라." 하고 거기에 붙여서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것은 나부터 알고 나부터 진화시켜서, 나부터 보살로 화(化)하게 만들고 난 뒤에는 그대로 보살로 화해서 털구멍을 들고 나면서 온통 건진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 여자 남자가 따로 없고, 우리 보십시오. 그전에도 항상 얘기했죠? 여자 남자가 따로 없다. 동서가 따로 없다. 우리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좀 더 넓게 보지 못하고 "아이고, 서쪽으로 떨어진다." 무슨 "동쪽이다." 하고 산맥을 보는 데도 그렇고, 산소를 쓰는 데도 모두 그렇게 보거든. 동서가 어디 둘이에요? 그러니 우리 참, 좀 더 넓게 생각을 해서 끄달리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한테서 나오는 거 자기한테 다 맡겨 놓고 믿는다면, 지켜본다면, 거기에서 바로 하나하나 오는 대로 체험이 된다면 그건 그 열매를 먹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써 더 얘기할 게 있으면 하고….

또 질문할 분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요, 죽고 사는 것도 그렇고 보석이 산더미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고, 왜 그런지 담담해요. "저런 걸 가지고 울고불고하는구나. 한 철이라고 해서 한 철 다 살지도 못하고 반쪽 살면은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 해서 뒹굴뒹글 바람에 날려서 사대가 다 흩어질 것을 왜들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 한 그릇을 가지고 숟가락을 열 개를 꽂아 놓고 먹는다 하더라도 좀 더 여유 있게 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있다면 밥이 생각할 때 "흥, 요거 가지고도 너희가 넓게 생각을 하고, 기분 좋게 생각을 하고 참다운 지혜로써 나가니 내가, 밥이 더 와야지." 그러고선 그냥 밥이 술술 들어오거든요. 허허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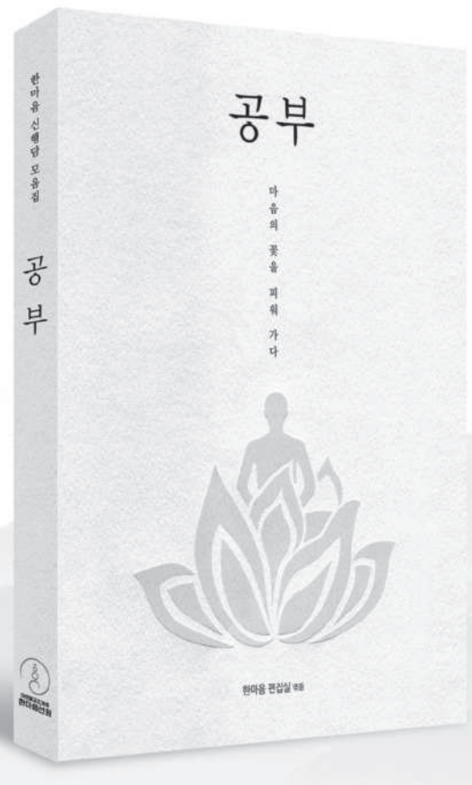
앉아서 천 리를 보고, 앉아서 자력으로써 끌어오고, 없는 사람의 것을 끌어오지 말고 있는 사람의 것을 스르르 오게 할 수 있고, 아, 또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재료가 저런 다른 혹성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사는 생명체들, 더워서 사는 생명체들, 뜨거운 데서도 사는 생명체들, 생명체 없는 데가 없어요. 모두 눈에 보여야만 있는 줄 아는 그런 마음은 버리고 좀 더 넓게 써서 모두가 두루 살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데도 중생들이 꽉 찼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처도 한자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용광로에 모든 것을 넣는다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 생산돼서 나오는데
생산될 걱정까지 하면서 거기 놓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탓입니다.

※위 법문은 1990년 2월 18일 정기법회 법문 중 일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

원융무이
〈圓融無二〉



홀연한
님

저절로
둘이 되고
셋이 되었다

앞서거니 뒷서거니
때에 따라
역할 바꿔가며

온전한 세상
아름답게 꾸민다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여라

처음 만나는 순간, 앳! 하고 놀랐다. 어떻게 이런 암각화가 있을 수 있을까? 순수하고 해맑은 아이들이 그렸을까? 동심을 간직한 어른들이 그렸을까? 스마트폰을 쓰는 요즘의 우리 아이들도 이런 그림을 그리며 놀고 있을까? 해와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 잘 지내고 있는 기분 좋은 그림이다.

셋이며 하나인 존재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좋은가!

의상 스님은,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다르게 생겼지만, 서로 연결되어진 형제들이라고 하셨다.(法性圓融 無二相) 가끔은 서로 많이 가지려고 다투기도 하고, 출신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면, 높낮이를 따지고, 차별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로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 인류가 마음을 크게 한 번 먹고, 만물의 근본 마음자리는 서로 같기 때문에, 한 형제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어른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대원성보살의
선지식 '산중서신'



③ 고암 스님을 생각하며

'인생의 길' 일러준 잊지 못할 스승

내가 처녀시절 때,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 불교계의 어른이신 윤고암 스님은 참으로 자비보살이시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

1967년 11월, 나는 부산불교청년회가 해인사로 수련대회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따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불심이 깊은 아버지였지만 보수적이기도 했던 아버지가 허락할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련대회에 참석하고 싶었던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멀리 사는 친구 집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몇날 며칠을 졸라 겨우 허락을 받았다.

우리 일행은 해인사 홍제암에 짐을 풀고 머물게 되었고, 용탑선원에 계셨던 고암 스님과 퇴설당의 성철 스님을 비롯해 지월, 일타, 지관, 법정, 보성 스님을 차례로 찾아가 친견했다. 인사도 드리고 법문도 들을 수 있었다. 법랍에 상관없이 스님들만 보면 좋을 때였다. 불교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마냥 신기하고 새롭던, 그야말로 단단한 초발심으로 살았던 시절이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나와 도반들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 알았다. 좀처럼 가까이서 뵐 수 없는 선지식들을 우리는 그렇게 가까이서 뵈었던 것이다.

그때는 고암 스님께서 종정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2박3일의 짧은 수련대회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험과 법문을 들을 수 있었고, 그것이 내겐 신심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기회였다. 처음 보았던 새벽 예불의 장엄하고 신성함과 당시 한 시대의 선지식이었던 이른바 '큰스님' 들과 한 자리에서 차담을 나눌 수 있었던 일은 그야말로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들이었다.

수련대회가 끝나고 수계식을 앞둔 우리 회원들은 고암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싶었지만 스님은 한사코 당신보다 더 훌륭한 스님들이 계시다며 마다하셨고, 우리는 떼를 써서 고암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았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내가 받은 법명이 대원성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평생을 살고 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푸근하고 인자한 스님의 모습과 미소, 그리고 스님의 법문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버지께서 나를 불렀다. 아버지가 불교신문에서 내 이름과 법명을 보신 것이다. 나의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나는 나의 행동에 실망한 아버지로부터 큰 꾸중을 들어야 했다. 다행히 아버지도 평소 존경하고 있던 스님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더 이상 나무라지 않았다.

나는 고암 스님께서 받아주신 날에 결혼식을 올렸다. 그리고 해인사로 신혼여행을 갔다. 당시는 길이 지금처럼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타야했다. 날이 어두워 도착한 우리 부부는 아래 마을 청운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다. 새벽 6시쯤 우리가 있는 곳을 어떻게 아셨는지 고암 스님이 우리가 묵고 있는 곳으로 전화를 했다.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님께서는 "용탑선원에 불공 준비를 다해두었으니 10시까지 올라오라"고 했다. 시간에 맞추어 올라갔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찰밥공양과 과일, 꽃 등 스님이 공양 준비를 너무도 잘해 주셔서 눈물이 날 정도였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우리 부부에게 그 날 스님의 따뜻함은 잊을 수 없는 큰 위로와 응원이었다. 내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스님이 아들 이름까지 지어 보내셨다. 이후로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아이들의 안부를 늘 챙겨주셨다.

어느 겨울, 눈이 많이 내린 새벽이었다. 스님으로부터 안부 전화가 왔다. 반가운 마음에 도반과 함께 뵙겠다고 했더니 길이 좋지 않으니 다음날 오라고 했다. 나와 도반은 스님이 너무나 뵙고 싶어 그 옛날처럼 떼를 썼지만 스님은 네 번이나 전화를 걸어 "오지 말라"고 하셨다. 아쉬웠지만 스님의 따뜻한 마음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스님을 뵈러갔다. 스님이 치과 치료를 받고 계실 때라 깨죽을 끓여갔는데 스님은 부처님께 먼저 올리고 우리를 위해 불공을 올리며 축원도 해주셨다.

언젠가 대원성이라는 법명이 내게 너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스님께 다른 이름을 받고 싶다고 했더니 스님은 "아니야 그 이름이 좋은 거야"하시며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빙그레 미소를 머금던 스님의 얼굴이 떠오른다. 나는 그 이후로 내가 내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대원성(大圓性)' 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곤 한다. 스님이 내게 주신 것은 법명 세 글자가 아니었다. 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을 주신 것이다.



고암 스님(오른쪽)과 대원성 보살.

BTN 불국토상조는 장례포교사

회원가입 문의 : 1577-7675

장엄번 제단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대성인로왕보살과 극락도사아미타불 장엄번으로 제단 장엄

스님 시다림



입관 및 성복례를 하는 동안 스님께서 직접 장엄염불로 영가가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모십니다.

지장경 수의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해 지장경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는 BTN불교TV가 영가의 극락왕생을 인도하기 위해 설립한 불교전문 장례포교사로서 불자들을 위한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불국토상조 "우량업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회계감사를 통해 2018년 6월29일 우량업체 발표. 상조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원)을 충족한 회계지표 상위업체 공개명단에 불국토상조가 포함됨

중요정보 고시사항

대표이사 : 구본일 / 홈페이지 : www.btnlife.co.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번호 : 서울-2011-제68호 /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을 준수하며, 해약 환급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고, 고객 불입금을 국민은행에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고객환급의무액 10,286,290,000원 / 상조관련자산 14,001,360,000원 / 공인회계사(삼덕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주문배송 02-568-1611 | www.chunggood.com

청굿

낫토가 아닙니다

굿모닝 생청국장 종주국의 자존심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우리 식품,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

전통발효음식 K-Food!
특허 받은 우리 균주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



이계호 교수의 굿모닝 생청국장이란?

청굿 굿모닝 생청국장 44g X 2개입
|주문배송| 02-568-1611

한국형 글로벌 장건강 프로젝트란?

전통과 과학이 만나 완성된 "생청국장"

전통문화융합연구사업 연구기획과제로 선정된
국가 R&D 프로젝트입니다.

이계호 교수가 참여한 연구팀
2016년 ~ 2020년 54개월간 청국장의 과학화, 표준화 작업

표준화(균주 및 제조 공정) → 활용다양화

유해물질 최소화	유익물질 최대화	활용다양화
바이오제닉 아민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 독소 유해미생물, 냄새	이소플라본 아미노산 PGA 비타민 K2	제품의 기능, 모양, 질감, 맛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성별, 세대별, 국가별 수요 확대

특허번호 (제10-1860836호)

떠먹는 생청국장, 왜 더 좋은가?

특허받은 전통 우리 균주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유익물질을 극대화하여 청국장의 특유의 냄새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본의 바실러스 낫토균을 능가하는 '바실러스 아밀로리퀘파시엔스균' 1,000억마리를 담았습니다.

과학화 / 표준화 → 유익 물질 최대화 / 유해 물질 최소화 → 청굿

순창 전통 장류에서 발굴한 장 건강에 좋은 균주로 뛰어난 내산성, 내담즙성, 혈전분해활성, 유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효과가 뛰어나며 바이오제닉아민과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하지 않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더 잘 맞는 우리 식품

늘어나는 장 속 유해균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꼭 맞는 균주!
청국장에서 찾았습니다.

순창군 (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5개 대학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안전 먹거리 기본 회복 전도사 이계호 교수 주도 연구
발효 공정의 과학화, 균주표준화, 제조공정표준화
논문 13건, 특허 9건, 다양한 학술지 발표 / 수상 (22 / 2)
장내 미생물 균총 변화 분석을 통한 장기능 개선 기능성 검증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함께 행복해요
세상을 바꾸는 동행同幸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Btv 30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